정답과 해설

Contents



Ⅰ 현대 시 02

Ⅱ 고전 시가 24

Ⅲ 현대 소설 40

Ⅳ 고전 산문 64

Ⅴ 수필·극 77

Ⅰ 현대 시

01 시적 화자, 시적 대상, 시적 상황

확인 문제 p.19~21

바로바로 간단 체크 나룻배와 행인_ 한용운 ❶ ○ ❷ X ❸ 당신 ❹ 희생 수라_ 백석 ❶ ○ ❷ ○ ❸ 문밖 ❹ 재회 월훈_ 박용래 ❶ X ❷ ○ ❸ 노인 ❹ 외로움 ❺ 관찰자

01 ④ **02** ③ **03** ③ **04** 거미 가족이 문밖에서 재회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 **05** ⑤ **06** ④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나룻배와 행인_ 한용운

시적 화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시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자.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수미상관 구조
시적 화자 청자(중생, 조국, 연인 등)
▶ 1연: '나'와 '당신'의 관계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당신'의 무심한 태도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현실적인 시련
▶ 2연: '당신'의 무심함과 '나'의 희생적 자세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인고적 자세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그려
'당신'의 무정한 태도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당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마다 낡아갑니다
인고와 기다림의 자세
▶ 3연: '나'의 인고와 기다림

나는 나룻배 / 당신은 행인
▶ 4연: '나'와 '당신'의 관계 강조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나룻배인 '나'가 행인인 '당신'을 기다림.
- **정서·태도**: 희생적, 헌신적, 인고적 태도로 '당신'을 기다림.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대조적, 구도적
- **제재**: 나룻배, 행인
- **주제**: '당신'에 대한 '나'의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
- **특징**: ① 은유와 상징을 통해 '나'와 '당신'의 관계를 대조적으로 설정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② 경어체를 사용한 담담한 어조로 대상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존경을 표현함.
③ 수미상관의 구성으로 형식적 완결성과 시상의 안정감을 줌.

01 정답 ④

정답 풀이

화자인 '나'가 '당신'과 오랫동안 다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나'는 '당신'의 무심하고 무정한 태도를 인내하면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과 4연에서 '나'를 '나룻배'에 비유하였다.
③ 3연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에서 '당신'이 돌아올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드러난다.
⑤ '나'를 흙발로 짓밟거나 물만 건너면 돌아보지도 않고 가 버리지만, '나'가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02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시의 화자는 청자인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오답 풀이

① 1연에서 화자는 '나룻배'에, 청자는 '행인'에 비유하고 있다.
② 화자는 청자인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므로, 사랑의 주체는 화자이다.
④ 화자는 '당신'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존재이고, 청자는 '나'에게 무정한 존재이다.
⑤ 화자는 청자를 기다리며 현실의 시련을 이겨 내는 존재이다. 하지만 이 시에 청자가 현실의 시련을 겪고 있다거나 시련에 굴복했다고 볼 만한 근거는 나타나지 않는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수라_ 백석

시적 화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시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자.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나린 것을 나는 아모 생각 없이
시적 화자 '나'의 정서 – 무심함
문밖으로 쓸어 버린다
: '나'의 정서 변화
차디찬 밤이다
시간적 배경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거미 가족의 비극성을 강조함.
▶ 1연: 새끼 거미를 무심히 문밖으로 쓸어 버림.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어미 거미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미안함.
나는(또 큰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리며) → 반복을 통한 시상 전개
( ): 새끼를 만나게 해 주려는 행동
찬 밖이라도 새끼 있는 데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서러움, 연민, 안타까움
▶ 2연: 큰 거미를 문밖으로 버림.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데서 좁쌀알만 한 알에서 가제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새끼 거미의 연약한 모습 묘사 – 시적 상황의 비극성을 강조함.
못한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슬픔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우이 달아나 버리며 나를 서럽게 한다
서러움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러운 종이에 받어 또 문밖으로
'무척 적은 새끼 거미'
가족 공동체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공간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의 걱정을 하며 있다가 쉬이 만나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
거미를 의인화함.
가족 공동체 회복을 소망함.
▶ 3연: 갓 태어난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며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함.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면서 거미 가족이 재회하기를 바람.
- **정서·태도**: 거미 가족에게 무심함, 미안함, 서러움, 연민, 슬픔을 느낌.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일상적, 경험적, 감상적
- **제재**: 거미 가족을 문밖으로 쓸어 버린 경험
- **주제**: 해체된 가족 공동체에 대한 슬픔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
- **특징**: ①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표현함.
  ②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점층적으로 심화됨.
  ③ 거미를 문밖으로 버리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시상이 전개됨.

03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시의 화자는 '나'로, 의인화된 '거미'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답 풀이

① 자연물인 '거미'를 시의 중심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

② 시적 화자가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

④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적 화자의 정서가 '무심함 → 미안함 → 서러움 → 슬픔'으로 변하고 있다.

⑤ 시적 화자가 '거미 새끼 하나'를 문밖으로 쓸어 버린 행동이 거미 가족이 해체되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04

정답 풀이

원래 '문밖'은 춥고 위험한 곳이지만, 화자가 무심히 새끼 거미를 문밖으로 쓸어 버리고 이어서 나타난 큰 거미(어미 거미)를 문밖으로 또 쓸어 버렸기 때문에 '문밖'은 새끼 거미가 어미 거미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즉 '문밖'이 어미 거미, 새끼 거미, 무척 적은 새끼 거미가 서로 만나 가족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화자가 무척 적은 새끼 거미를 쓸어 문밖으로 버린 것이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월훈_ 박용래

시적 화자는 누구이며 어떠한 시적 상황에 처해 있는지 살펴보자.

: 시선의 이동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잎 진 사잇길 저 모랫둑,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들어내면 보이는 마을.

(세상과 단절된 자연의 공간 / ▶ 첩첩산중에도 없는 외딴 마을)

갱 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루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요. 콩깍지,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외딴집에도 불빛은 앉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과빛입니다.

(음성 상징어 / 마을이 산속 깊이 위치해 있음. / 짧은 겨울 해 / 향토적 정경(반복법, 연쇄법) / ▶ 갱 속 같은 마을의 모과빛 창문)

기인 밤입니다. 외딴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우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브로 풀려 풀려 내리는 짚단, 짚오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나래 묻는

(시적 허용 / 시적 대상 / 노인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 / 노인의 상황 제시 – 외로움 / 짚단의 설렘(시적 허용, 의인화) / 음성 상징어)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사람들의 온기를 그리워함. / ▶ 잠 못 이루는 노인과 처마깃의 새)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떼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노인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고독감 강조) / 노인이 지닌 외로움의 깊이를 간접적으로 나타냄.)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함박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月暈).

(외딴 마을의 적막함을 고조하는 배경 묘사 / 달무리 – 외로움과 그리움의 이미지 → 명사형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여운을 줌. / ▶ 겨울 귀뚜라미의 울음과 달무리가 진 밤의 풍경)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 **시적 상황**: 화자가 적막한 산골의 외딴집에 사는 노인을 관찰하고 있음.
- **정서·태도**: 노인의 외로움과 그리움, 노인을 관찰하는 화자의 관조적 태도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향토적, 서정적
- **제재**: 외딴집 노인
- **주제**: 산속 외딴집에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
- **특징**: ① 토속적 시어를 사용하여 향토적 서정을 드러냄.
  ②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묘사함.
  ③ 경어체를 사용하여 정감의 깊이를 더해 줌.
  ④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상을 전개함.

05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시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가 '외딴집 노인'을 관찰하여 시적 대상의 외로움과 그리움을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노인'에게 말을 건네고 있지 않다.

② 화자는 시적 대상을 관찰하고 있을 뿐, 시적 대상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지는 않다.

③ 시적 대상인 '노인'의 고독감이 '귀뚜라미'에 이입되어 울음소리를 통해 강조되고 있다.

④ '외딴집 노인'은 화자가 아니라 시적 대상이고, 화자를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도 않는다.

06

정답 ④

정답 풀이

〈보기〉를 참고할 때 정적 속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는 노인의 쓸쓸함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는 노인이 사는 외딴집이 세상과 단절된 자연의 공간임을 알게 한다.

② '갱 속 같은 마을'은 노인의 집이 산속 깊이 위치하고 있음을 알게 한다.

③ 봉당에 불을 켜는 분위기와 콩깍지의 이미지는 모두 향토적 정경과 관련되어 있다.

⑤ 눈발이 치는 듯한 '밖'의 달무리 이미지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를 연결하여 노인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02 화자의 정서, 태도, 어조

확인 문제 p.29~31

바로바로 간단 체크 모란이 피기까지는_ 김영랑 ❶ ○ ❷ ○ ❸ 모란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_ 이문재 ❶ X ❷ ○ ❸ 가로수들 ❹ 안타까움 ❺ 비판적 사령(死靈)_ 김수영 ❶ ○ ❷ X ❸ 자유 ❹ 성찰 ❺ 비판적

01 ③ **02** 화자는 모란이 피었을 때를 찬란한 순간으로 느끼지만 모란이 지고 나면 큰 슬픔에 빠지고 만다. 마지막 행은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는 시구를 통해 그러한 슬픔을 겪게 될지라도 봄을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03** ② **04** ① **05** ④ **06**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모란이 피기까지는_ 김영랑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지 살펴보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 수미상관 구조
(화자의 소망이자 기다림의 대상)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 경어체 사용
(시적 화자 / 모란 = 소망)
▶ 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읜 설움에 잠길 테요
(모란이 떨어진 슬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을 강조함. (과장법))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옵네다
(한결같이)
모란이 피기까지는
▶ 3~10행: 모란이 지고 난 뒤의 슬픔과 상실감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여전히 – 화자의 숙명적 기다림) (역설적 표현, 관념의 시각화)
▶ 11~12행: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봄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정서·태도**: 모란이 지고 난 뒤 슬픔과 상실감을 느끼고 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유미적, 탐미적, 낭만적, 상징적
- **제재**: 모란의 개화와 낙화
-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
- **특징**: ① 수미상관 구조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함.
  ② 역설과 도치를 활용하여 화자의 심경을 잘 부각함.
  ③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 문학적 아름다움과 섬세함을 느낄 수 있음.

01

정답 ③

정답 풀이

'어느 날'은 시적 대상인 '모란'이 '자취도 없어지'는 날이므로 화자가 시적 대상과 이별하는 때를 가리킨다.

오답 풀이

①, ④ 이 시에서 '모란'은 화자가 '봄'을 기다리는 이유이자 간절한 소망의 대상으로 화자는 모란이 지자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② '설움'은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화자가 느낀 정서이므로 화자가 시적 대상과 이별한 후 느끼는 정서로 볼 수 있다.

⑤ '삼백예순 날'은 화자가 거의 일 년 내내 서글퍼 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02

정답 풀이

화자에게 모란이 피는 봄의 어느 한 때는 그토록 기다렸던 찬란한 순간이지만, 모란이 지고 난 후 큰 상실감을 느끼게 하므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마지막 행은 그러한 슬픔을 겪게 될지라도 모란이 피었을 때의 보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광화문, 겨울, 불꽃, 나무_ 이문재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지 살펴보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역설적 상황. 자연의 섭리에 반하는 현실)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
(시간적 배경 / 공간적 배경. 구체적 장소 제시 → 현실감 부여)
맨몸으로 돌아가 있는 가로수들이
일제히 불을 켠다(나뭇가지에 : 도치법
수만 개 꼬마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 ): 어두워지지 않는 이유
(현대 도시 문명의 인위적 화려함)
불현듯 불꽃나무!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영탄적 표현, 인위적인 화려함에 현혹될 뻔함.)
▶ 1연: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 광화문 네거리

(휴식, 재충전의 시간)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것일까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
밤을 끄고 휘황하게 낮을 켜 놓은 권력들
(화려함만 추구하여 생태계를 교란하는 이기적인 인간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
(정상으로부터의 일탈로 빚어진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환기함.)
▶ 2연: 밤에도 환하게 불 밝히고 잠들지 못하게 하는 도시 권력들

엽록소를 버린 겨울나무들
(나뭇잎이 다 떨어져 없는 상태)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
(햇빛이 아닌 전구 불빛에 의한 광합성)
(역설적 진술로 상황의 부조리함 부각)
광화문은 광화문(光化門)
(한자 그대로 밝은 광화문 거리)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나무들이
(겨울의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상황)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현대 문명에 의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상실한 인간과 나무들)
▶ 3연: 겨울이 교란당하고 있는 광화문과 겨울나무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 **시적 상황**: 겨울 저물녘 광화문 네거리의 가로수들을 관찰함.
- **정서·태도**: '나무'의 자연스러운 성장이 왜곡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현대 문명에 의해 생태계가 파괴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냄.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비판적, 상징적
- **제재**: 현대 도시 문명, 겨울나무, 광화문 네거리
- **주제**: 화려함만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세태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인간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함.
- **특징**: ① 일상적 소재에서 의미를 찾고 현실을 비판함.
  ② 역설법, 도치법, 의인법 등 다양한 시의 표현 기법을 활용함.
  ③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여 사실감을 높임.

03

정답 ②

정답 풀이

화자는 인위적인 빛에 의해 광화문이 한자 그대로 밝은 상태인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불현듯 불꽃나무!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에서 화자가 인위적인 화려함에 현혹될 뻔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에서 알 수 있다.

④ 3연 1~2행에서 겨울나무들이 전구 불빛에 의한 광합성 때문에 교란당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해군 장군의 동상도 잠들지 못하고 /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두 눈 뜨고 있다'에서 알 수 있다.

04

정답 ①

정답 풀이

㉠에서 화자는 수만 개의 꼬마전구가 불을 밝히는 것을 보고 그 화려함에 현혹될 뻔하였지만, 경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② 화자는 휴식, 재충전의 시간인 '어둠'이 '병균 같은 것'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③ 해가 졌음에도 인공적인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권력들(이기적인 인간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이 나타난다.

④ 화자는 꼬마전구로 뒤덮인 나무들이 전구에 의한 광합성을 하며 겨울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화자는 현대 문명의 폐해로 나무들뿐 아니라 사람들마저 잠들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 사령(死靈)_ 김수영

시적 화자가 시적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표현하는지 살펴보자.

책 속의 글자, 자유와 정의를 말하는 책, 자아 성찰의 매개체(의인법, 대유법)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 수미상관 구조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

시적 화자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유를 추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반성(설의법)

▶ 1연: 활자로만 존재하는 자유와 죽어 있는 화자의 영혼

시적 청자(활자)

벗이여 /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돈호법 —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자조적 태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 2연: 침묵을 지키는 자신에 대한 반성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 일상의 사소한 것들

담장의 푸른 페인트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

▶ 3연: 부정적 현실에 대한 불만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양심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현실과 타협하며 행동하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자유와 정의가 부재하는 공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 4연: 정의가 부재하는 현실과 자신의 무기력한 태도에 대한 불만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조적 태도

▶ 5연: 죽어 있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자조와 자괴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자유가 억압된 부정적인 현실
- **정서·태도**: 화자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적, 반성적, 비판적, 자조적 태도를 드러냄.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비판적, 반성적, 주지적
- **제재**: 부도덕한 현실과 지식인의 죽은 영혼
- **주제**: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성찰과 자괴감
- **특징**: ①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함.
  ② 자성적 어조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를 비판함.

05

정답 ④

정답 풀이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라' 등의 구절을 반복하여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심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를 통해 부정적인 시대 상황이 과거부터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 변화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화자는 시적 대상인 '벗(그대)'과 관련하여 자괴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을 뿐 시적 대상을 공경하면서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황혼'이나 '돌벽 아래 잡초'와 같이 화자의 시선에 포착된 대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대화체가 일부 나타나긴 하지만, 화자가 시적 청자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06

정답 풀이

화자는 위축된 의사소통의 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경직된 사회에 대응해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영'을 죽어 있다고 표현하며 성찰하고 반성한다.

03 시의 운율

확인 문제 p.36~39

바로바로 간단 체크 진달래꽃_ 김소월 ❶ ○ ❷ X ❸ 이별 ❹ 축복 ❺ 희생 ❻ 3 ❼ -우리다 ❽ 수미상관 산속에서_ 나희덕 ❶ X ❷ X ❸ 산속 ❹ 성찰 ❺ -리라 ❻ 문장/통사 청산도_ 박두진 ❶ ○ ❷ ○ ❸ 부정적 ❹ 의성어

01 ② **02** 두 작품의 화자 모두 이별의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진달래꽃〉의 화자는 희생적인 태도로 떠나는 임을 축복하며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면서도 임과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에둘러 표현하고 있다. 반면 〈보기〉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원망하면서 붙잡고 싶어도 보낼 수밖에 없는 마음을 표현하며 임이 곧 돌아와 주기를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03 ④ **04** ③ **05** ② **06** ⑤ **07** ② **08** ②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진달래꽃_ 김소월

앞서 배운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나 보기가 역겨워 (화자 7)
가실 때에는 (5) └ 이별의 상황을 가정함.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7 5) ▶ 1연: 이별의 상황에 대한 체념(기)
: '우리다'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함

영변에 약산
진달래꽃 ①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을 '진달래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표현함. ② 화자의 분신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 2연: 떠나는 임에 대한 축복(승)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 ▶ 3연: 원망을 넘어서는 희생적 사랑(전)
희생을 통해 이별의 정한을 사랑으로 승화함.

나 보기가 역겨워 : 수미상관 구조
가실 때에는 ① 화자의 의지 강조 ② 형태적 안정감 부여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 4연: 인고의 의지로 이별의 정한 극복(결)
① 떠나는 임에 대한 배려 ② 반어적 표현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임과 이별하는 상황을 가정함.
- **정서·태도**: 이별 상황에 체념하고, 임이 떠나는 길에 진달래꽃을 뿌리며 임을 축복함, 임을 위해 희생하려는 태도를 드러냄.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전통적, 애상적, 민요적, 향토적
- **제재**: 임과의 이별
- **주제**: 승화된 이별의 정한(情恨)
- **특징**: ①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함.
  ② 3음보, 7·5조의 민요적 율격과 '-우리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함.
  ③ 간절하고 섬세한 어조로 이별의 슬픔을 반어적으로 드러냄.

01

정답 ②

정답 풀이

이 시에서 '(A)반복-(A)반복-(B)변화-(A)반복'의 구조로 시어를 배열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시의 1, 3, 4연은 비슷한 글자 수가 반복되고 있다.
③ 각 연의 마지막 행은 세 번의 호흡으로 끊어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3음보의 운율을 형성한다.
④ 1, 2, 4연의 마지막 행을 '-우리다'로 끝맺음으로써 운율을 형성한다.
⑤ 이 시의 1, 4연은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우리다'라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한다.

02

정답 풀이

두 작품의 화자 모두 이별의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에 대응하는 태도는 다르다. 〈진달래꽃〉의 화자가 이별의 상황에 순응하며 헤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반면, 〈보기〉의 화자는 원망의 마음과 함께 곧 돌아와 달라는 당부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산속에서_ 나희덕

앞서 배운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시련이나 절망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
(길을 잃어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리라 : '-ㄴ 사람은 ~리라'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터덜거리며 걸어간 길 끝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치고 기운이 빠진 모습
멀리서 밝혀져 오는 불빛의 따뜻함을) ( ): 도치법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싸 주는 따뜻한 인정
▶ 1연: 길을 잃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불빛의 따뜻함

(막무가내의 어둠 속에서 : 희망, 위안, 위로(긍정적 의미) △: 고난, 시련(부정적 의미)
절망적인 극한의 시련
누군가 맞잡을 손이 있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
인간에 대한 얼마나 새로운 발견인지) ㄴ지: 어미 '-ㄴ지'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따뜻한 인정이 큰 위로와 위안이 됨을 새삼 느끼게 됨.
▶ 2연: 어둠 속에서 힘이 되는 맞잡은 손의 따뜻함

산속에서 밤을 맞아 본 사람은 알리라
어렵고 힘든 현실에 처해 본 사람
그 산에 갇힌 작은 지붕들이
주변의 이웃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거대한 산줄기보다

얼마나 큰 힘으로 어깨를 감싸 주는지
산속에서 밤을 맞는 사람이 느끼는 안도감과 위로
▶ 3연: 산속에서 밤을 맞은 사람에게 전해지는 작은 지붕들의 위로

먼 곳의 불빛은
나그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존재
산속에서 밤을 맞은 사람 –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줌.
▶ 4연: 나그네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불빛의 위안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 **시적 상황**: 늦은 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경험과 그로 인한 깨달음
- **정서·태도**: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성찰함.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사색적, 성찰적, 고백적
- **제재**: 늦은 밤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헤맨 경험
- **주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따뜻한 힘, 길을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따뜻한 불빛이 되어 주는 삶의 자세와 태도
- **특징**: ① 도치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생생하게 드러냄.
  ② 긍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와 부정적 의미를 지닌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함.

03

정답 ④

정답 풀이

'-ㄴ 사람은 ~리라', '-ㄴ지'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⑤ '사람', '불빛'과 같은 시어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할 뿐,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04

정답 ③

정답 풀이

'불빛(㉠)', '(누군가) 맞잡을 손(㉢)', '작은 지붕들(㉣)'은 희망, 위안, 의지가 되는 존재를 의미하며, '어둠(㉡)', '밤(㉤)'은 고난, 슬픔, 시련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 정서가 담긴 시어와 부정적 정서가 담긴 시어로 바르게 나누어 묶은 것은 ③이다.

05~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청산도_ 박두진

앞서 배운 시의 운율 형성 방법 중 어떤 방법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시적 대상 / 이상적 세계 / 산의 푸르름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함.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숱한 나무들, 무성히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햇살
돈호법, 반복법
건강한 생명력, 풍요로운 산의 모습
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짜기서 울어 오는
적막함 – 해방은 되었으나 아직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
뻐꾸기…….
▶ 1연: 생명력이 넘치나 적막한 청산의 모습

시적 화자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나는
슬픔의 정서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내사 줄줄
나는
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 버린 것 잊어버린 하늘과, 아른
① 물의 흐름 ② 눈물의 흐름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늘에, 어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만날지도 모르는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 부재하는 대상, 그리움의 대상 / 반복을 통한 그리움의 정서 강조
▶ 2연: 볼이 고운 사람에 대한 그리움

티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맑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현실 / 순수성과 건강성
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눈물 어
보고 싶은 / 암담한 현실
릴 볼이 고운 나의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틔어
화자가 소망하는 세상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
△: 부정적인 현실
을, 총총총 달려도 와 줄 볼이 고운 나의 사람.
화자가 오기를 소망하는 대상 – 밝고 건강한 세계
▶ 3연: 볼이 고운 사람에 대한 기다림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 뻐꾸기는 우는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
광복 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물결'에 비유함.
가는 물결 같은 사람 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 혼자
반복을 통한 기다림의 의지 부각
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 4연: 볼이 고운 사람에 대한 기다림의 의지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청산을 통해 밝고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열망을 노래함.
- **정서·태도**: 부정적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이상 세계가 오기를 소망함.

| 작품 개요 |
- **갈래**: 산문시,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서정적
- **제재**: 청산(푸른 산)
- **주제**: 밝고 건강한 세계에 대한 소망
- **특징**: ① 반복법과 열거법을 사용하여 소망을 강조함.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역동적으로 표현함.

05

정답 ②

정답 풀이

이 시는 행과 음보의 규칙이 없는 산문시로 '산아.'와 같은 호명어의 반복과 문장 단위의 리듬감 있는 호흡을 통해 내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에서 청산을 사람처럼 의인화하여 부르며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산아. 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와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와 같은 반복과 변주를 통해 시상을 점층적으로 전개하면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여 드러내고 있다.

④ '달밤', '새벽녘' 등 암담한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와 '밝은 하늘', '빛난 아침' 등 화자가 소망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시어를 대조하여 어두운 현실과 대비되는 이상적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⑤ 산문시의 형식 안에서 '난 혼자 그리워라. 가슴으로 그리워라.', '너만 그리노라.' 등의 영탄적 어조로 화자의 간절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06

정답 ⑤

정답 풀이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시적 대상 사이의 대립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연과 3연을 명사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② '산'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며 중심 대상으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③ '철철철', '줄줄줄', '총총총' 등의 의태어와 의성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④ '나'라는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 있으며 3연의 '틔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등에서 상황을 가정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7

정답 ②

정답 풀이

나무가 우거지고 햇살이 비치는 등 생명력이 넘치지만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부는 적막함이 감도는 청산은 아직은 화자가 염원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아니다. 화자는 혼란스럽고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밝고 건강한 세계가 오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재는 이상이 실현된 지 않은 상태이다.

08

정답 ②

정답 풀이

'둥둥 산을 넘어, 흰 구름 건넌 자리 씻기는 하늘.'은 구름이 사라지고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음을 표현한 것으로, 여기서 '둥둥'은 '산을 넘어' 가는 '흰 구름'의 움직임을 부각한다.

오답 풀이

① '철철철'은 생생한 기운이 가득한 '짙푸른 산'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숱한 나무들'과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로 이루어진 생명력 넘치는 모습을 부각한다.

③ '줄줄줄'은 '골짜기'의 '물소리'와 '풀밭'에 엎드린 '나'의 '가슴'속 우는 소리를 조응시키는 것으로, '나'의 고조된 감정을 부각한다.

④ '아른아른'은 '하늘'이 희미하게 보이다 말다 하는 모양을 표현하는 것으로, 오지 않는 '하늘'에 대한 '나'의 그리움을 부각한다.

⑤ '총총총'은 바삐 걷는 몸짓을 표현하는 것으로, '나의 사람'이 '나'와 만나기 위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기꺼이 '달려도 와 줄' 것이라는 '나'의 기대를 부각한다.

04 시의 이미지(심상)

확인 문제

p.43~45

바로바로 간단 체크 성에꽃_ 최두석 ❶ ○ ❷ ○ ❸ 성에 ❹ 차가운 자화상_ 윤동주 ❶ X ❷ ○ ❸ 우물 ❹ 그리움 ❺ 시각화 봄날_ 김기택 ❶ X ❷ ○ ❸ 할머니들 ❹ 음성 상징어 ❺ 색채

01 ① **02** 유리창에 핀 성에에서 서민들의 삶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화자의 인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⑤ **04** ③ **05** ·시구: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 ·효과: 음성 상징어 '노곤노곤'을 활용하여 햇볕을 쬐어 천천히 몸이 풀리며 따뜻하게 녹아드는 듯한 편안하고 나른한 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봄볕을 쬐고 있는 할머니들의 평화롭고 따스한 분위기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06** ③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성에꽃_ 최두석

시에서 이미지(심상)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서민들의 삶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 성에꽃을 비유한 표현(은유법) : 현재형 시제(생동감, 현장감)

엄동 혹한일수록
계절적 배경, 서민들의 힘겨운 삶 부각
선연히 피는 성에꽃 ▶ 1~4행: 새벽 시내버스 차창에 핀 성에꽃
힘겨운 상황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나는 서민들의 삶의 숨결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 평범한 사람들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시적 화자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행위
다시 꽃 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 성에꽃에서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느낌. → 역설적 표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서민들의 애환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 차가운 아름다움(촉각적 심상의 대비) 서민들의 삶의 열정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서민들의 삶을 이해하려는 행위(연민)
이마를 대고 본다 ▶ 5~19행: 성에꽃에 나타나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장면의 전환 – 친구의 얼굴을 떠올림.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감옥에 있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 20~22행: 만날 수 없는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겨울 새벽, 시내버스 창가에 어린 성에를 관찰함.
- **정서·태도**: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비판적, 현실 참여적
- **제재**: 새벽 시내버스 차창에 서린 성에
- **주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애정
- **특징**: ① 원관념 '성에꽃'을 다양한 보조 관념('막막한 한숨', '정열의 숨결') 등에 비유함.
② 촉각적 심상의 대비('엄동 혹한일수록 / 선연히 피는 성에꽃', '차가운 아름다움'과 '더운 가슴')가 나타남.
③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과 현장감을 부여함.

01

정답 ①

정답 풀이

이 시에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② 버스를 탔던 사람들을 '처녀 총각 아이 어른 /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와 같이 나열함으로써 시적 대상이 평범한 사람들임을 짐작하게 한다.

③ '엄동 혹한'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시내버스의 차창에 성에가 핀 시적 상황과 서민들의 힘겨운 삶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차가운 아름다움'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서민들의 삶에 아름다움을 느끼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난다.

⑤ 시각, 촉각 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힘겨운 삶과 그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라는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난다.

02

정답 풀이

화자는 시내버스 유리창에 핀 성에를 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피워 낸 아름다움이 바로 '성에꽃'이라고 생각한다. 화자는 성에를 통해 서민들의 고단하고 막막한 삶을 떠올리고, 그들의 고단한 삶을 차가운 성에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 자화상_ 윤동주

시에서 이미지(심상)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자아 성찰의 매개체 / 가만히: 참된 자아를 발견하려 스스로를 살펴보는 행위)
▶ 1연: 우물을 찾아가 자아를 성찰함.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시적 허용 /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 – '사나이'의 초라한 모습과 대비됨. / 촉각의 시각화(공감각적 이미지))
▶ 2연: 우물 속의 평화로운 풍경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우물에 비친 화자 자신 /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 / :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미움 → 연민 → 미움 → 그리움))
▶ 3연: 초라한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연민)
▶ 4연: 자아에 대한 연민

( ): 애증의 반복, 내적 갈등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2연의 반복 →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감을 부여함.)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 발견 → 현실의 자아와의 화해)
▶ 6연: 우물 속 평화로운 정경과 자아 성찰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 **시적 상황**: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봄.
- **정서·태도**: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연민–미움–그리움'의 과정을 거치며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사색적, 성찰적, 고백적
- **제재**: 우물 속에 비친 화자 자신의 모습
- **주제**: 자아 성찰과 자신에 대한 애증의 정서
- **특징**: ① 시상 전개에 따라 화자의 감정 변화가 잘 드러남.
②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동을 통해 시적 화자의 내적 갈등을 형상화함.
③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03

정답 ⑤

정답 풀이

㉠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은 우물 속에 비친 초라한 '사나이'의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한다. 이와 달리 ㉡에서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에게서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내적 갈등과 자신에 대한 애증에서 벗어나고 있으므로, ⑤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① ㉠과 ㉡ 모두 내적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② ㉡은 화자가 성찰을 통해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내적 갈등에서 벗어났음을 보여 준다.

③ ㉠과 ㉡에서 모두 화자가 자신의 의무를 외면했던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④ ㉡ 역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내면세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04

정답 ③

정답 풀이

'사나이'는 우물 속에 비친 화자의 모습으로, 화자의 자아를 의미한다. 화자는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려는 자신의 태도에 부끄러움과 미움을 느낀다. 그러다 나약한 자신의 모습에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다시 미워했다가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그리워하고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봄날_ 김기택

시에서 이미지(심상)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자.

할머니들이 아파트 앞에 모여 햇볕을 쪼이고 있다.
(시적 대상 / 공간적 배경 / 시적 상황)
굵은 주름 잔주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할머니들이 살아온 세월이 담김.)
꼼꼼하게 햇볕을 채워 넣고 있다.
(능동적으로 봄볕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시적으로 형상화함.)

겨우내 얼었던 뼈와 관절들 다 녹도록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
(음성 상징어)

(마른버짐 사이로 아지랑이 피어오를 것 같고 ~~~: ① 상승 이미지 ② 문장 구조 반복
( ): 할머니들의 변화에 대한 기대
잘만 하면 한순간 뽀얀 젖살도 오를 것 같다.) → 생기를 되찾은 할머니들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냄.

할머니들은 마음을 저수지마냥 넓게 벌려
(할머니들의 능동적인 마음을 구체화함.(직유법))

한철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는다. : 현재형 어미 – 봄볕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냄.
(직유법)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이 흘러넘쳐
( ): 시각적 이미지 – 할머니들의 변화된 모습을 부각함.
할머니들 모두 눈부시다.)

아침부터 끈질기게 추근거리던 봄볕에 못 이겨

나무마다 푸른 망울들이 터지고
(색채어를 사용하여 봄의 생명력을 부각함.(시각적 이미지))

할머니들은 사방으로 바삐 눈을 흘긴다.

할머니 주름살들이 일제히 웃는다.

(오오, 얼마 만에 환해져 보는가. ( ): 화자가 상상하는 할머니들의 독백
(영탄적 어조, 설의법)

일생에 이렇게 환한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설의법)

눈앞에는 햇빛이 종일 반짝거리며 떠다니고
(평화로운 봄의 정경)

환한 빛에 한나절 한눈을 팔다가

깜빡 졸았던가? 한평생이 그새 또 지나갔던가?)

할머니들은 가끔 눈을 비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 **시적 상황**: 화자가 봄날 햇볕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을 관찰함.
- **정서·태도**: 할머니들을 애정 어린 태도로 관찰하며 그들의 변화와 생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함.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긍정적, 감각적, 예찬적
- **제재**: 봄날 햇볕을 쪼이는 할머니들
- **주제**: 봄볕 속에서 생기를 되찾아 가는 할머니들의 모습과 이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
- **특징**: ① 감각적 이미지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할머니들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드러냄.
  ②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봄볕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나타냄.

05

정답 풀이

'온몸을 노곤노곤하게 지지고 있다.'라는 시구에서 음성 상징어 '노곤노곤'을 사용하여 햇볕을 쪼이며 몸이 천천히 풀리고 따뜻하게 녹아드는 듯한 편안하고 나른한 상태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봄볕을 쪼이고 있는 할머니들의 평화롭고 따스한 분위기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C]에서 '폭우처럼 쏟아지는 빛을 양껏 받'다가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은 할머니들 밖으로 흘러넘쳐 할머니들을 눈부시게 보이도록 한다. 그러나 [C]에 '미처 몸에 스며들지 못한 빛'까지 담으려는 할머니들의 의지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③과 같은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로 할머니들의 능동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② [B]에서는 상승 이미지를 통해 햇볕을 받고 생기를 되찾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④ [D]에서는 색채 이미지와 동적 이미지를 활용해 봄의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는 동적 이미지로 봄의 평화로운 정경을 제시하고 있다.

05 시의 표현 기법 ❶

확인 문제

p.51~53

바로바로 간단 체크 첫사랑_ 고재종 ❶ X ❷ ○ ❸ 눈꽃 대장간의 유혹_ 김광규 ❶ ○ ❷ X ❸ 털보네 대장간 ❹ 비판 음지의 꽃_ 나희덕 ❶ ○ ❷ X ❸ 버섯 ❹ 영탄적

01 ⑤ **02** ② **03** ⑤ **04** '플라스틱 물건'과 '똥덩이'는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를 의미하지만, '무쇠 낫'과 '꼬부랑 호미'는 가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05** ③ **06** ③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첫사랑_ 고재종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꽃)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의인법, 설의법)
▶ 1연: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도전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의성어 활용)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의태어 활용)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 2연: 눈꽃을 피우기 위한 눈의 시련
(눈꽃을 피우기 위해 겪어야 하는 시련의 과정)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언제든 쉽게 끝날 수 있는 위태로운 사랑)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원관념: 마음(직유법)) (헌신적 자세)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 3연: 마침내 피워 낸 눈꽃에 대한 예찬
(원관념: 눈꽃(은유법)) (예찬적 어조)

(이별의 시간(눈꽃이 사라짐))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눈꽃이 피었던 자리, 첫사랑의 아픈 경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① 역설법: 첫사랑의 아픔, 즉 이별을 겪은 후 도달한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
② 은유법: '상처'의 원관념은 봄에 피어난 꽃
▶ 4연: 눈 녹은 자리에서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 **시적 상황**: 한겨울 나뭇가지에 눈꽃이 피고, 봄이 되어 그 나뭇가지에 다시 꽃이 피는 풍경을 관찰함.
- **정서·태도**: 눈꽃이 핀 나무를 바라보면서 대상을 예찬함.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서정적, 회화적, 역설적

- **제재**: 한겨울 나뭇가지에 핀 눈꽃
- **주제**: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아름다운 사랑
- **특징**: ① 자연물에서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고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함.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01

정답 ⑤

정답 풀이

봄이 오면 눈꽃은 흔적조차 발견할 수 없지만, 나뭇가지는 그 마음을 기억하고 눈꽃을 맺었던 '덴 자리'에 꽃을 피워 낸다. 이는 눈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나뭇가지가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첫사랑의 상처가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이라고 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눈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존재로 의인화한 표현이 나타난다.
② '황홀'을 '피워' 내기 위해 '다 퍼부어 준' 눈의 순수한 사랑을 '햇솜'에 비유하고 있다.
③ 눈이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서 '피워 낸' 결과물을 '황홀'이라고 표현하며 예찬하고 있다.
④ '봄'은 겨울이 끝이 났음을 의미하므로 '가지'와 '눈'이 이별하는 계절이라고 볼 수 있다.

02

정답 ②

정답 풀이

㉠은 눈과 나뭇가지의 첫사랑이 만들어 낸 결실, 즉 '눈꽃'이 핀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은 '눈꽃'이 진 후, 봄이 되어 그 자리에 핀 꽃을 표현한 것으로, 첫사랑의 아픔을 겪은 후에 이룬 성숙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역설적으로 나타낸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대장간의 유혹_ 김광규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 ): 편의적이고 일회적인 가치에 매몰된 삶을 압축적으로 제시함.
한꺼번에 싸게 사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 동일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 1~6행: 가치 없는 자신의 삶에 대한 비판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중의적 의미: ① 현대식 아파트 ② 현대 건설에서 만든 현대 아파트
흥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일상적인 삶의 공간, 구체적인 지명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에 사실성을 부여함.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물을 단련하여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 생산적 공간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 7~9행: 털보네 대장간에 가고 싶음.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숫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 낫으로 바꾸고 싶다 ◯: 가치 있는 존재 ↔ 플라스틱 물건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 가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한 과정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 10~18행: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소망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소중한 공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가치 없고 개성 없는 삶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하강 이미지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하찮고 의미 없는 존재(=플라스틱 물건)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19~25행: 무가치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
대장간 벽,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공간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편의적이고 일회적인 가치에 매몰된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며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함.
- **정서·태도**: 의미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비판하며 무가치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드러냄.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성찰적, 비판적, 의지적
- **제재**: 털보네 대장간
- **주제**: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 인간의 열정이 살아 있는 진정한 삶의 회복 염원
- **특징**: ①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의미를 표현함.
  ② 대비되는 공간과 대상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형상화함.
  ③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주제를 강조함.

03

정답 ⑤

정답 풀이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에서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이는 화자가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표현일 뿐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고 싶다'를 반복하여 진정성 있는 삶을 되찾고 싶은 화자의 열망을 강조하고 있다.
② 긍정적 대상인 '무쇠낫, 호미'와 부정적 대상인 '플라스틱 물건, 똥덩이'를 대비하여 무가치한 삶에서 벗어나 인간의 열정이 살아 있는 진정한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③ 화자는 의미 없고 가치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을 '플라스틱 물건'과 '똥덩이'에 직접 빗대어 제시하고 있다.
④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공간인 '현대 아파트'와 개성적이고 가치 있는 전통적 공간인 '털보네 대장간'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04

정답 풀이

'플라스틱 물건'은 일회적이고 가치 없는 존재, '똥덩이'는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를 의미한다. 반면에 '무쇠 낫'과 '꼬부랑 호미'는 인간의 열정이 녹아 있고, 인고와 시련을 거쳐 만들어진 가치 있는 존재를 의미한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 음지의 꽃_ 나희덕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시적 화자, 참나무 떼(의인법)
우리는 썩어 가는 참나무 떼,
생명력을 잃은 모습
벌목의 슬픔으로 서 있는 이 땅
인간에 의한 생명 파괴 행위 / 명사형 종결 → 여운
패역의 골짜기에서
생명을 상실한 장소 / : 현재형 어미 → 생동감 부여
서로에게 기댄 채 겨울을 난다 ▶ 1~4행: 벌목되어 썩어 가는 참나무 떼
생명 파괴의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
함께 썩어 갈수록

바람은 더 높은 곳에서 우리를 흔들고
시련, 고통
이윽고 잠자던 홀씨들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잉태한 존재
우리 몸에 뚫렸던 상처마다 버섯이 피어난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 유한성을 극복한 영원성의 표상
황홀한 음지의 꽃이여
고통 속에서 피어난 '버섯'(은유법, 영탄법, 역설법, 돈호법)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원관념: 버섯(직유법) ┐ 대조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 ┘
음성 상징어 – 버섯이 피어나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함.
그 고통을 순간에 멈추게 하는구나
▶ 5~12행: 참나무의 구멍에서 피어나는 버섯

오, 버섯이여
영탄법, 돈호법 / □: '참나무'를 덮을 수 없는 존재 ↔ 버섯
산비탈에 구르는 낙엽으로도 ┐ 대구법
골짜기를 떠도는 바람으로도 ┘

덮을 길 없는 우리의 몸을
위로할 방법이 없는
뿌리 없는 너의 독기로 채우는구나) ( ): 영탄적 어조로 버섯의 강인한 생명력을 예찬함.
강인한 생명력
▶ 13~17행: 참나무를 뒤덮으며 자라나는 버섯의 생명력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우리'(참나무 떼)
- **시적 상황**: 벌목된 '우리(참나무 떼)'의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남.
- **정서·태도**: 참나무 떼가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으려 하고,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버섯을 긍정적으로 바라봄.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우의적, 성찰적, 역설적
- **제재**: 벌목된 참나무 떼의 상처에서 피어난 버섯
- **주제**: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잃지 않는 희망과 생명력
- **특징**: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썩은 참나무와 버섯이라는 자연물의 속성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비유, 대조, 역설 등 다양한 표현 기법과 영탄적 어조를 사용함.

05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시에는 하나의 표현에 두 가지 이상의 원관념을 담는 중의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2행에서 '이 땅'이라고 명사로 종결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② 감탄사와 감탄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버섯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④ 참나무 떼를 의인화하여 생명력을 잃어 가면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는 참나무 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우리는 서서히 썩어 가지만 / 너는 소나기처럼 후드득 피어나'에서 생명력을 잃어 가는 참나무 떼와 그 상처에서 피어나는 버섯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죽음과 생명이 교차하는 순간을 드러내고 있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홀씨'는 참나무 몸에 뚫렸던 상처에서 피어나는 버섯의 홀씨이다. 그러므로 〈보기〉의 내용에 의하면 썩어 가는 참나무의 몸에서 피어나는 버섯은 생명체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체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패역의 골짜기'는 벌목된 참나무들이 슬픔으로 서 있는 공간으로, '벌목'으로 표현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장소로 볼 수 있다.
② 이 시는 '벌목'으로 썩어 가는 '참나무 떼'가 '겨울'을 나는 장면으로 시작하여, 참나무 상처에서 '버섯'이 피어나는 순간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겨울'은 생명 파괴의 현실과 아울러 그 현실을 이겨 내는 시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④ '음지'에서 황홀하게 피어나는 '꽃'이 '버섯'이다. 그러므로 '음지'에서는, 황폐화된 현실이 강인한 생명력이 피어나는 공간으로 바뀌는 변화를 찾을 수 있다.
⑤ '소나기'는 '서서히' 썩어가는 참나무들과 대비되어 '후드득' 피어나는 버섯을 빗댄 표현이므로, 황폐화된 현실에 생명력을 환기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06 시의 표현 기법 ❷

확인 문제 p.59~61

바로바로 간단 체크 — 먼 후일_ 김소월 ❶ ○ ❷ X ❸ 당신 ❹ 그리움
푸른 밤_ 나희덕 ❶ ○ ❷ X ❸ 너 ❹ 사랑, 치욕
숲으로 된 성벽_ 기형도 ❶ X ❷ ○ ❸ 숲으로 된 성벽 ❹ 골동품 상인

01 ⑤ **02** 화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3** ⑤
04 ① **05** ① **06** ④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먼 후일_ 김소월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시적 대상 –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시상을 전개함.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시적 화자
▶ 1연: 먼 후일 당신이 나를 찾을 때 하고 싶은 말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 2연: 당신이 나무라면 하고 싶은 말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 3연: 당신이 계속 나무라면 하고 싶은 말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늘, 항상
먼 후일 그때에 '잊었노라.' ▶ 4연: 어제도 오늘도 당신을 잊지 못함.
• 반복법: '먼 후일(○), 당신이(～), 그때에(△), 잊었노라(□)'와 같은 시어, '~면 ~잊었노라'의 문장 구조를 반복·변주함.
• 점층법: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를 심화함.
• 반어법: '잊을 수 없다'는 현재의 마음을 반어적으로 표현함.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먼 후일 사랑하는 '당신'과 재회하는 상황을 가정함.
- **정서·태도**: '당신'을 잊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워함.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민요적, 애상적
- **제재**: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잊지 못하는 마음
- **주제**: 떠난 임을 잊을 수 없는 마음
- **특징**: ① 3음보의 민요적 율격(먼 후일∨당신이∨찾으시면)이 사용됨.
  ② 가정적 상황과 반어적 진술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주제를 강조함.
  ③ 반복과 변주의 기법으로 이별의 아픔과 그리움의 정서를 부각함.

01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시의 화자는 임과 이별한 후에도 결코 임을 잊은 적이 없음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잊었노라."라고 자신의 속마음과 반대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반어적인 표현이다.

오답 풀이

① '먼 후일∨당신이∨찾으시면 / 그때에∨내 말이∨'잊었노라.'와 같이 3음보 율격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② '잊었노라'라는 화자의 감정이 연이 거듭될수록 심화되므로 점층법을 통해 화자의 그리움을 점점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③ 이 시는 각 연의 마지막 행에서 '잊었노라.'라는 시어를 반복하여 떠난 임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이 시의 화자는 '-면'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당신'과 다시 만나는 상황을 가정하며 '당신'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다.

02

정답 풀이

이 시의 화자는 임이 떠난 후에도 임을 잊지 못하고 언제나 그리워하고 있지만 시에서는 '잊었노라.'라고 반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보기〉 시의 화자 역시 '그대'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지만 이를 '사소한 일'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푸른 밤_ 나희덕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시적 대상
그 무수한 길도
수많은 시도
실은 네게로 향한 것이었다) ▶ 1연: '너'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나'
( ):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길이 '너'에게로 향한 길이었음. – 모순된 상황(역설법)
시적 대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나'의 행동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너'가 부재한 상황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시적 화자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네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 2연: '너'가 없어도 '너'를 향하는 '나'의 마음
( ): ①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② 비유를 통해 '나'의 마음이 '너'를 향하고 있음을 드러냄.

대조
사랑에서 치욕으로,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격동하는 감정(내적 갈등)
하루에도 몇 번씩 네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 3연: '너'에 대한 사랑과 치욕의 감정이 교차하는 '나'

시상 전환
그러나 매양 퍼 올린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 사랑의 어려움을 '수만'이라는 수를 통해 강조함.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의인법)
그 수만의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 4연: '너'를 향한 수만의 길을 걷고 있는 '나'

나의 생애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대조: '너'를 향한 사랑이 쉽지 않음을 강조함.
네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이었다
'너'를 향한 사랑이 절대적임을 '하나'라는 수를 통해 강조함.
▶ 5연: '너'에게로 난 단 하나의 에움길을 걷고 있는 '나'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길이 '너'에게로 향한 길이었음을 깨달음.
- **정서·태도**: '너'에 대한 사랑과 치욕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너'를 향한 사랑이 운명적, 절대적이라 여김.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상징적, 고백적, 독백적
- **제재**: '너'에 대한 운명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 **주제**: 한 사람을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사랑
- **특징**: ① 고백적 어조와 상징적 의미의 시어를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역설적 표현을 통해 운명적 사랑을 강조함.
  ③ 유사한 종결 어미와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03

정답 ⑤

정답 풀이

'은하수의 한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에 의인법을 사용하였으나, 이는 화자와 시적 대상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 두 대상 사이의 친밀감을 부각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2연 2~5행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 흔들렸을 것이다.'에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②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길이 네게로 향한 길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여 '너'를 향한 사랑이 벗어날 수 없는 운명적인 것임을 강조하였다.

③ '사랑'과 '치욕'을 대조하여 '너'에 대한 사랑과 치욕의 감정이 교차하는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었다.

④ '내 응시에 날아간 별은 …… 흔들렸을 것이다'에서 화자의 마음을 자연물에 비유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04

정답 ①

정답 풀이

'지름길'과 '에움길'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은 '너'와 쉽게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의미하고, ㉡은 '너'를 향한 '나'의 절대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 숲으로 된 성벽_ 기형도

이 시에 주로 쓰인 표현 기법은 무엇이고, 그러한 표현 기법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생각하며 시를 읽어 보자.

시간적 배경, 휴식의 시간, 긍정의 시간
저녁 노을이 지면
신들의 상점엔 하나둘 불이 켜지고 → 하늘에 뜬 별들을 비유함.
농부들은 작은 당나귀들과 함께 :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 순수하고 인위적이지 않은 존재
성 안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신들이 사는 곳 – 순수하고 이상적인 세계
성벽은 울창한 숲으로 된 것이어서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갖춤.
누구나 사원을 통과하는 구름 혹은
조용한 공기들이 되지 않으면
한걸음도 들어갈 수 없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그 성 ▶ 1연: 순수한 존재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
①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는 곳, 이상 세계, 유토피아
②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여운을 형성함.

어느 골동품 상인이 그 숲을 찾아와
자연을 훼손하는 존재, 세속적 존재(↔ 농부들, 작은 당나귀들)
몇 개 큰 나무들을 잘라내고 들어갔다
성에 들어갈 욕심으로 숲을 훼손함. – 탐욕적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가 본 것은
말줄임표 사용 – 시적 긴장감 형성
쓰러진 나무들뿐, 잠시 후
그는 그 공터를 떠났다
상인이 인식한 성 – 인물에 따라 공간 자체의 모습이 달리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 줌.
▶ 2연: 골동품 상인은 성 안을 '공터'로 인식함.

(농부들은 아직도 그 평화로운 성에 살고 있다
순수한 세계, 이상 세계
물론 그 작은 당나귀들 역시)
( ): 문장을 마무리하지 않고 끝냄으로써 시적 여운을 줌. (도치법)
▶ 3연: 순수한 존재들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성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
- **시적 상황**: 화자가 숲으로 된 성벽을 관찰함.
- **정서·태도**: 순수함을 상징하는 '숲으로 된 성벽'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인 '골동품 상인'을 비판적으로 인식함.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동화적, 우화적, 교훈적
- **제재**: 숲으로 된 성벽
- **주제**: 물질 만능주의와 자연 파괴를 비판하며, 인간 본연의 순수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냄.
- **특징**: ① 동화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성의 모습을 형상화함.
  ② 말줄임표를 사용해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명사로 시행을 종결해 여운을 남김.
  ③ 시적 대상의 대비되는 상황을 제시하여 비판적 태도를 드러냄.

05

정답 ①

정답 풀이

1연의 마지막 행을 '신비로운 그 성'이라고 명사로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중심 대상을 반복적으로 호명하는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⑤ 2연에 말줄임표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시적 대상 사이의 대립 상황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06

정답 ④

정답 풀이

'그'는 숲에 들어가려는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을 방해가 되는 대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잘라내는 행동을 한다.

오답 풀이

① '그'가 ㉠을 잘라내기 전에 고민하는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그'의 내적 갈등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그'가 본래 상생을 추구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 때문에 상생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
③ '그'가 ㉠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그'가 ㉠을 잘라내고 숲으로 들어갔을 때 본 것은 공터뿐이므로, ㉠이 '그'가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07 시상 전개 방식 ❶

확인 문제 p.65~67

바로바로 간단 체크 농무_ 신경림 ❶ ○ ❷ X ❸ 농민 ❹ 울분 ❺ 신명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_ 나희덕 ❶ ○ ❷ ○ ❸ 본질 ❹ 거부감 ❺ 교감 밥물 눈금_ 손택수 ❶ ○ ❷ X ❸ 밥물 ❹ 긍정적 인식

01 ⑤ **02** ㉠: 원통함, ㉡: 장거리, ㉢: 신명이 남., ㉣: 농무 **03** ③ **04** ② **05** ② **06** ②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농무_ 신경림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 현재형 진술 → 현장감, 생동감 부여
쓸쓸한 분위기 조성(하강의 이미지) → 서러움의 정서
오동나무에 전등이 매어 달린 가설무대
임시로 설치한 무대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화자와 화자 일행 — 소외당하는 농촌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함.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줏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농민들의 현실 인식
▶ 1~6행: 공연이 끝난 후 술을 마시며 원통해 함.

(꽹과리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무래기들뿐) ( ):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음.
처녀 애들은 기름집 담벽에 붙어 서서
철없이 킬킬대는구나 ▶ 7~10행: 장거리에서 농악을 울림.
보름달은 밝아 어떤 녀석은
서림이처럼 해해대지만 이까짓
산 구석에 처박혀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
비룻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발버둥 쳐 봐야 소용없다. → 자조적인 현실 인식(설의법)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 두고 농사일에 보람이 없음. ▶ 11~16행: 피폐한 농촌 현실에 분노하고 자포자기함.
쇠전을 거쳐 도수장 앞에 와 돌 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농민의 울분이 역설적으로 드러남.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 17~20행: 농무를 통해 분노와 한을 표출함.
( ): 농무를 통해 ① 현실에 대한 불만과 한을 표출함.
② 울분과 서글픔을 풀어내어 스스로를 위로함.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우리'(농무를 추는 농민)
- **시적 상황**: 농무를 추며 농촌의 부정적 현실에 대해 울분을 드러냄.
- **정서·태도**: '우리'는 소외감과 울분을 느끼다가, 도수장 앞에서 이를 신명으로 바꾸면서 현실에 대한 저항과 분노를 표출함.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농민시
- **성격**: 사실적, 묘사적, 비판적
- **제재**: 농무를 추는 농민들의 모습
- **주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민들의 현실과 그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됨.
  ②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직설적으로 드러내며 역설적 상황을 설정해 화자의 정서와 주제를 강조함.

01

정답 ⑤

정답 풀이

1행의 '막이 내렸다'에서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을 뿐, '하강 – 상승 – 하강'과 같은 이미지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19~20행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에서 농무의 역동적인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것이 '하강 – 상승 – 하강'의 이미지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징이 울린다', '신명이 난다' 등과 같이 현재형 진술을 사용하여 현장감과 생동감을 높이고 있다.

②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에서 고달픈 삶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가 직설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11~12행에서 '어떤 녀석'의 울부짖음을 조선 명종 때의 의적이자 소설 속 인물인 '꺽정이'에 빗대어 농촌 현실에 대한 농민들의 울분과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④ '발버둥 친들 무엇하랴'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자조와 비극적 현실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02

정답 ㉠: 원통함, ㉡: 장거리, ㉢: 신명이 남., ㉣: 농무

정답 풀이

이 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며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화자 일행은 구경꾼이 모두 돌아간 '텅 빈 운동장'에서 공연을 마친 후 허탈하고 허무한 심정을 안고 '소줏집'으로 이동한다. '소줏집'은 화자 일행이 '사는 것이 원통하다(㉠)'며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공간이다. '장거리(㉡)'로 나선 화자 일행은 '꺽정이처럼 울부짖'으며 울분과 분노를 느끼지만 그러한 정서는 '쇠전'을 거치며 체념으로 바뀌고, '도수장'에서는 '신명이 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렇듯 이 시에서는 농민들의 분노와 한을 신명 나는 농무(㉣) 동작으로 표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드러난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_ 나희덕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타자의 복잡한 모습, 이해할 수 없는 모습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화자와 관계할 대상(타인))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 '-ㅂ니다'의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함.
대상과의 거리감
흰꽃과 분홍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대상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을 가짐.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 반복법

흰꽃과 분홍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대상이 지닌 진정한 모습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대상의 본질을 깨닫게 된 계기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복숭아나무의 본질인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이루고 싶은 꿈이 너무도 많은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대상에 대한 이해의 심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대상의 진정한 모습 – 수천의 빛깔 대상에 대한 진정한 인식
▶ 1연: 대상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대상의 진정한 본질을 인식함.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대상과 화자 사이의 진정한 이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도치법 – 대상과 화자의 차이가 사라지는 교감의 상태 강조
• 저녁 – 편견과 대립이 사라지는 어울림의 시간 ▶ 2연: '나'와 대상 사이의 이해와 조화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선입견으로 인해 복숭아나무에 대한 거부감을 느꼈지만, 본질을 깨닫게 된 후 복숭아나무와 교감하기를 소망함.
- **정서·태도**: 복숭아나무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드러냄.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고백적, 성찰적, 비유적
- **제재**: 복숭아나무
- **주제**: 복숭아나무(타자)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교감
- **특징**: ①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냄,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냄,
  ③ 반복법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도치법을 사용하여 여운을 형성함.

03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숭아나무에 관한 화자의 인식과 정서가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시에는 사계절의 순환 구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화자는 '멀리서' 복숭아나무를 바라보다가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깨달은 뒤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복숭아나무와 교감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시에서 변화된 것은 '복숭아나무'가 아니라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다.

04

정답 ②

정답 풀이

㉠은 복숭아나무에 거부감을 느끼는 화자가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던 공간이고, ㉡은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깨달은 화자가 머물며 대상을 이해하는 공간이다.

오답 풀이

① ㉠이 화자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는 공간은 아니다.

③ ㉡에서 깨달음을 확인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화자에게 그리움을 환기하는 공간은 아니다.

⑤ ㉠은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고 ㉡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이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밥물 눈금_ 손택수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 ): 화자의 일상적인 경험

(밥물 눈금을 찾지 못해 질거나 된 밥을 먹는 날들이 있더니)

이제는 그도 좀 익숙해져서 손마디나 손등, : 행간 걸침

손가락 주름을 눈금으로 쓸 줄도 알게 되었다

화자의 밥물 눈금

촘촘한 손등 주름 따라 밥맛을 조금씩 달리해 본다

손등 중앙까지 올라온 수위를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다 보면

상승, 하강의 이미지

▶ 1~5행: 눈물 대신 손으로 밥물을 맞춤.(현재)

물꼬를 트기도 하고 막기도 하면서

논에 물을 보러 가던 할아버지 생각도 나고,

과거 회상의 대상 ①

저녁때가 되면 한 끼라도 아껴보자

친구 집에 마실을 가던 소년의 저녁도 떠오른다

과거 회상의 대상 ② – 유년 시절의 화자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이 되어라 밥국을 끓이던 문현동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은 모습 / 화자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공간

어린 시절의 기억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줌.

가난한 지붕들이 내 손가락 마디에는 있다

▶ 6~11행: 가난했던 과거를 회상함.(과거)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

┌ 가난한 처지(환유법)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

쌀이 떨어진 상황을 음성 상징어를 활용한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함.

얼굴보다 먼저 늙은 손이긴 해도

화자가 힘들게 살아온 것을 알 수 있음.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내 손은 가졌다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 자기 위안

▶ 12~15행: 눈금을 대신할 수 있는 손을 가진 것을 긍정함.(현재)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손가락 주름을 따라 밥물을 맞추는 일상적 행위에서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음.
- **정서·태도**: 가난했던 유년의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며, 얼굴보다 늙은 자신의 손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에 도달하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긍정적, 체험적, 회상적
- **제재**: 밥물 눈금
- **주제**: 가난했던 유년 시절에 대한 회상과 현재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
- **특징**: ① '현재 → 과거 → 현재'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② 음성 상징어와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함.
  ③ 과거의 힘겨웠던 삶과 대비하여 현재의 삶을 긍정함.

05

정답 ②

정답 풀이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귓속으로 / 봉지쌀 탈탈 터는 소리라도 들려올 듯'에서 청각적 심상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⑤ 이 시에는 설의법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현하는 부분이나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③ 담담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④ 화자가 '밥물'을 '중지의 마디를 따라 오르내리'게 하는 모습에서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엿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06

정답 ②

정답 풀이

'밥맛을 조금씩 달리'하는 것은 밥을 지을 때 밥물을 맞추는 일에 어려움을 겪던 화자가 점차 익숙하게 밥물을 맞추게 된 것으로, 이러한 경험 자체가 현재의 화자에게 정서적 충만감을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손가락 주름'으로 '밥물'을 맞추는 행위는 화자에게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과거 회상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문현동'은 '한 그릇으로 두 그릇 세 그릇'을 만드는 가난한 동네로, '한 끼'를 아끼기 위해 친구 집에 가던 '소년', 곧 '일찍 철이 들어서 슬픈' 화자 자신의 유년 시절 기억이 담긴 곳이다.

④ 화자가 현재 자신의 주름진 손에 여전히 '가난한 지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유년의 기억을 현재와 연결하며, 얼굴보다 '늙은' 자신의 '손'이 '전기밥솥에는 없는 눈금'을 지니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08 시상 전개 방식 ❷

확인 문제 p.73~75

바로바로 간단 체크 하나씩의 별_ 이용악 ❶ ○ ❷ ○ ❸ 별 ❹ 불안감 ❺ 희망/기대감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_ 백석 ❶ ○ ❷ X ❸ 객지 ❹ 갈매나무

01 ③ **02** '별'은 불안한 현실 속에서 저마다 품고 있는 희망을 상징한다. **03** ④ **04** ⑤ **05** ①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하나씩의 별_ 이용악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의문형 종결 어미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단절감, 어둡고 삭막한 분위기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현재 화자의 위치 – 유랑민들의 가난하고 힘겨운 생활상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삶의 희망, 소망, 고향, 그리움의 대상 등

▶ 1연: 고향으로 돌아오는 화물 열차 위의 유랑민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쟈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고난, 시련
남도 사람들과
열거, 통사 구조의 반복 – 일제 강점하에 타지에서 떠돌던 우리 민족의 모습을 구체화함.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변변치 않은 초라한 먹거리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화자 화자의 정서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 2연: 저마다 다른 곳에서 돌아오는 유랑민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를
( ): 고향을 떠나야 했던 과거의 모습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짝 골짝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유랑민들에게 느끼는 동질감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조국 광복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 3연: 힘들었으나 희망을 지닌 유랑민의 모습
조국 광복이라는 큰 기쁨이 있기에 헐벗은 처지라는 작은 슬픔으로는 울 수 없는 현실

총을 안고 뽈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수미상관 구조 – 1연의 마지막 내용을 반복하여 구조적 안정감을 형성함.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①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희망
②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함.

▶ 4연: 고국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기대감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우리'(화물 열차 위의 유랑민들)
- **시적 상황**: 고향으로 돌아가는 화물 열차 위의 유랑민들이 지붕 위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봄.
- **정서·태도**: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도 희망을 품음.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성찰적, 체험적
- **제재**: 유랑민과 별
- **주제**: 일제 강점기 유랑민의 고달픈 삶과 비애
- **특징**: ①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비참한 현실과 대비를 극대화함.
  ② 빛과 어둠의 감각적 대비가 드러남.
  ③ 열거와 통사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함.

01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시는 1연의 3~5행을 마지막 연의 3~5행에서 반복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④ 이 시에는 어조의 변화나 선정후경의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2연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유랑민들의 삶을 형상화하였으나, 이를 통해 점층적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늙은 병정'은 실제로 관찰하는 인물이 아니라 화자의 상상 속 인물이므로 시선의 이동이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02

정답 풀이

별은 어둠 속에서 빛나지만 먼 거리에 있어 닿을 수 없기 때문에 이상, 희망 등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에서 화자와 유랑민들이 열차 지붕 위에 누워 별을 바라보는 행위는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품고 있음을 보여 준다.

03~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_ 백석

시상 전개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의 소재나 시구 등이 어떤 기준에 따라 배열되었는지 살펴보자.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 ): 시적 화자의 상황 – 현실의 고난, 고독, 가족의 해체
시적 화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 세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객지에서의 방랑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 오는데,
외부의 시련 ① 외부의 시련 ②
나는 어느 목수네 집 헌 삿을 깐,
박시봉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이었다.
셋방을 살았다. 더부살이를 했다

▶ 1~8행: 타향에서의 외롭고 고단한 삶(기)

이리하여 나는 이 습내 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메마르지 않고 좀 눅눅한)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하며,
(내 몸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딜옹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 오면,
이것을 안고 손을 쬐며 재 우에 뜻 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며,
(무료함과 지루함을 달래 보려는 행위)
또 문 밖에 나가디두 않구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벼개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하는 것이었다.
(슬프고 어리석은 지난 삶에 대한 반성)

(내 가슴이 꽉 메어 올 적이며,
( ): 회한, 울분, 부끄러움으로 절망감이 극에 달함.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붉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삶에 대한 절망감)
▶ 9~19행: 지난 삶에 대한 성찰과 회한(승)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어,
(시상의 전환) (회한의 정서)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또 눈을 떠서 높은 천정을 쳐다보는 것인데,
(화자의 시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함.)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대한 인식)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 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초월적 존재, 운명) (운명론적 가치관)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나는 동안에,
(시간의 흐름)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내면적인 안정)
▶ 20~25행: 운명에 대한 깨달음이 가져다준 감정의 정화, 화자의 심리적 성숙(전)
외로운 생각이 드는 때쯤 해서는,
더러 나줏손에 쌀랑쌀랑 싸락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고통과 시련)
나는 이런 저녁에는 화로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 보며,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

(어니 먼 산 뒷옆에 바우 섶에 따로 외로이 서서,
(바위 옆)
어두워 오는데 하이야니 눈을 맞을, 그 마른 잎새에는,
( ): '갈매나무'의 모습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 외로움과 추위를 참고 견딤.
•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시상의 집약: 고난을 이겨 내는 의지적 삶)
▶ 26~32행: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결)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표면에 드러난 화자인 '나'
- **시적 상황**: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쓸쓸히 살아가는 화자가 춥고 누긋한 방에서 자신을 되돌아봄.
- **정서·태도**: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슬픔과 절망감을 느끼지만, 갈매나무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냄.

| 작품 개요 |
- **갈래**: 자유시, 서정시
- **성격**: 독백적, 반성적, 의지적
- **제재**: 고향을 떠나 객지를 떠도는 삶
- **주제**: 무기력한 삶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
- **특징**: ① 토속적 소재가 등장하며, 방언과 고유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② 편지의 형식을 빌려 자신의 근황을 드러냄.
  ③ 산문적 형태이나, 쉼표를 통해 내재율을 획득함.

03 정답 ④

정답 풀이

'눈'과 '추위' 등 겨울과 관련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타향에서 고독하게 지내는 화자의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⑤ 이 시에는 수미상관의 구성, 명사로 마무리되는 시행, 말을 건네는 방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아내도 없고, 또, /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에서 소재의 나열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역동적 분위기를 강화하고 있지는 않다.

04 정답 ⑤

정답 풀이

갈매나무는 화자가 이상적이고 고결한 삶의 태도를 상상하며 떠올린 상징물로, 화자는 지나온 삶을 반성하며 굳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을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즐기는 모습'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족과 떨어져 '쓸쓸한 거리'를 '헤매'인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가족과 멀리 떨어져 외롭게 방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같이 생각'한다는 표현에서 화자가 자기 한 몸도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다.

③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쌔김질'한다는 표현에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이켜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무기력했던 지난 삶에 회한과 부끄러움을 느끼던 화자는 '그러나' 이후 시선을 들어 운명을 이끌어 가는 초월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굳고 정결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은 ④와 같이 이해할 수 있다.

05 정답 ①

정답 풀이

'바람은 더욱 세게'에서 '바람'은 화자를 힘겹게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놓여 있는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오답 풀이

② '문밖에 나가지두 않구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은 객지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화자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리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서 무기력한 화자가 현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나를 이끌어 가는' 운명으로서 '더 크고, 높은 것'을 인식한 것은 화자가 절망적인 상황에서 현실 극복 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이다.

⑤ 화자가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생각하는 것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이를 견디며 버티는 갈매나무처럼 살고자 하는 현실 극복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능 다가가기 p.78~81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② 06 ① 07 ① 08 ③

01~04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 황동규, 〈살구꽃과 한때〉

주제 살구꽃이 핀 봄날의 정경과 삶의 유한성에 대한 수용

해제 이 시는 살구꽃이 핀 봄날의 아름다운 정경을 통해 자연과의 교감, 삶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살구꽃뿐만 아니라 벌, 나비, 소, 마을 사람이 생명의 기운 속에서 함께 살아 숨 쉬는 모습을 묘사한다. 그리고 짧은 순간 동안 피고 질 살구꽃을 통해 삶의 유한함을 인식하면서도, 그 찰나의 순간이 지니는 소중함을 담담히 수용한다. 또한 살구꽃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나무 둥치들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마을 안에 차 집어넣고

이 집, 한 집 건너 저 집, 또 저 집,
(시선의 이동)
구름처럼 피고 있는 살구꽃과 만난다.
('꽃'을 '구름'에 비유함. –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인식)
(빈집에는 작지만 분홍빛 더 실린 꽃구름,
( ):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화자의 관심이 드러남.)
때맞춰 깬 벌들이 이리저리 날고

날개맥(脈) 덜 여문 나비들이 저속으로 오간다.)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아
( ): '소'와 '마을 사람'에게 보내는 호의적 시선
소 앞세우고 오는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한다.)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으니
( ):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의 영향력
말을 걸지 않아도 말이 되는군.)

차에 올라 시동 걸고도 한참 동안 밖을 내다본다.

꽃들의 생애가 좀 짧으면 어때?
(자연의 섭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 – 일시성(설의법))
달포 뒤쯤 이곳을 다시 지날 때

이 꽃구름들 낡은 귀신들처럼 그냥 허옇게 매달려 있다면…… / 꽃도 황홀도 때맞춰 피고 지는 거다. →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식
(꽃이 시든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함.(직유법))

▶ 1연: 작은 생명들이 깨어나는 모습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인식

다리를 건너 가속 페달 밟으려다 말고

천천히 차를 몬다.
(시적 대상을 보는 화자의 태도)
몸 돌려 보지 않아도

차 거울들 속에 꽃구름 피고 있고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으나

하늘의 연분홍을 땅 위에 내려 받는 검은 둥치들이

군소리 없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
(살구나무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림.)
차를 멈추고 뒤돌아본다. / 아 하늘의 기둥들!
(원관념: 나무 둥치(은유법) –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냄.)

▶ 2연: 한때이지만 때맞춰 꽃을 피우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

짜임

1연	살구꽃이 핀 봄날의 정경과 자연의 섭리에 대한 화자의 인식
2연	생명을 바라보는 경탄의 시선

특징

①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냄.
②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여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 냄.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나 신석정, 〈역사〉

주제 연대와 화합으로 역사를 이끌어 가는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

해제 이 시는 소박하고 보잘것없는 자연물을 통해 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하잘것없는 한 송이 달래꽃을 피우기 위해 햇볕, 바람, 벌나비 등의 존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며 민중의 연대 의식을 느낀다. 그리고 바윗돌처럼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달래꽃을 통해 민중의 강인한 생명력과 저력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지막에서 화자는 민중이 연대와 화합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우뚝 설 수 있음을 언급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1
( ):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시적 대상 –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달래꽃이 필 수 있도록 돕는 자연의 섭리)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어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역사의 영속성)이다. ▶ 1연: 하잘것없지만 멸하지 않는 달래꽃

2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부정적 여건)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 애잔한 달래꽃의 긴긴 역사(영속성)라거나 그 막아 낼 수 없는(강인한 생명력) 위대한 힘(민중의 생명력과 저력)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 (예찬적))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의(囚衣)(죄수가 입는 옷 – 심리적 억압과 구속 상징)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벗고 싶은(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음.))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민중의 저력과 영속성)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부정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 당위성)이다.
( ): 화자의 소망 – 수의를 벗고 싶음.
▶ 2연: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피어나는 달래꽃

3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드래도(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 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 괴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예쁜 손과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긍정적 미래에 대한 전망)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 ): 민중이 서로 돕고 화합하는 모습, 연대감과 유대감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
① 반복 – 운율 형성, 의미 강조
② 소외된 존재를 사랑하고, 억압과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당위성
▶ 3연: 연대와 화합으로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가는 달래꽃

짜임

1연	달래꽃의 영속성
2연	달래꽃의 강인한 생명력
2연	달래꽃의 연대와 유대를 통한 깨달음

특징

① 자연물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②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나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함.

01 작품 간 공통점·차이점 파악

정답 ③ 정답률 76%

정답 풀이

③ 중심 소재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가)는 중심 소재인 '살구꽃'을 '꽃', '꽃구름' 등으로 반복하여 제시하고, (나)는 중심 소재인 '달래꽃'을 반복하여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 (가)와 (나)에는 모두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영탄적 어조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가)에는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는 영탄적 어조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가)에서 '꽃구름'과 꽃이 시든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낡은 귀신들'이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에서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와 '그 막아 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은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구로, 이를 통해 억압적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의인화된 대상과의 교감을 나타내고 있다.

➡ (가)와 (나)에는 모두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개념의 좌표

- 시어, 시구, 시행의 반복(→ 34쪽)
- 공감각적 이미지(→ 41쪽)
- 영탄적 어조(→ 24쪽)
- 비판(→26쪽)
- 의인법(→ 47쪽)

02 시적 상황 파악

정답 ⑤ 정답률 64%

정답 풀이

⑤ [E]: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에서 '차를 멈추고 뒤돌아'봄으로써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E]에서 화자는 살구꽃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나무둥치들을 떠올리고 살구나무에 대해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대상과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A]: '이 집', '저 집'과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 [A]에서 화자는 '이 집', '저 집', '빈집'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살구꽃의 형태와 색채를 인식하고 있다.

② [B]: '소'와 '마을 사람'에게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다.

➡ [B]에서 화자는 '소의 순한 얼굴이 너무 좋'다며 '마을 사람과 눈웃음으로 인사'하는 등 호의적 시선을 보내고, 그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유가 '하늘 구름이 온통 동네에 내려와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하늘 구름'의 영향을 의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C]: '다리를 건너'며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도 '차 거울들'에 비친 대상을 보고 있다.

➡ [C]에서 화자는 '꽃구름'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차 거울들'에 비친 '꽃구름'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④ [D]: '차 거울로는' 시야에 온전히 들어오지 않는 '검은 둥치들'이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 [D]에서 화자는 '차 거울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검은 둥치들이' '구름'을 '잔뜩 인 채 서 있겠지'라며 그 모습을 떠올린다.

개념의 좌표

-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64쪽)

03 시어와 시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⑤ 정답률 85%

정답 풀이

⑤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다른 존재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1에서 '저 하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본다는 것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 화자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달래꽃'이 피어나는 이치에 대해 생각하며 '달래꽃'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2에서 '얼어붙었던 대지'라는 부정적 여건을 극복하여 '뚫고 솟아오른'다는 것은 '달래꽃'의 강인한 모습을 드러낸다.

➡ '얼어붙었던 대지'는 '달래꽃'이 피는 것을 저해하는 부정적 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뚫고 솟아오른' 모습은 '달래꽃'의 강인함을 보여 준다.

③ 2에서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찬양'한다는 것은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를 드러낸다.

➡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은 '달래꽃'이 가진 위대한 역사와 힘'을 뜻한다. 이를 '찬양'하는 것은 달래꽃이 가진 '역사와 힘'의 '위대'함을 기리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④ 3에서 '예쁘디예쁜 손'을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다는 것은 함께하는 존재와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예쁘디예쁜 손'은 '달래꽃'에 속한 대상으로, 그것을 '항상 내가 꼬옥 쥘 수 있'다는 것은 '달래꽃'과의 결속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개념의 좌표

- 극복 의지(→ 25쪽)
- 예찬(→ 27쪽)

04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④ 정답률 78%

보기

(가)와 (나)는 시간적 속성에 주목하여 시적 대상을 의미화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구체적 이미지와 추상적 관념을 통합하는 방식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가)는 대상의 일시성에 주목하며 포착한 경험 세계를 비유와 묘사를 통해 그려 냄으로써 생명과 자연에 대한 내적 인식을, (나)는 대상의 영속성에 주목하며 인식한 관념적 세계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풀이

④ (가)에서 '살구꽃'이 '허옇게 매달'린 모습에 대한 지향은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로, (나)에서 '수의'를 '벗고 싶은' 소망은 '환히 트인 길'로 상징된 역사적 전망으로 이어지는군.

➡ (가)에서 '살구꽃'이 달포 뒤쯤에도 지지 않아 낡은 귀신들처럼 흉한 모습이 될 것을 가정하여 허옇게 매달려 있다고 표현하였으므로, '달포 뒤쯤' 회복될 생명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나)에서 화자가 '수의'를 벗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달래꽃'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소망의 표현으로, 이러한 소망이 성취되는 상황에 대한 역사적 전망을 '환히 트인 길'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꽃을 '구름'으로, 나무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한 것을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생명에 대한 내적 인식이 드러나는군.

➡ 화자는 '살구꽃'을 하늘의 '구름'으로, '검은 둥치'를 '하늘의 기둥'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때맞춰' 꽃을 피워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는 살구나무에 대한 화자의 내적 인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분홍빛 더 실린' 꽃의 모습과 '때맞춰 깬 벌'의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려 낸 것을 통해,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군.

➡ '분홍빛 더 실린' 꽃과 '때맞춰 깬 벌'은 각각 살구꽃과 작은 곤충으로, 화자는 이들을 포착하여 묘사하는 부분에서 작은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은 '크나큰' '마음'으로 표현되며,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군.

➡ 화자는 온 세상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힘을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고, '한 송이의 달래꽃'이 '피어나는 것'이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나)에서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은 영속성에 주목하여 '긴긴 역사'의 의미를 인식함을 보여 주는군.

➡ (가)에서 '꽃들의 생애가 좀 짧'아도 괜찮다는 것은 생명의 일시성에 주목하여 자연의 섭리를 깨달은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달래꽃'이 지닌 '긴긴 역사'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준다.

개념의 좌표

- 상징(→ 48쪽)
- 형상화(→ 40쪽)
-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40쪽)

05~08 2024학년도 수능 변형

가 김종길, 〈문〉

주제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희망찬 새 시대를 맞이하는 감격

해제 이 시는 어두운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희망과 감격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문'이 닫혀 있는 모습에서 암울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새벽이 와 '문'이 열리는 모습을 통해 암울했던 시절이 지나고 희망에 찬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감격을 표출하고 있다. 이 시가 해방 직후인 1947년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일제 강점의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해방을 맞이하는 감격을 표출한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흰 벽에는 ——
(문이 걸린 공간, 자연이 머물고 역사가 기록되는 공간 / 색채 이미지)
어련히 해 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
(당위성 /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함.)
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긴 역사의 조용한 흐름(활유법))
▶ 1연: 유구한 역사의 흐름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 ):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지닌 변화의 힘을 수용함.
(자연이 지닌 변화의 힘을 담담히 수용함.)
▶ 2연: 단청과 두리기둥에 나타난 세월의 연륜

: 색채 이미지 반복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 / 변함없이 있는 것(문) –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함.(의인법))
▶ 3연: 닫혀진 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문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인간의 역사 / ( ):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함.)
▶ 4연: 시간의 흐름 속에 어김없이 졌다가 피어나는 자연물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 / 자연의 순환 ① / 자연의 순환 ② /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함. –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문'의 속성)
▶ 5연: 닫혀 있던 문이 열리던 새벽의 서광

———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소망, 이상 / 밝은 미래)
▶ 6연: 소망하던 밝은 미래의 도래에 대한 기쁨

짜임

1연	남은 역사의 흔적과 유구한 역사의 흐름
2연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
3연	닫혀진 채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문
4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라는 생명의 기운
5연	새 시대를 맞아 열리는 문
6연	소망하던 밝은 미래의 도래에 대한 기쁨

특징
① 상징적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일제 강점기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는 마음을 담담하게 노래하고 있음.

나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주제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의미

해제 이 시는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는 과정과 그 의미를 통해 제약을 넘어서서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기 위한 용기와 협력의 가치를 탐구하고 있다. 화자는 '~은/이 아니었을 것이다', '~ 아니었으면', '~ 못했을 것이다'와 같은 부정 표현들을 활용하여 가지가 담을 넘는 데에 원동력이 되어 준 존재들을 부각하면서, 심지어 가지에게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비나 폭설, 그리고 담 자체마저도 가지가 신명 나게 담을 넘는 시도를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테면 수양의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고비, 위기, 장애물 / 어떤 존재가 제약을 넘어서 미지의 영역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함.)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수양 가지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는 의미(추측))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애면 뿌리와 (의인법)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믿어 주지 않았다면 (생각, 행동, 의지 따위가 완전히 하나가 됨.)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부정적 진술들을 활용하여 가지가 담을 넘는 데 원동력이 되어 준 존재들을 부각함.)
(수양 가지가 담을 넘게 한 내적 요인)

▶ 1연: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내적인 원동력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 센 비가 아니었으면
밤새 정분만 쌓던 도리 없는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 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명이 난다는 긍정적인 인식)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고

(가지가 겪는 시련이자 가지가 담을 넘게 한 외적 요인)

담 밖을 가둬 두는 (담을 넘기 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세상)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으면 (장애물이지만 도전 의식을 갖게 한 중요한 대상)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 넘어 ( ): 넘어야 할 담이 있었기 때문에 가지가 담을 넘겠다는 꿈을 꾸게 됨. – 역설적 상황)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수양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 2연: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게 하는 외부의 시련들

(그러니까 목련 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 ): 수양 가지처럼 담을 넘는 존재들 – 대상의 범위를 확장함.(열거법))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에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함께 도를 닦는 벗 / → 글자 형태의 유사성을 활용함. / 정공을 보장할 수 없는 도전)

▶ 3연: 가지에게 담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짜임

1연	뿌리, 꽃, 잎과 하나가 되어 담을 넘는 가지
2연	외부의 시련이 만들어 준 가지의 담 너머 가능성
3연	가지에게 도박이자 도반인 담

특징
① '수양 가지'를 의인화하여 담을 넘은 가지의 심정을 추측함.
② 동일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③ 이중 부정을 통해 의미를 강조함.
④ 가정 표현을 통해 화자가 주목하는 상황을 부각함.
⑤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대상의 움직임을 표현함.

05 작품 간 공통점·차이점 파악

정답 ② 정답률 60%

정답 풀이

② (가)는 동일한 색채어를, (나)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 (가)는 색채어 '푸른'을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나)는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을 것이다'와 '~이(가) 아니었으면'과 같이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낸다.

➡ (가)에서는 명시적 청자로 설정된 대상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사라져 가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 (가)는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에서 사라져 가는 대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화자가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에서는 사라져 가는 대상이나 이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을 확인할 수 없다.

④ (가)는 사물을 관조함으로써, (나)는 세태를 관망함으로써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가)는 '문'이 닫히고 열리는 모습을 관조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에서 세태를 관망하는 화자의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와 (나)는 모두, 대상과 소통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한다.

➡ (가)와 (나) 모두 대상과 소통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과정을 연쇄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개념의 좌표

- 시적 청자(→ 17쪽)
- 관조(→ 27쪽)
- 색채어(→ 41쪽)
- 대화체(→ 23쪽)
- 문장 구조의 반복(→ 34쪽)
- 연쇄법(→ 50쪽)

06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① 정답률 59%

보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정답 풀이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보기〉의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를 참고할 때,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관여해 봤음을 나타낼 뿐,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해 왔음을 드러내는군.

➡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 틈이 생기'는 것은 인간 역사의 쇠락을 의미한다. 그런데 화자는 이를 서럽지 않다고 말하였으므로, 이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자연의 영향을 받아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가는 상황에서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주춧돌'은 인간의 역사를 의미하는 소재로, 그 자리에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는 것과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은 자연의 순환을 의미한다. 이때 '닫혀진 문'이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개념의 좌표

• 상징(→48쪽)

07 시어와 시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① 정답률 79%

정답 풀이

① ㉠은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은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 '문'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자리를 지켜 내는 존재이고, '가지'는 담 밖으로 나가려는 존재, 즉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는 존재이다.

오답 풀이

② ㉠은 주변과 단절된 상황을 극복하려 하고, ㉡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

➡ '문'이 주변과 단절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또한 화자는 '가지'가 다른 존재의 도움을 받아 담을 넘는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가지가 외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내용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가고, ㉡은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며 미래를 대비한다.

➡ '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벽이 오는 순간 닫힌 문을 열었을 뿐이므로 주변 대상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로 나아간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가지'는 주변 대상에게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④ ㉠과 ㉡은 과거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 '문'이나 '가지' 모두 과거의 행위를 반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

⑤ ㉠과 ㉡은 외면의 변화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 한다.

➡ '문'이나 '가지' 모두 외면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내면의 불안을 감추려는 모습 또한 확인할 수 없다.

08 시어와 시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③ 정답률 52%

정답 풀이

③ [B]에서는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하여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 '가지의 마음을 머뭇 세우'는 대상은 '담'으로, 화자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신명 나는 일이라고 말하며 가지가 담의 정수리를 타 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는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과 '손을 터는' 행위가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것임을 드러낸다.

➡ '얼굴 한번 못 마주친' 것은 수양의 가지와 뿌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을, '손을 터는' 행위는 꽃과 잎이 가지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의미한 것이다. 이것의 원인을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B]에서는 '고집 센'과 '도리 없는'을 통해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 '고집 센'은 '비'의 성격을, '도리 없는'은 '폭설'의 성격을 나타내는 시어로, '고집 센'과 '도리 없는' 모두 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외적 대상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더불어 [B]에는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든 대상 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A]에서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에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B]에서 '담 밖'을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 '가지만의'와 '혼자서는'은 가지가 다른 존재의 도움 없이 홀로 담을 넘으려는 모습을 나타낸다. 또 '담 밖을 가둬 두는' 것은 가지가 담을 넘지 못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가지가 '획을 긋는' 것은 가지가 담을 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가지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담을 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므로 ④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A]에서 '않았다면'과 [B]에서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C]에서 '목련'과 '감나무' 사이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 '않았다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은 혼연일체의 모습을 보이는 대상들, 즉 뿌리, 꽃과 잎 등으로, 그리고 '아니었으면'이 강조하는 대상들은 비, 폭설, 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목련'과 '감나무'는 수양처럼 담을 넘어서려는 존재들을 나타내므로 이들의 관계를 앞에서 언급한 뿌리, 꽃과 잎의 의미나 비, 폭설, 담의 의미와 관련지어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Ⅱ 고전 시가

01 고전 시가의 갈래 ❶

확인 문제 p.91~95

바로바로 간단 체크 (가) 구지가_ 구간(九干) 등, (나) 공무도하가_ 백수 광부의 아내

(가) – ❶ X ❷ X ❸ 거북 ❹ 머리 (나) – ❶ X ❷ ○ ❸ 남편/임 ❹ 탄식

제망매가_ 월명사 ❶ ○ ❷ X ❸ 누이 ❹ 종교 서경별곡_ 작자 미상 ❶ X ❷ X ❸ 이별 ❹ 적극적 보리타작_ 정약용 ❶ X ❷ ○ ❸ 보리타작 ❹ 농민 안민가_ 충담사 ❶ X ❷ X ❸ 가족 ❹ 백성

01 ④ **02** ⑤ **03** ② **04** ㉠: 누이, ㉡: 화자 **05** ② **06** ③ **07** ③ **08** '벼슬길'은 세속적 욕망과 출세 지향적인 삶을 상징하고, '낙원'은 소박한 현실 속에서 참된 즐거움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 **09** ⑤ **10** ①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가) 구지가_ 구간(九干) 등
(나) 공무도하가_ 작자 미상

〈구지가〉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요이고, 〈공무도하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이다. 갈래적 특성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가) 거북아, 거북아, ▶ 1구: 거북을 부름.
(신령스러운 존재, 기원의 대상)
머리를 내밀어라. ▶ 2구: 머리를 내놓을 것을 명령함.
(① 생명의 기원 ② 우두머리(→ 수로왕))
만일 내밀지 않으면 ▶ 3구: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함.
구워 먹으리. ▶ 4구: 구워 먹겠다고 위협함.
(위협을 통한 소원 성취 희구)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왕의 출현을 기원하는 가락국의 군중들
- **시적 상황**: 거북에게 머리를 내밀 것을 명령하고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고 위협함.
- **정서·태도**: '머리'는 우두머리를 상징하며, 왕의 출현에 대한 가락국 군중들의 강한 소망을 드러냄.

| 작품 개요 |
- **갈래**: 고대 가요, 한역 시가
- **성격**: 주술적, 집단적
- **제재**: 거북
- **주제**: 수로왕(지도자)의 강림 기원
- **특징**: ①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집단 무요(巫謠)임.
  ② 주술성을 지닌 노동요임.
- **출전**: 《삼국유사》 권2

| 이 시의 짜임 |

1구	기원의 대상인 거북을 부름.
2구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을 것을 명령함.
3구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함.
4구	구워 먹겠다고 위협함.

| 배경 설화 |

후한 광무제 때, 마을 북쪽에 있는 구지봉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마을 사람들이 모였다. 소리만 들리기를, 옥황상제가 이곳에 나라를 세울 임금을 보내니, 사람들에게 구지봉의 흙을 파며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는 노래와 춤으로 그를 맞이하라고 하였다. 구간들이 이를 따르자 하늘에서 황금 알 여섯이 내려와 사람으로 변했고, 그중 첫 번째로 태어난 수로가 가야국을 세우고 나머지 다섯은 각각 다른 가야의 왕이 되었다.

(나)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 1구: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말림.(기)
(시적 대상) (상징적 의미 ① –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 2구: 화자의 만류에도 임이 물을 건넘.(승)
(상징적 의미 ② – 임과의 이별)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 3구: 임이 물에 빠져 죽음.(전)
(상징적 의미 ③ – 임의 죽음)
가신 임을 어찌할꼬 ▶ 4구: 임을 잃은 화자(아내)가 슬퍼함.(결)
(임과 사별한 화자의 슬픔과 탄식 (체념적 태도))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임(남편)을 잃은 아내(백수 광부의 아내)
- **시적 상황**: 임(남편)이 물에 빠져 죽음.
- **정서·태도**: 사랑하는 임(남편)을 잃고 슬퍼하며 탄식함.

| 작품 개요 |
- **갈래**: 고대 가요, 한역 시가
- **성격**: 개인적, 서정적, 체념적, 애상적
- **제재**: 물을 건너다 물에 빠져 돌아가신 임
- **주제**: 임을 여읜 슬픔(이별의 정한)
- **특징**: ① 고조선 시대의 노래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정시임.
  ② 집단 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작품임.
- **출전**: 《해동역사》

| 이 시의 짜임 |

기(1구)	물을 건너려는 임을 만류함.
승(2구)	화자의 만류에도 임은 물을 건넘.
전(3구)	임이 물에 빠져 죽음.
결(4구)	임을 잃은 화자가 슬퍼하고 체념함.

| 배경 설화 |

고조선의 뱃사공 곽리자고는 새벽에 배를 저어 가다 백수 광부가 술병을 들고 물에 들어가 죽고, 그의 아내가 공후를 타며 슬픈 노래를 부른 뒤 그를 따라 물에 뛰어드는 모습을 보았다. 곽리자고가 그 일을 아내 여옥에게 전하자 여옥은 깊이 슬퍼하며 공후로 그 곡을 재현하였고, 이를 들은 사람마다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였다.

01 정답 ④

정답 풀이

(가) 〈구지가〉는 집단적·주술적 성격의 가요로,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며 불렀다. 그러나 (나) 〈공무도하가〉는 임의 죽음을 슬퍼하는 개인적 서정시로, 주술성과는 무관하다.

오답 풀이

① 〈구지가〉는 집단적으로 불린 무요, 〈공무도하가〉는 개인 서정시이다.
② 〈공무도하가〉는 임을 잃은 화자의 개인적 비애를 표현하고 있다.
③ 두 작품 모두 설화와 함께 구전되고 있다.
⑤ 두 작품 모두 구전되다가 한역 시가로 기록되었다.

02

정답 ⑤

정답 풀이

〈공무도하가〉에는 화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임이 물을 건너다가 죽음에 이르는 절망적 상황이 드러난다. 그러나 〈구지가〉에는 거북에게 머리를 내놓을 것을 명령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의 바람에 어긋난 절망적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구지가〉는 거북을 향해 협박과 명령의 어조를 사용하여 서술하고 있으나, 〈공무도하가〉는 체념적인 호소와 탄식이 중심이다.

② 〈구지가〉는 '만일 내밀지 않으면'에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상황을 가정하여 '구워 먹'겠다고 위협하며 지도자의 강림을 기원하는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이와 달리 〈공무도하가〉에는 상황을 가정하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공무도하가〉에서 '물'은 1행에서는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을, 2행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3행에서는 임의 죽음을 상징한다.

④ 〈구지가〉에서는 '거북'이, 〈공무도하가〉에서는 '임'이 화자의 말을 듣는 대상이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제망매가_ 월명사

월명사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여 지은 10구체 향가로, 뛰어난 문학성과 고도의 서정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는다.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뛰어난 비유로 그려 낸 점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생사(生死) 길은 (삶과 죽음의 길)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이승(누이와 이별한 공간))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1~4구: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기)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음을 암시)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죽음의 대상)
한 가지에 나고 (같은 부모 → 화자와 대상이 혈육 관계임을 알 수 있음.)
가는 곳 모르온저. ▶ 5~8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서)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 ): 재회에 대한 믿음.
(낙구의 감탄사) (부처가 있는 서방 정토, 저승, 죽은 누이와 재회하게 될 공간)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9~10구: 슬픔의 종교적 승화(결)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나'
- **시적 상황**: 죽은 누이를 추모함.
- **정서·태도**: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함.

| 작품 개요 |

- **갈래**: 10구체 향가
- **성격**: 추모적, 애상적, 비유적, 종교적
- **제재**: 누이의 죽음
- **주제**: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 **특징**: 정제된 형식미와 고도의 서정성을 담은 작품으로 현전하는 향가의 백미로 꼽힘.
- **출전**: 《삼국유사》 권5

| 이 시의 짜임 |

기(1~4구)	누이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서(5~8구)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감
결(9~10구)	슬픔의 종교적 승화

| 배경 설화 |

월명이 죽은 누이를 위해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내자 종이돈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그는 사천왕사에 살며 피리를 잘 불었는데, 달밤에 피리를 불자 달이 멈추었다 하여 그곳을 월명리라 불렀다. 신라 사람들은 이처럼 향가를 통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켰다.

03

정답 ②

정답 풀이

이 향가는 누이의 죽음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서 '이른'이라는 표현을 통해 누이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예'는 '여기'라는 뜻으로 이승을 뜻하며, 화자와 누이가 이별한 공간이다.

③ '떨어질 잎'은 죽은 누이를 비유하는 말이다.

④ '한 가지'는 '같은 부모'를 비유하는 말로, 화자와 죽은 누이가 혈연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⑤ '미타찰'은 극락세계를 뜻하는 말로, 이 향가에서는 저승 즉 화자와 죽은 누이가 재회하게 될 공간을 의미한다.

04

정답 ㉠: 누이, ㉡: 화자

정답 풀이

배경 설화에 따르면 이 향가는 죽은 누이동생을 위해 지어 부른 노래이다. 따라서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간 대상은 누이이고, '도 닦'으며 '미타찰에서 만'나기를 기다리는 대상은 화자이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서경별곡_ 작자 미상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고려 가요이다. 여성 화자가 사랑을 쟁취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와 현실적 감정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다른 작품과 구별되는 독특한 면을 보인다. 내용과 형식에서 드러나는 고려 가요의 특징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서경(西京)이 (평양) 아즐가 (여음) 서경(西京)이 셔울히마르는 (서울이지마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후렴구 – 북소리의 의성어)
닷곤 (닦은 곳) 딕 아즐가 닷곤 딕 쇼셩경 (평양) 고외마른 (사랑하지만)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생업을 버리겠다는 화자의 적극적 태도)
여히므론 (임을) 아즐가 여히므논 질삼뵈 (길쌈하던 베) ᄇᆞ리시고 (버리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괴시란딕 (사랑해 주신다면) 아즐가 괴시란딕 우러곰 (울면서) 좃니노이다 (좇겠습니다.→ 이별을 거부함.)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 1연: 이별을 거부하는 연모의 정

현대어 풀이
서경(평양)이 서울이지마는 / 새로 닦은 곳인 소성경(평양)을 사랑하지만 / (임과) 이별할 것이라면 차라리 길쌈하던 베를 버리고서라도 / (임이) 사랑하신다면 (임을) 울면서 따르겠습니다.

구스리 아즐가 구스리 바회예 디신ᄃᆞᆯ
(바위에 / 떨어진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긴힛ᄯᅳᆫ 아즐가 긴힛ᄯᅳᆫ 그츠리잇가 나ᄂᆞᆫ
(끈이야 / 끊어지겠습니까? / 여음)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즈믄 ᄒᆡ를 아즐가 즈믄 ᄒᆡ를 외오곰 녀신ᄃᆞᆯ
(천 년 / 외로이 / 살아간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신(信)잇ᄃᆞᆫ 아즐가 신(信)잇ᄃᆞᆫ 그츠리잇가 나ᄂᆞᆫ
(믿음 / 설의법)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구법 대구법

▶ 2연: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믿음

현대어 풀이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 (임과 헤어져) 천 년을 홀로 살아간들 / (임에 대한)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임과의 이별을 거부하며 사랑을 맹세하는 여인
- **시적 상황**: 떠나려는 임에게 이별을 거부하며 사랑과 믿음을 맹세함.
- **정서·태도**: ① 임과의 이별을 거부함.
  ② 생업을 버리고서라도 임을 따르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임.

| 작품 개요 |
- **갈래**: 고려 가요
- **성격**: 서정적, 애상적
- **제재**: 임과의 이별
- **주제**: 이별의 정한(情恨)
- **특징**: ①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과의 사랑을 맹세하는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이별의 상황을 드러냄.
- **출전**: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 이 시의 짜임 |

1연	임과의 이별을 거부함. 〈수록 부분〉
2연	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맹세함. 〈수록 부분〉
3연	떠나는 임에 대한 불안감과 사공에 대한 원망을 드러냄.

05

정답 ②

정답 풀이
〈서경별곡〉은 애절한 사랑과 이별의 정한을 노래하고 있는 고려 가요로, 고려 시대 때 평민들이 지어 부른 노래이다. 따라서 조선 시대에 평민들이 노래로 부른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라는 후렴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북소리의 의성어로서 작품 전체에 경쾌한 리듬감을 더해 주고, 형식적으로 통일된 느낌을 준다.
④ 반복되는 구절, 후렴구, 조흥구를 제외하면 '서경(西京)이∨셔울히∨마르는', '닷곤 ᄃᆡ∨쇼셩경∨고외마른'과 같이 3음보의 율격이 나타난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A]에서 '바회(바위)'는 임과 화자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 시련, 고난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악률을 맞추기 위한 여음 '아즐가', 특별한 의미 없이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한 여음 '나ᄂᆞᆫ'을 통해 음률을 형성하고 있다.
② 작품의 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후렴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는 통일감과 운율감을 이루는 기능을 한다.
④ '긴힛ᄯᅳᆫ 그츠리잇가(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신(信)잇ᄃᆞᆫ 그츠리잇가(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에서 말하려는 내용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A] 부분의 1행과 3행, 2행과 4행이 각각 대구를 이루며 의미를 강조하고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07~08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보리타작_ 정약용

보리타작에 몰두하는 농촌 현장을 바라보며, 노동 속에서 삶의 보람과 즐거움을 찾는 농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한시이다. 이 시의 구성과 농민들을 보는 화자의 태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새로 거른 막걸리 젖빛처럼 뿌옇고 (직유법, 시각적 이미지)
큰 사발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과장법)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노동으로 단련된 건장한 농민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묘사함.)
▶ 1~4구: 농민들의 활기찬 생활상(기)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낟알 온 사방에 가득하네 (노동의 결과)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노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짐.)
보이느니 지붕까지 나는 보리 티끌 (온 집안에 보리 티끌이 날리는 모습)
▶ 5~8구: 노랫가락에 맞추어 보리타작을 하는 역동적인 정경(승)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노동의 즐거움)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육체와 정신의 조화 추구)
▶ 9~10구: 노동에서 즐거움을 얻는 농민들에 대한 이해(전)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진정한 삶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 (세속적 욕망)
▶ 11~12구: 농민들의 모습을 통한 자기 성찰(결)

: 농민의 생활, 농사와 관련된 소재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보리타작에 열중하는 농민들을 바라보는 양반
- **시적 상황**: 농민들이 노래를 부르며 활기차게 보리타작을 함.
- **정서·태도**: 농민들이 즐겁게 노동하는 모습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성찰함.

| 작품 개요 |
- **갈래**: 한시
- **성격**: 사실적, 묘사적, 성찰적
- **제재**: 보리타작하는 농민
- **주제**: 농민들의 건강한 노동을 통해 얻은 삶의 깨달음
- **특징**: ① 조선 후기 평민 의식을 반영하고, 농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시어를 사용함.
  ② 시각적이고 동적인 이미지로 현장감과 사실성을 부각함.
  ③ 정약용의 중농 사상과 현실주의 정신이 잘 나타남.
- **출전**: 《여유당전서》

| 이 시의 짜임 |

기(1~4구)	즐겁고 활기차게 노동하는 농민들의 삶의 모습	선경
승(5~8구)	노랫가락에 맞추어 보리타작하는 농민들의 역동적 정경	
전(9~10구)	노동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농민들에 대한 이해	후정
결(11~12구)	농민들의 모습을 통한 자기 성찰과 반성	

07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작품은 농민들의 활발한 노동과 공동체적 즐거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마지막에 벼슬길에 집착하던 삶을 반성하는 내용으로 전개된다.

오답 풀이

① 시의 앞부분에서는 농민들이 보리타작하는 장면을 먼저 제시하고, 뒷부분에서는 화자의 깨달음과 반성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막걸리', '큰 사발에 보리밥', '도리깨' 등은 농민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표현으로, 작품의 사실감을 높여 준다.

④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는 시각적 이미지, '웅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는 청각적 이미지로 생동감을 부여한다.

⑤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에서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하여 농민들의 활달한 생활상을 강조하고 있다.

08

정답 풀이

이 시에서 '벼슬길'은 관직과 출세를 좇는 세속적 욕망을 상징한다. 반면 '낙원'은 농민들의 소박한 현실 속에서 누리는 참된 즐거움과 자유를 의미한다. 결구에서 화자는 '낙원이 먼 곳에 있는 게 아닌데 / 무엇하러 고향 떠나 벼슬길에 헤매리오'라고 하며 가치 전환을 드러낸다.

09~10 개념으로 작품 읽기 — 안민가_ 충담사

향가 중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작품으로, 국가적 관계를 가족 관계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은유적 관계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 아이라고 한다면 (→ 가정)
(어린, 어리석은)
백성이 사랑을 알 것입니다.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가족 관계에 빗대어 표현함.(은유법))

▶ 1~4구: 가족 관계에 빗댄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기)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
이들을 먹여 다스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한다면 (→ 가정)
(백성의 말 →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함.)
나라가 다스려짐을 알 것입니다.

▶ 5~8구: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서)

아으,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 가정)
(감탄사)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각자 본분에 충실함.)
나라가 태평할 것입니다.
(국가 통치의 지향점)

▶ 9~10구: 나라가 태평하기 위한 방법(결)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법을 노래하는 사람
- **시적 상황**: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가족에 비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음.
- **정서·태도**: 가족적인 사랑과 유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 통치를 강조하며, 비유를 통해 설득력을 확보하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10구체 향가
- **성격**: 유교적, 교훈적
- **제재**: 임금과 신하와 백성의 본분
- **주제**: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책, 치국안민(治國安民), 국태민안(國泰民安)
- **특징**: 향가 중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작품임.
- **출전**: 《삼국유사》 권2

| 이 시의 짜임 |

기(1~4구)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가족 관계에 빗댐.
서(5~8구)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결(9~10구)	임금, 신하, 백성이 본분을 다하면 나라가 태평할 것임.

| 배경 설화 |

경덕왕 24년(765), 왕이 귀정문 누각에서 훌륭한 차림의 중을 데려오라 하자, 좌우에 있던 사람이 깨끗이 차린 중을 데려왔다. 왕이 이 중을 돌려보내고 초라한 차림의 충담을 불러들였다. 왕이 그에게 백성을 편안히 다스리는 '안민가'를 지으라 하자, 충담이 즉석에서 노래를 바쳤고, 왕이 이를 칭찬하며 왕사(王師)에 봉했으나 충담은 굳이 사양하였다.

09

정답 ⑤

정답 풀이

〈안민가〉는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임금, 신하, 백성이 각자의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7구에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는 백성이 하는 말을 가정한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만족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백성'이 고통스러운 현실에 순응하고 체념적 태도를 보이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5~8구에서는 나라의 유지를 위한 통치 방법으로 '치국안민(治國安民)' 즉,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편안히 살게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④ 임금과 신하가 백성을 그리워하거나 지난날의 행적을 반성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10

정답 ①

정답 풀이

9구에서 감탄사 '아으' 이후에 시에 나타난 생각이나 정서가 바뀐 것은 아니므로, 감탄사 '아으'가 시상을 전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⑤ 〈안민가〉는 가장 정제된 형식인 10구체 향가로, '4구+4구+2구'로 된 3단 구성이고, 낙구인 '9~10구'에서 '임금과 신하와 백성이 각자 본분에 충실한다면 나라가 태평할 것'이라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02 고전 시가의 갈래 ❷

확인 문제 p.102~105

바로바로 간단 체크 (가) 이화에 월백하고_ 이조년, (나) 고인도 날 못 보고_ 이황

(가) – ❶ X ❷ ○ ❸ 배꽃 ❹ 잠 (나) – ❶ ○ ❷ X ❸ 나 ❹ 고인/성현

(가)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_ 작자 미상, (나)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_ 작자 미상 (가) – ❶ ○ ❷ X ❸ 임 ❹ 도사공 (나) – ❶ ○ ❷ X ❸ 창 ❹ 답답함

(가) 강호사시가_ 맹사성, (나) 상춘곡_ 정극인 (가) – ❶ ○ ❷ X ❸ 임금 ❹ 자연 (나) – ❶ ○ ❷ X ❸ 산수 ❹ 자연

01 ④ **02** ㉠: 봄, ㉡: 밤, ㉢: 봄밤(봄날 밤), ㉣: 학문 수양 **03** ⑤ **04** 열거법 **05** ① **06** ③ **07** ⑤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가) 이화에 월백하고_ 이조년
(나) 고인도 날 못 보고_ 이황

〈이화에 월백하고〉는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적 정서를 노래한 평시조, 〈고인도 날 못 보고〉는 고인의 삶을 본받아 학문 수양의 의지를 노래한 연시조이다. 갈래적 특성과 내용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가)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
(계절적 배경: 봄 / 은하수 / 시간적 배경 (밤 11시~새벽 1시 사이))
인 제 : 흰색(시각적 이미지)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야 알냐마는
(나뭇가지를 의인화함. / 소쩍새를 의인화함(청각적 이미지 연상))
다정(多情)도 병(病)인 양ᄒᆞ여 ᄌᆞᆷ 못 드러 ᄒᆞ노라
(정이 많은 것도 / 초장, 중장: 봄밤의 아름다운 정경(선경) / 종장: 정한의 정서 표출(후정))

현대어 풀이
배꽃에 달이 비치고 은하수가 자정을 알리는 때에
한 나뭇가지에 어려 있는 봄날 밤의 애상적 정서를 소쩍새가 알겠느냐마는
정이 많은 것도 병인 듯하여 잠들지 못하노라.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깊은 밤, 소쩍새 소리에 잠 못 드는 사람
- **시적 상황**: 배꽃에 달빛이 환히 비치고 밤이 깊어 고요함.
- **정서·태도**: 봄밤의 애상과 우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함.

| 작품 개요 |
- **갈래**: 평시조
- **성격**: 서정적, 애상적, 감각적
- **제재**: 배꽃, 달, 은하수, 자규(소쩍새)
- **주제**: 봄밤 자연 속에서 드러나는 애상적 정서
- **특징**: ① 고려 시조 가운데 표현 기법이나 문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음.
  ②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의 조화를 통해 시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함.
- **출전**: 《청구영언》, 《병와가곡집》

| 이 시의 짜임 |

초장·중장	봄밤의 아름다운 정경	선경
종장	봄밤에 대한 화자의 애상적 정서	후정

(나)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 연쇄법
(성현들과 '나'는 서로를 직접 보거나 만날 수 없음(대구법))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픠 잇닉
(옛 성현들이 걸었던 학문 수양의 길(비유법))
녀든 길 알픠 잇거든 아니 녀고 엇졀고
(고인의 삶을 본받겠다는 의지(설의법))

현대어 풀이
옛 어른도 나를 보지 못하고 나도 옛 어른을 보지 못해
옛 어른을 보지 못해도 (그분들이) 가던 길이 (우리) 앞에 있네.
(그분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찌하겠는가.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고인(성현)이 가던 길을 자신도 가겠다는 결심을 드러내는 '나'
- **시적 상황**: 고인(성현)과 '나'는 서로를 직접 보거나 만날 수 없지만 고인이 가던 길(학문을 실천하던 길)이 앞에 있음.
- **정서·태도**: 고인의 삶을 본받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남.

| 작품 개요 |
- **갈래**: 연시조(전 12수)
- **성격**: 의지적, 교훈적, 도학적
- **제재**: 고인이 가던 길[道]
- **주제**: 고인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의지(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
- **특징**: ① 고인이 깨닫고자 했던 도(道)를 고인이 걷던 길에 비유하여 표현함.
  ② 어려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반복법, 설의법, 대구법 등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함.
- **출전**: 《청구영언》

| 이 시의 짜임 |

초장	고인과 나 사이의 거리
중장	고인과 나 사이를 이어 주는 길
종장	고인의 삶을 본받겠다는 화자의 의지

01

정답 ④

정답 풀이
시조는 정형화된 양식으로 창작되었으며, 평시조가 두 개 이상 모여 연시조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오답 풀이
① 시조는 일반적으로 3·4조, 4·4조의 음수율이 나타나며, 후렴구는 덧붙지 않는다.
②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쓰는 향찰로 기록되고, 배경 설화와 함께 전해지는 것은 향가의 특징이다.
③ 한문을 배운 지배층을 중심으로 하여 창작된 것은 한시, '기승전결'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는 것은 한시 중 4개의 구로 구성된 '절구'의 특징이다.
⑤ 시조는 고려 후기 사대부의 이념을 담은 문학 양식으로 발생하였다.

02

정답 ㉠: 봄, ㉡: 밤, ㉢: 봄밤(봄날 밤), ㉣: 학문 수양

정답 풀이
(가)는 봄날 밤에 느끼는 애상감을, (나)는 학문 수양에의 정진을 표현한 작품이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가)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_ 작자 미상
(나)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_ 작자 미상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은 임을 여읜 슬픔을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 노래한 사설시조이고, 〈창 내고쟈 창을 내고쟈〉는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해학적으로 풀어낸 사설시조이다. 갈래적 특성과 내용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가)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뽀친 가토리(마음) 안과
대천(大川)(넓은 바다) 바다 한가온데 일천 석(一千石) 시른 ᄇᆡ에 노도
일코 닻(닻)도 일코 뇽총(용총, 돛대에 매어 놓은 줄)도 근코 돗대(돛대)도 것고 치(키)도 ᄲᅡ지고 ᄇᆞ람 부
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계 ᄌᆞ자진(자욱한) 날에 갈 길은 쳔리만리(千
里萬里) 나믄ᄃᆡ 사면(四面)이 검어 어득져뭇(어둑어둑 저물어서) 쳔지적막(天地
寂寞) 가치노을 ᄲᅥᆺᄂᆞᆫᄃᆡ 수적(水賊)(바다의 도둑) 만난 도사공(都沙工)(비교 대상 ②)의 안
과(까치놀, 천둥 번개가 치고 바람이 거세지기 전에 보이는 특정한 노을)
엇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ᄀᆞ을ᄒᆞ리오(비교하리오(비교법))

현대어 풀이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큰 바다 한가운데에서 일천 석을 실은 배에 노도 잃어버리고 닻도 잃어버리
도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이 불어 물결이 치고 안
개가 뒤섞여 자욱이 낀 날씨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어둑 저물고 주변이 고요하고 까치놀이 지는 저녁 무렵 수적을 만난 도사공
의 마음과
엇그제 임과 헤어진 내 마음이야 어디에 비교하리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임과 이별한 여인
- **시적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까투리와 사면초가에 직면한 도사공의 마음을 화자의 심정과 비교함.
- **정서·태도**: 임을 여읜 참담한 심정을 드러냄.

| 작품 개요 |
- **갈래**: 사설시조
- **성격**: 이별가
- **제재**: 임과의 이별
- **주제**: 임을 여읜 슬픔
- **특징**: 열거법, 비교법, 과장법, 점층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심정을 강조하여 나타냄.
- **출전**: 《육당본 청구영언》

| 이 시의 짜임 |

비교 대상 ① – 까투리	비교 대상 ② – 도사공
숨을 곳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김.	바다 한가운데서 난파 위기에 처해 해적을 만남.

↓

까투리와 도사공의 심정에 빗대어
(엇그제) 임과 이별한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표현함.

(나) 창(窓)(화자의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매개체) 내고쟈 창(窓)을 내고쟈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쟈
고모장지(장지문의 종류) 셰살장지 들장지 열장지 암돌져귀 수돌져귀(문을 다는 데 쓰이는 도구) 비목
걸새(문을 잠그는 장치) 크나큰 장도리로 ᄉᆞᆨ딱 바가 이내 가슴에 창(窓) 내고쟈
잇다감(이따금) 하 답답ᄒᆞᆯ 제면 여다져 볼가 ᄒᆞ노라

: 열거법

현대어 풀이
창을 내고 싶구나 창을 내고 싶구나 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고모장지 세살장지 들장지 열장지(문의 종류) 암돌쩌귀 수돌쩌귀(문 닫는 데
쓰이는 도구) 배목걸쇠(문고리에 꿰는 쇠) 크나큰 장도리로 뚝딱 박아 이내
가슴에 창을 내고 싶구나
이따금 너무 답답할 때마다 여닫아 볼까 하노라.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현실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여인
- **시적 상황**: 가슴에 창을 내고 싶어 함.
- **정서·태도**: 삶 속에서 느끼는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함.

| 작품 개요 |
- **갈래**: 사설시조
- **성격**: 해학적, 의지적, 구체적
- **제재**: 창
- **주제**: 삶의 답답함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 **특징**: ① '마음'에 '창'을 낸다는 기발한 발상을 통해 문학성을 획득함.
  ② 웃음을 통해 고통과 비애를 극복하려는 해학성이 돋보임.
  ③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함.
  ④ 장지문의 종류와 부속품 같은 친근한 일상적 사물을 나열함.
- **출전**: 《청구영언》, 《해동가요》

| 이 시의 짜임 |

초장	'창'을 내고 싶은 소망
중장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과 도구
종장	창을 여닫아 답답함을 해소하고자 함.

03

정답 ⑤

정답 풀이

(가)와 (나) 모두 사설시조로 평민이 창작한 것으로 추정되며, 개인의 삶에서 느끼는 감정을 꾸밈없이 솔직하게 노래하였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종장 첫 음보는 '엇그제', (나)의 종장 첫 음보는 '잇다감'으로, 두 작품 모두 3음절로 이루어져 있다.

② (나)는 종장에서 답답함을 풀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집약하여 드러내고, (가) 역시 종장에서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을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모두 사설시조로 평시조에서 초장이나 중장이 두 구 이상 길어진 형식이다. 그러나 '초장–중장–종장'의 3장 구성이라는 기본 형식은 유지되고 있다.

④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였다.

04

정답 열거법

정답 풀이

(가)에서는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 사면초가에 직면한 도사공의 마음을 나열하며 임과 이별한 화자의 참담한 심정을 드러내고, (나)에서는 장지문의 종류와 문을 다는 데 쓰이는 도구를 나열하여 중장을 길게 늘인 것을 알 수 있다.

05~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가) 강호사시가_ 맹사성
(나) 상춘곡_ 정극인

〈강호사시가〉는 각 계절마다 안분지족의 삶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가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이 모든 것을 임금의 은혜로 귀결하여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는 연시조이다. 〈상춘곡〉은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머물면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자연을 즐기는 삶의 흥취를 노래한 가사로, 은일 가사의 시초가 되는 작품이다. 갈래적 특성과 내용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이 절로 난다 (봄: 강호의 사계를 노래함.)
시냇가 막걸리에 쏘가리 안주로다 (자연(대유법))
이 몸이 한가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소박한 생활 / 유교적 충의관) 〈제1수〉
▶ 춘사(春詞) – 자연에서 느끼는 봄의 흥취

강호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소박한 전원생활)
미더운 강 물결이 보내는 것은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늘한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의인화를 통해 자연과 하나된 삶을 노래함.) 〈제2수〉
▶ 하사(夏詞) – 여름의 한가로운 초당 생활

강호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조그마한 배에 그물 실어 흐르게 던져두고 (화자는 자연을 풍요로운 존재로 인식함. / 무위자연(無爲自然), 유유자적(悠悠自適))
이 몸이 소일하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제3수〉
▶ 추사(秋詞) – 고기잡이하며 즐기는 생활

강호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가 넘다
삿갓 비껴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안분지족(安分知足))
이 몸이 춥지 않은 것도 역시 임금의 은혜로다 〈제4수〉
▶ 동사(冬詞) – 눈 쌓인 가운데 안분지족하는 생활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자연 속의 삶에 만족하는 선비
- **시적 상황**: 자연에서 지내면서 임금의 은혜를 노래함.
- **정서·태도**: 속세를 떠나 안분지족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면서도 유교적 충의를 잊지 않음.

| 작품 개요 |
- **갈래**: 연시조(전4수), 강호한정가(江湖閑情歌)
- **성격**: 풍류적, 전원적, 낭만적
- **제재**: 강호의 사계절
- **주제**: 강호에서 자연을 즐기며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 **특징**: ① 계절에 따라 한 수씩 읊으며 대유법, 대구법, 의인법을 구사함.
  ② 각 연마다 형식을 통일하여 안정감을 드러내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부각함.
  ③ 우리나라 최초의 연시조이자 강호가도(江湖歌道)의 선구적 작품임.
- **출전**: 《청구영언》

| 이 시의 짜임 |

제1수	강호에서 봄의 흥취를 느낌.
제2수	여름에 초당에서 한가하게 강바람을 느낌.
제3수	배로 고기잡이하며 풍요로운 가을을 보냄.
제4수	눈이 쌓인 겨울에 안분지족을 느낌.

(나) 이보게 이웃 사람들아 산수 구경 가자꾸나 / 산책은 오늘 하고 목욕은 내일 하세 / 아침에 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산과 물, 자연의 경치 / 대구법)
▶ 본사 3: 산수 구경의 권유

이제 막 익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걸러놓고 / 꽃나무 가지 (술을 걸러 마시는 칡베로 만든 두건)
꺾어 잔을 세면서 먹으리라 / 화풍(和風)이 문득 불어 시내를 건너오니 / 청향(淸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솔솔 부는 화창한 바람 / 공감각적 이미지(후각의 시각화) / 녹수를 건너온 봄바람이 술잔의 향기가 되고, 아름다운 봄꽃이 옷에 떨어짐.)
술독이 비었으면 나에게 아뢰어라 / 아이를 시켜서 주가(酒家)에서 술을 사서 /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 모래밭 맑은 물에 잔 씻어 술을 부어 / 맑은 물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도화(桃花)로다 / 무릉(武陵)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곳인가 (나직히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 시냇물에 떠내려오는 복숭아꽃을 보고 도연명이 묘사한 무릉도원을 연상함.)
▶ 본사 4: 술과 풍류

소나무 사이 좁은 길에 진달래꽃을 붙들고 /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에 앉아 보니 /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벌여 있네
노을빛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 엊그제 검은 들판에 봄빛이 넘치는구나 (직유법 / 겨울 동안 황량했던 들판에 봄이 옴.)
▶ 본사 5: 산봉우리에서 바라본 봄의 경치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사올고 /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허튼 생각 아니 하니 /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하면 어떠한가 (맑은 바람과 밝은 달(자연) / 더러운 거리에서 먹는 한 그릇의 밥과 한 바가지의 물로, 선비의 청빈한 생활을 뜻함. / 평생 즐거움을 누림. / 만족감과 자부심이 드러남.)
▶ 결사: 안빈낙도에 대한 만족감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봄 경치를 구경하며 즐기는 '나'
- **시적 상황**: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자연 속에 은거하며 이웃들에게 산수 구경을 권유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자연 속의 삶의 만족감을 노래함.
- **정서·태도**: 자연을 즐기며 자연과 하나 되는 물아일체(物我一體)의 경지와 이상적 삶으로서의 안빈낙도(安貧樂道)를 추구함.

| 작품 개요 |
- **갈래**: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은일 가사, 강호한정가
- **성격**: 서정적, 묘사적, 자연 친화적, 예찬적
- **제재**: 봄의 아름다운 풍경
- **주제**: 봄 경치를 즐기는 강호가도(江湖歌道)와 안빈낙도(安貧樂道)
- **특징**: ① 대구법, 직유법, 의인법, 고사 인용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이 나타남.
  ② 화자의 시선이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함.
- **출전**: 《불우헌집》

| 이 시의 짜임 |

서사	자연 속에서 묻혀 사는 즐거움	초가집(좁은 공간)
본사	봄 풍경을 구경하며 산책함.	들판
	술을 마시며 풍류를 즐김. 〈수록 부분〉	시냇가
	산에 올라 봄 경치를 내려다봄. 〈수록 부분〉	봉우리(넓은 공간)
결사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만족감 〈수록 부분〉	

05

정답 ①

정답 풀이

(가)에서는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② 각 수의 초장 전반부에서 계절적 배경(봄·여름·가을·겨울)을 제시하며 시상을 펼치고 있다.

③ 화자는 강호의 삶을 '한가한 것', '서늘한 것', '소일하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만족스럽게 묘사하고 있다.

④, ⑤ 각 수의 종장에서 '임금의 은혜로다'라는 구절을 반복하여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는 동시에 운율감과 통일성을 형성하고 있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화자는 산봉우리에 올라 '구름에 앉아 보니 /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벌여 있네'라며 경치를 감상할 뿐 바른 정치를 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산책은∨오늘 하고∨목욕은∨내일 하세', '아침에∨나물 캐고∨저녁에∨낚시하세'처럼 한 행을 네 덩이로 끊어 읽는 4음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② 이 작품은 정격 가사로, '아모타(3)/백년행락이(5)/이만하면(4)/어떠한가(4)'처럼 낙구가 시조의 종장과 같은 '3·5·4·4'의 음수율을 보인다.

④ 결사에서 공명과 부귀를 주체로, 화자를 객체로 설정하여 안빈낙도와 자연 친화적인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⑤ 마지막 구절인 '백년행락이 이만하면 어떠한가'는 설의적 표현으로,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난다.

07

정답 ⑤

정답 풀이

(가)의 미더운 강 물결은 화자에게 바람을 보내 주는 대상이지 공간은 아니며, (나)의 부귀와 공명이 나를 꺼린다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의미이기에 이상적인 공간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가)의 추사에서 살진 고기를 묘사하고 작은 배에 그물을 던지는 장면은 계절적 풍요 속에서 한가롭게 소일하는 삶을 보여 주며, 이는 종장에서 임금의 은혜로 귀결된다.

② (나)에서 자연을 벗에 비유하는 표현은 화자가 자연과 긴밀하게 교감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가)에서 봄이 되니 절로 흥이 일어나는 모습과 (나)에서 이웃에게 산수 구경을 권하는 대목은 모두 자연을 향유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④ (가)의 동사에서 겨울에 삿갓과 도롱이로 추위를 견디는 모습과 (나)에서 나물을 캐고 고기를 낚는 생활은 모두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드러낸다.

03 고전 시가의 주제

확인 문제

p.111~113

바로바로 간단 체크 (가) 십 년을 경영하여_ 송순, (나) 어져 내 일이야_ 황진이

(가) – ❶ ○ ❷ X ❸ 초려 삼간 ❹ 자연 (나) – ❶ ○ ❷ X ❸ 후회 ❹ 그리워 (가) 수양산 부라보며_ 성삼문, (나) 방 안에 혓는 촛불_ 이개 (가) – ❶ X ❷ X ❸ 백이 ❹ 절의 (나) – ❶ ○ ❷ ○ ❸ 촛불 ❹ 안타까움/슬픔 만흥_ 윤선도 ❶ ○ ❷ X ❸ 띠집 ❹ 자연

01 ③ **02** ⑤ **03** ② **04** ⓐ: 절의 / 절개 / 충정, ⓑ: 이입 **05** ① **06** ③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가) 십 년을 경영하여_ 송순
(나) 어져 내 일이야_ 황진이

〈십 년을 경영하여〉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안빈낙도를 노래한 평시조이고, 〈어져 내 일이야〉는 이별 뒤에 임을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마음을 노래한 기녀 시조이다. 갈래적 특성과 내용을 생각하며 작품을 살펴보자.

(가)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 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경영(經營)하여: 계획하여 / 초려 삼간(草廬三間): 안분지족(安分知足)

'달'과 '청풍'을 집에 들여 함께 살아가고자 함. → 물아일체의 경지, 의인법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淸風) 한 간 맡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 두고 보리라
강산을 병풍처럼 둘러놓겠다는 발상

: 근경 ↓ : 원경

현대어 풀이
십 년을 계획하여 세 칸짜리 초가집을 지어 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맑은 바람 한 칸 맡겨 두고
강과 산은 들일 곳이 없으니 (병풍처럼) 둘러 두고 보리라.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
- **시적 상황**: 산속에 초려 삼간을 지어 자연과 함께 생활함.
- **정서·태도**: 자연과 물아일체(物我一體)를 이루어 살고자 함.

| 작품 개요 |
- **갈래**: 평시조
- **성격**: 풍류적, 낭만적, 전원적, 한정가
- **제재**: 전원생활
- **주제**: 자연에 대한 사랑과 안빈낙도의 삶 추구
- **특징**: ① 의인법을 사용하여 물아일체의 삶을 드러냄.
  ②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이 이동함.
- **출전**: 《청구영언》, 《병와가곡집》

| 이 시의 짜임 |

초려 삼간		
나 달 청풍	→	자연과 하나되는 물아일체의 삶

(나)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ᄃᆞ냐
감탄사 내가 한 일 / 임을 떠나보낸 후의 회한
이시라 ᄒᆞ더면 가랴마는 제 구ᄐᆞ여
보내고 그리는 정(情)은 나도 몰라 ᄒᆞ노라
자존심과 연정 사이의 심리적 갈등

: 중의적 표현
① '제'가 떠나는 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때
→ (내가) 있으라고 하면 임이 구태여 갔으랴마는 (임을) 보내고(도치법)
② '제'가 화자인 '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때
→ 있으라고 붙잡았으면 (임이) 갔으랴마는, 내가 구태여 (임을) 보내고(행간 걸침)

현대어 풀이
아, 내가 한 일이야 그리워할 줄을 몰랐더냐.
있으라 했으면 (임이) 갔겠느냐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나도 모르겠구나.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임과 이별한 사람
- **시적 상황**: 임을 떠나보내고 후회함.
- **정서·태도**: 이별한 임을 그리워함.

| 작품 개요 |
- **갈래**: 평시조
- **성격**: 감상적, 애상적, 여성적, 연정가, 이별가
- **제재**: 이별과 그리움(보내고 그리는 정)
- **주제**: 이별의 회한과 임을 향한 그리움
- **특징**: ① 감탄사 '어져'를 써서 임을 향한 그리움의 정서를 집약적으로 표현함.
  ② 영탄법을 써서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강조함.
  ③ 중장과 종장의 행간에 걸쳐진 '제 구ᄐᆞ여'가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④ 이별 후의 심리를 절묘한 우리말로 섬세하게 표현함.
- **출전**: 《청구영언》

| 이 시의 짜임 |

초장	임을 떠나보낸 일에 대한 후회
중장	임과의 이별에 대한 미련
종장	떠난 임에 대한 그리움

01 정답 ③

정답 풀이

(나)에서는 화자가 임을 떠나보내고 후회하는 태도가 드러날 뿐, 임에 대한 원망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 내니'라는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 맡겨 두고'라는 구절에서 의인법을 활용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를 형상화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모습을 부각한다.

④ '보내고 그리ᄂᆞᆫ 정은 나도 몰라 ᄒᆞ노라'는 자기 행동을 되묻는 설의적 표현이다. 이를 통해 임을 보낸 일을 후회하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⑤ '가랴마ᄂᆞᆫ 제 구ᄐᆞ여 보내고'라는 구절은 도치로 보느냐, 행간 걸침으로 보느냐에 따라 임이 떠난 것인지, 내가 보낸 것인지 해석이 달라지는 중의적 표현이다.

02 정답 ⑤

정답 풀이

(가)의 화자는 오히려 '십 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 내니'라며 스스로 선택한 소박한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현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초려 삼간'은 풀로 지은 작은 집 세 칸을 뜻한다. 이는 화자가 화려한 생활 대신 소박하고 검소한 집을 선택했음을 보여 주며, 청빈한 삶을 상징한다.

② '달 한 간, 청풍 한 간 맡겨 두고'라는 표현은 집의 일부를 자연에 내어 준 것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보여 준다.

③ (나)의 화자는 시조의 초장에서 '어져'라는 감탄사로 시작하며 임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한껏 드러낸다. 이는 임과의 이별로 인한 아픔과 여운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④ (나)의 화자는 '제 구ᄐᆞ여 보내고 그리ᄂᆞᆫ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라고 하여 스스로 임을 보냈지만, 여전히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이는 자존심과 연정 사이에서의 심리적 갈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가) 수양산 ᄇᆞ라보며_ 성삼문
(나) 방 안에 혓는 촛불_ 이개

〈수양산 ᄇᆞ라보며〉는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를 노래한 평시조이고, 〈방 안에 혓는 촛불〉은 완곡하고 섬세한 어조로 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노래하며 절의를 드러낸 평시조이다. 갈래적 특성과 내용을 생각하며 작품을 살펴보자.

(가) 수양산(首陽山) ᄇᆞ라보며 이제(夷齊)ᄅᆞᆯ 한(恨)ᄒᆞ노라
(백이와 숙제 / 중의적 표현 – ① 백이와 숙제가 숨어 살던 산 ② 수양 대군)
주려 주글진들 채미(採薇)도 ᄒᆞᄂᆞᆫ 것가
(고사리를 캠.)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짜헤 낫ᄃᆞ니
(주나라 땅에서 난 것이므로 먹지 말아야 함(설의법) → 이제를 질책함.)

현대어 풀이
수양산을 바라보며 백이와 숙제를 한탄하노라.
굶주려 죽을망정 고사리를 왜 캐어 먹었는가?
비록 산과 들에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이라 한들 그것이 누구의 땅에서 났단 말인가?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나라에 대한 지조를 지키는 충신
- **시적 상황**: 은나라의 충신인 백이와 숙제를 비판함.
- **정서·태도**: 자신의 굳은 절개를 강조함.

| 작품 개요 |
- **갈래**: 평시조
- **성격**: 지사적, 풍자적, 비판적, 절의가
- **제재**: 백이·숙제의 고사
- **주제**: 죽음을 각오한 굳은 지조와 절의, 단종을 향한 굳은 절개
- **특징**: ① 백이와 숙제의 태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절의를 강조함.
  ② 중의법과 설의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지조를 부각함.
- **출전**: 《청구영언》

| 이 시의 짜임 |

백이와 숙제		화자
은나라를 섬기면서 주나라 땅에 난 고사리를 캐 먹으며 목숨을 연명함.	↔	굶어 죽더라도 단종에 대한 굳은 지조와 절의를 지키려고 함.

↓

백이·숙제와 대비하여 화자의 굳은 절개를 강조함.

(나) 방 안에 혓는 촛불 눌과 이별ᄒᆞ였관ᄃᆡ
(감정 이입의 대상)
것츠로 눈물 디고 속 타는 쥴 모르는고
(촛농(비유) / 초의 심지)
뎌 촛불 날과 갓트여 속 타는 쥴 모르도다
(촛불–화자(동일시) / 중의적 표현 – ① 초의 심지 ② 화자의 애타는 심정)

현대어 풀이
방 안에 켜 놓은 촛불은 누구와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을 흘리고 속이 타들어 가는 줄은 모르는가?
저 촛불이 나와 같아 속이 타는 줄 모르는구나.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임과 이별한 사람
- **시적 상황**: 임과 이별한 화자가 촛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함.
- **정서·태도**: 임과의 이별을 안타까워함.

| 작품 개요 |

- **갈래**: 평시조
- **성격**: 애상적, 감상적, 연군가
- **제재**: 촛불
- **주제**: 임(단종)과 이별한 슬픔
- **특징**: ① 완곡하고 섬세한 어조로 절의를 드러냄.
  ② 의인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촛불에 이입함.
- **출전**: 《청구영언》, 《해동가요》

| 이 시의 짜임 |

촛불(감정 이입의 대상)		화자
떨어지는 촛농	→	눈물을 흘림.
타들어 가는 심지	→	속이 타들어 감.

03

정답 ②

정답 풀이

㉡의 '이제'는 절의와 충절의 상징적인 인물인 은나라의 충신 백이와 숙제를 가리킨다. 그러나 화자는 이들이 수양산에 들어가 캐 먹은 고사리 역시 주나라 땅에서 난 것임을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의 절의가 부족했음을 비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절의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화자는 수양 대군의 단종 폐위에 항거하여 이 시조를 지었는데, 수양산은 수양 대군을 연상하게 한다.
③ 촛불은 단종과 이별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이입된 대상이다.
④ 촛농이 떨어져 흐르는 것을 눈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⑤ 초의 심지가 타는 것과 화자의 애가 타는 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04

정답 ⓐ: 절의 / 절개 / 충정, ⓑ: 이입

정답 풀이

(가)에서는 백이와 숙제를 비판하며 임금을 향한 화자 자신의 굳은 절의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화자가 촛불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여 임(단종)과 이별한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만흥_ 윤선도

〈만흥〉은 전 6수로 구성된 연시조로, 윤선도가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해남에 은거하면서 지은 작품이다. 자연에 묻혀 지내는 한가롭고 흥겨운 심정을 읊으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노래(제6수)한 작품이다. 갈래적 특성과 내용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우리 책 수록 부분]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연 속(↔ 속세)) (소박한 생활(안빈낙도))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향암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어리석고 견문이 좁은 사람 → 화자가 자신을 겸손하게 이름.) (안분지족)

▶ 제1수: 안분지족(安分知足)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소박한 생활(안빈낙도의 태도))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실컷)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 〈제2수〉
(다른 일 → 세속의 일) (부러워할)

▶ 제2수: 안빈낙도(安貧樂道)

[우리 책 미수록 부분 중 제6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워 있겠느냐
(분수)
임금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자연에서 살게 해 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아므리 갚고자 하여도 하올 일이 업세라 〈제6수〉

▶ 제6수: 임금의 은혜 찬양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화자**: 속세를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삶을 선택한 선비
- **시적 상황**: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하며 소박한 생활 속에서 안빈낙도의 삶을 살아감.
- **정서·태도**: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 은거하면서도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 작품 개요 |

- **갈래**: 연시조(전 6수)
- **성격**: 자연 친화적, 강호한정가
- **제재**: 자연과 벗하는 생활
-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님의 은혜 찬양
- **특징**: ①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 물아일체의 자연 친화적 태도가 잘 드러남.
  ② 세속과 자연을 대비하여 주제를 드러냄.
- **출전**: 《고산유고》

| 이 시의 짜임 |

제1수	자신의 분을 지키며 자연에서 살아감. 〈수록 부분〉	안분지족
제2수	소박한 삶 속 즐거움 〈수록 부분〉	안빈낙도
제3수	자연과 함께 사는 삶의 즐거움	물아일체
제4수	자연에서 사는 삶에서 느끼는 자부심	임천한흥
제5수	자연에서의 삶은 하늘이 맡긴 일임.	자연 귀의
제6수	자연에서 살게 해 준 임금의 은혜 찬양	군은 예찬

05

정답 ①

정답 풀이

〈제2수〉의 종장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안분지족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⑤ 이 시에서는 인식의 변화나 해학성, 부정적인 현실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나타나지만 의인법을 활용한 부분은 없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화자가 자신을 '어리고 향암'이라고 말한 것은 겸손하게 말한 것이지 정말로 자신을 어리석다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화자가 자연에서 띠집을 짓고 사는 것을 자신의 '분'으로 여기는 점에서, 자연 속에서 분수에 맞게 살아가려는 태도를 알 수 있다.
② '웃는' 사람들은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겠다는 화자의 삶과 다른 가치관과 지향점을 가진 인물들로, 세속적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상징한다.

④, ⑤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은 자연 속에서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럴 줄이 있으랴'는 자연 속 소박한 삶에 만족하며 세속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준다.

수능 다가가기 p.116~119

01 ③ 02 ⑤ 03 ② 04 ① 05 ③ 06 ② 07 ④

01~03 2025학년도 수능

가 작자 미상, 〈갑민가〉

주제 부조리한 현실 비판

해제 이 작품의 창작 시기와 작가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 영조·정조 때(18세기) 함경도 북청 부사로 부임했던 성대중의 재임 시기와 맞물려, 그가 머물던 근처 갑산 지역의 인물이 지은 서민 가사로 추정된다.

갑산은 함경남도 북동부의 험준한 산악 지대에 위치한 곳으로, 조선 시대에는 삼수와 함께 대표적인 귀양지로 알려져 있었다. 기온이 낮고 경작지가 좁아 생계가 어려웠으며, 여기에 신역(身役) 부담이 더해져 백성들의 삶은 매우 고단했다. 특히 몰락 양반이나 서민들은 족징(族徵)과 지방 관리의 횡포로 인해 신역의 고통이 더욱 컸고, 결국 고향을 떠나는 이들도 많았다.

이 작품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갑민'의 고단한 삶을 통해 조선 후기 민중의 피폐한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갑민'과 '생원'의 대화 형식으로 내용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현실 비판 의식과 더불어 대화체 구성의 특징을 지닌 작품으로 평가된다.

[생원의 조언]

어져 어져 저기 가는 저 사람아 (갑민)
(감탄사)
네 행색을 보아 하니 군사 도망 네로구나 (군역을 피해 도망을 하는 것이구나.)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허리 아래 굽어보니 헌 잠방이 노닥노닥 (누추한 행색(대구법))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 (→ 갑민 가족의 모습)
(등이 굽은) (다리를 저는 사람)
십 리 길을 하루 가니 몇 리 가서 엎어지리
(내 고을의 양반 사람 타도 타관 옮겨 살면
(다른 고장)
천히 되기 상사여든 본토 군정(軍丁) 싫다 하고
(천한 신분이 되기 쉬움.) (본래 고향의 군역의 의무)
자네 또한 도망하면 일국 일토(一土) 한 인심에
(한 나라 한 땅)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 ( ):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것을 말림.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 한 나라이니 다를 것이 없음.)
차라리 네 살던 곳에 아무렇게나 뿌리박혀
칠팔월에 인삼 캐고 구시월에 돈피 잡아
공채 신역 갚은 후에 그 나머지 두었다가
(군역과 부역: 군대, 노동, 세금)
함흥 북청 홍원 장사 돌아들어 잠매할 때
(물건을 몰래 거래함.)
후한 값에 팔아 내어 살기 좋은 넓은 곳에
가사 전토(家舍田土) 다시 사고 살림살이 장만하여
(집과 논밭)
부모처자 보전하고 새 즐거움 누리려무나

▶ 서사: 도망가는 갑민에게 고향에서 그대로 살 것을 권하는 생원

[갑민의 대답]

어와 생원인지 초관인지
(감탄사)
그대 말씀 그만두고 이내 말씀 들어 보소
(갑민의 사정을 잘 모르고 조언한 그대에게 대답함.)
이 내 또한 갑민(甲民)이라 이 땅에서 생장하니 이때 일
(나고 자람.)
을 모를쏘냐
(설의법)
우리 조상 남쪽 양반 진사 급제 계속하여
(갑민의 조상은 양반이었음.)
금장 옥패 빗기 차고 시종신을 다니다가
(화려한 치장) (비스듬히 차고) (벼슬의 이름)
시기인의 참소 입어 변방으로 쫓겨 와서
(시기하는 사람들의 계략에 의해)
국내 변방 이 땅에서 칠팔 대를 살아오니
(갑산)
조상 덕에 하는 일이 읍중 구실 첫째로다
(조상 덕에 갑민이 읍중에 양반의 역할을 함.)
들어가면 좌수 별감 나가서는 풍헌 감관
유사 장의 채지 나면 체면 보아 사양터니
(하급 관리의 채용)
애슬프다 내 시절에 원수인의 모해로써
(직접적인 감정 제시)
군사 강정 되단 말가 내 한 몸이 헐어 나니
(군역을 지는 신분으로 강등됨.)
좌우전후 수다 일가 차차 충군(充軍) 되것고야
(조선 시대에, 죄를 범한 자를 벌로서 군역에 복무하게 하던 제도)
조상 제사 이내 몸은 하릴없이 매여 있고
시름없는 친족들은 자취 없이 도망하고
여러 사람 모든 신역 내 한 몸에 모두 무니
(족징의 폐해, 과도한 신역의 부담을 고발함.)
(한 몸 신역 삼 냥 오 전 돈피 두 장 의법이라 ( ):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가혹한 현실을 부각함.
열두 사람 없는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 냥)
해마다 맡아 무니 석숭인들 당할쏘냐
(진나라 최고 부자(대유법))

▶ 본사: 과도한 신역을 부과하는 가혹한 상황을 고발하는 갑민

짜임

서사	생원의 말: 갑민에게 갑산을 떠나지 말 것을 권함. • 군역을 피해 도망가는 갑민의 가족에 대한 행색 묘사 • 갑민에게 유리하지 말고 고향에서 살 것을 권함.
본사	갑민의 대답: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함. • 자신의 말을 들어 달라고 요구함. • 자신의 출신을 밝히며 모함으로 군사 강등된 사연을 말함. • 친족들이 모두 도망하여 갑민은 그들의 군역을 대신 짊어짐.

특징

① 생원과 갑민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짐.
② 구체적인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감을 부여함.
③ 조선 후기 군역이 안고 있는 폐해로 인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 줌.
④ 양반 관료 사회의 수탈 및 부패를 과감하게 폭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님.

나 작자 미상, 〈녹양방초 언덕에〉

주제 기대에 어긋나는 대답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희성

해제 이 작품은 김천택이 엮은 《청구영언》에 실린 사설시조로, 초장과 중장의 화자와 종장의 목동들 사이의 대화를 통해 유희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앞내와 뒷내에서 잡은 물고기를 다래끼에 담아 누군가에게 전해 주기를 목동들에게 부탁하지만, 목동들은 농사일로 바빠 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답한다. 이처럼 화자의 기대와 목동들의 반응이 엇갈리며 대화가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뜻밖의 웃음과 익살스러운 재미가 생겨나는 작품이다.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아희들아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 목동들, 시적 청자)
(앞내 ㉠고기 뒷내 고기를 다 몽땅 잡아내 다래끼에 넣어
주거든 네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주렴)
(○: 화자의 요청 – 물고기를 목동들이 소 궁둥이에 얹어다가 전해 달라고 함.)
우리도 서주(西疇)에 일이 많아 바삐 가는 길이매 가 전
할동 말동 하여라) ( ): 목동들의 대답 – 밭일이 바빠서 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함.

짜임

초장	소 먹이는 아이들을 부름.
중장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전해 달라고 부탁함.
종장	아이들은 밭일이 바빠서 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함.

특징

① 화자와 목동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됨.
② 목동이 화자의 기대와 다른 대답을 함으로써 해학성을 드러냄.
③ 대사를 직접 인용하여 내용에 사실성, 생동감, 현장감을 줌.
④ 생각이 다른 두 발화자의 대화로 전개되어 극적인 효과를 줌.
⑤ 돈호법, 반복법을 활용함.

01 표현상 특징

정답 ❸ 정답률 63%

정답 풀이

③ 의문의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의 행적을 의심한다.

➡ (가)에서 '어데 간들 면할쏜가'는 고향을 떠나는 것을 만류하는 것이고, '이때 일을 모를쏘냐', '석숭인들 당할쏘냐'는 백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는 당대 사회의 부조리함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상대의 행적을 의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대구 표현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대상의 처지를 드러낸다.

➡ '허리 위로 볼작시면 베적삼이 깃만 남고 ~ 곱장 할미 앞에 가고 전태발이 뒤에 간다'에서 대구 표현을 사용해 신역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들의 초라한 외양과 불쌍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부정적 전망을 제시한다.

➡ '본토 군정 싫다 하고 ~ 근본 숨겨 살려 한들 어데 간들 면할쏜가'에서 행위의 실행을 가정하여 도망을 가도 신분을 속이고 살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악화된 처지를 보여 준다.

➡ '유사 장의 채지 나면 ~ 군사 강정 되단 말가'에서 갑민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현재 군사로 강등된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보여 주고 있다.

⑤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드러낸다.

➡ '한 몸 신역 삼 냥 ~ 합쳐 보면 사십육 냥'에서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중국 진나라 때의 부호인 석숭이라도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신역의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개념의 좌표

- 대구법(→ 55쪽)
- 부정적 상황(→ 18쪽)
- 의문형 진술(→ 54쪽)
- 대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69쪽)
- 시상의 전환(→ 71쪽)
- 시선의 이동(원경/근경)(→ 64쪽)

02 시어와 시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❺ 정답률 73%

정답 풀이

⑤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보기에 상대가 했으면 하는 행위의 대상이다.

➡ ㉠은 갑민이 얻으면 공채와 신역을 갚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화자가 갑민이 도망가지 않고 고향에 남아 캐기를 바라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잡아 다래끼에 넣으려는 것으로, 목동들이 소 궁둥이에 얹어 누군가에게 전해 주기를 바라는 대상이다.

오답 풀이

①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이주해 가려는 땅에서 재배할 약재이다.

➡ ㉠을 언급하는 주체는 생원으로, 그는 ㉠을 언급하여 갑민의 이주를 만류하려는 것이지, 자신이 이주하여 약재를 재배하려는 것은 아니다.

② ㉡은 ㉡을 언급하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상대에게 노동의 대가로 주는 보상이다.

➡ ㉡을 언급하는 화자는 말을 건네는 상대인 목동들에게 물고기의 운반과 전달을 요청하는 것이지, 목동들에게 물고기를 노동의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니다.

③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유흥을 목적으로 구하려는 물품이다.

➡ ㉠은 갑민이 고향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누군가에게 전해 주려는 대상이므로, 둘 다 유흥의 목적과는 관련이 없다.

④ ㉠과 ㉡은 모두, 각각을 언급하는 화자가 획득하려면 상대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다.

➡ 생원이 ㉠을 획득하기 위해 갑민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또한 (나)의 화자는 목동들의 도움 없이 ㉡을 획득할 수 있으며, 목동들에게 ㉡의 운반과 전달을 요청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❷ 정답률 55%

보기

조선 후기의 가사나 사설시조에서는 입장이 다른 발화자가 등장하는 대화체를 사용해 작중 상황을 극의 한 장면처럼 만들기도 한다. 대화를 통해 사실성을 추구하는 작품의 경우, 구체적 소재와 다각적인 내용으로 그 시대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대화를 통해 유희성을 보이는 작품의 경우, 대화가 논쟁, 의견 불일치 등 의외의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재미가 생겨나며, 때로 등장하는 불완전한 표현은 작품이 내용 자체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함을 보여 준다.

정답 풀이

② (가)의 '이내' 말씀은 집안의 내력과 사회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자는 입장으로, '그대' 말씀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군.

➡ (가)의 '이내' 말씀은 갑민이 자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그대(생원)'에게 들려주는 말로, 갑민은 갑산 지역에 대해 자신이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하며 집안의 내력과 지위의 강등을 시간에 따라 설명하고 있을 뿐,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가)의 '그대'가 '자네'의 선택과 다른 권유를 함으로써 '자네'가 풀어낸 사연은, 당시 갑산 백성이 겪었음 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군.

➡ '그대(생원)'는 신역을 피해 도망가려는 '자네(갑민)'에게 고향에서 계속 살아가라는 권유를 하고 있다. 도망을 선택한 갑민은 당시 갑산 지역의 백성이 겪었음 직한 고통을 사실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③ (나)는 선행하는 화자의 요청에 대해 '우리'가 선행하는 화자의 기대에 어긋난 대답을 하면서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는군.

➡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고기'를 소 궁둥이에 얹어 누군가에게 전해 달라고 '우리(목동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화자의 기대와 달리 목동들은 이에 '고기'를 전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대답해 대화가 의외의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다.

④ (나)의 선행하는 화자가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명시하지 않아 불완전한 표현이 된 것은 이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전개 양상에 주목한다는 것을 드러내는군.

➡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고기'를 누구에게 주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전달 대상을 알 수 없는 불완전한 표현이 되었다. 이는 작품이 내용보다 대화의 흐름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가)의 '그대'는 길 가는 '자네'를, (나)의 선행하는 화자는 소 먹이는 '아희들'을 불러 말을 건네고 있어 작품의 상황이 극 중 장면처럼 보이는군.

➡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면, (가)에서는 '그대(생원)'가 길 가는 '자네(갑민)'에게, (나)에서는 화자가 '아희들(목동들)'에게 말을 거는 장면이 각각 극의 한 장면처럼 제시된다고 할 수 있다.

개념의 좌표

- 가사(→ 99쪽)
- 대화체(→ 23쪽)
- 사설시조(→ 97쪽)

04~05 2025학년도 9월 고3 모의평가

가 정철, 〈풍파에 일렁이던 배〉

주제 험난한 정치 현실에 대한 경계

해제 이 작품은 작가가 체험한 16세기 후반의 험난한 정치 현실을 표현한 평시조로, '풍파', '구름' 등 자연 현상에 빗대어 경험이 적은 신진 관료들에게 정치가 얼마나 험난한지를 알려 준다. 작품에서 '일렁이던 배'는 시련을 겪은 관료를, '허술한 배'는 신진 관료를 상징하며, 청자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참신한 방식이 돋보인다.

풍파에 일렁이던 배 어디로 갔단 말인가
(어지러운 정치 / 정치적 공격을 받은 관료 / 영탄법)
구름이 험하거늘 처음 나왔는가 어찌하여
허술한 배 두신 분네는 모두 조심하소서
(청자, 어지러운 정치에 대비하지 못한 자들, 신진 관료)

짜임

초장	날씨가 악화되어 배들이 사라짐.
중장	궂은 날씨에도 나온 이들에게 궁금증을 느낌.
종장	빈약한 배를 다루는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함.

특징

① 험난한 정치 현실을 자연 현상에 비유함.
②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의도를 전함.
③ 설의적 표현을 통한 영탄법을 사용해 화자의 생각을 드러냄.

나 정철, 〈심의산 서너 바퀴〉

주제 참소에 대한 경계와 결백의 호소

해제 이 작품은 당파 간 대립 속에서 정적들의 비방과 모함에 시달리던 작가가 임금인 선조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은 사설시조이다. 작품에서 '심의산(深意山)'은 추상적 대상을 형상화한 것이고, 오뉴월 한낮에 된서리가 치고 자취눈이 내리는 불가능한 자연 현상은, 화자가 겪은 참혹한 심정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며 임금이 자신을 모함하는 참소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깊을 뜻을 지닌 산, 화자의 심회)
심의산(深意山) 서너 바퀴 감돌아 휘돌아 들어
(자신을 모략하는 말 때문에 깊은 산속에 들어감.)
(오뉴월 한낮에 살얼음 엉긴 위에 된서리 섞어 치고 자취
( ): 여름에 있을 수 없는 일 → 자신을 참소하는 말이 거짓임.(설의법)
눈 내렸거늘 보았는가)임아 임아
(돈호법)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임이 짐작하소서
(모든 사람 / 모함하는 말)

짜임

초·중장	허황된 말로 인해 불가능한 현실 상황이 일어남.
종장	임에게 화자의 결백을 호소함.

특징

① 중장에서 음보가 늘어난 사설시조의 형태를 띰.
② 상징적 시어를 통해 화자가 처한 정치적 현실을 드러냄.
③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 화자가 자신의 억울한 처지를 나타냄.
④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가 대상에게 호소함.

다 조존성, 〈호아곡〉

주제 전원에서 즐기는 은거 생활의 즐거움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중기에 조존성이 지은, 총 4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청구영언》과 《해동가요》에 실려 있다. '호아곡'이라는 명칭은 초장의 첫 구가 '아이야'로 시작되어 붙여진 것이다. 작가는 광해군이 자신의 생모 공빈 김씨를 왕비로 추존하는 것에 반대하다 파직된 후 은거했으며, 이 작품도 그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각 수에서는 순서대로 고사리를 캐며 욕심 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소박한 태도, 강물에 낚싯줄을 드리우며 느긋한 즐거움을 만끽하는 화자의 모습, 직접 밭을 갈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생동감 있는 마음, 술에 취해 흥겨움을 마음껏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작가가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만족감을 드러내며 강호한정을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쪽 산', '동쪽 시내', '남쪽 논밭', '북쪽 마을'에서 화자가 행하는 일은 은자적 삶을 보여 주며, 동시에 고사를 활용하여 은거 중에도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았던 모습이 나타난다.

(: 공간의 이동)
아이야 구럭 망태 찾아라 서쪽 산에 날 늦겠다
(돈호법 / 명령형 어조 / 명령의 이유)
밤 지낸 고사리 벌써 아니 자랐으랴
이 몸이 이 나물 아니면 조석(朝夕) 어이 지내리 〈제1수〉
(: 소박한 생활을 상징하는 소재) ▶ 제1수: 서쪽 산에서 고사리를 캐며 즐기는 삶

아이야 도롱이 삿갓 차려라 동쪽 시내에 비 내린다
(소박한 비옷)
기나긴 낚싯대에 (미늘 없는 낚시 매어
( ): 강태공 고사 → 세월을 낚으며 자신을 알아줄 군주를 기다림.
저 고기 놀라지 마라 내 흥 겨워하노라) 〈제2수〉
▶ 제2수: 동쪽 시내에서 낚시를 하며 즐기는 삶

아이야 죽조반(粥早飯) 다오 남쪽 논밭에 일 많구나
(소박한 음식)
서투른 따비는 누구와 마주 잡을꼬
(서투른 농사일에 대한 걱정)
두어라 (성세궁경(聖世躬耕)도 역군은(亦君恩)이시니
(태평한 세월에 직접 농사를 짓는 것 / 임금의 은혜임. – 유교적 충의 사상)
라) ( ): 장저, 걸닉, 공자의 고사 → 현실에 대한 만족감 〈제3수〉
▶ 제3수: 남쪽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즐기는 삶

아이야 소 먹여 내어라 북쪽 마을에서 새 술 먹자
(풍류 청유형)
잔뜩 취한 얼굴을 달빛에 실어 오니
( ): 복희씨 고사 →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함,
어즈버 (희황상인(羲皇上人)을 오늘 다시 보는구나)
(속세의 일을 잊고 태평하게 숨어 사는 사람 → 화자) (영탄법)
〈제4수〉

▶ 제4수: 북쪽 마을에서 술을 마시며 즐기는 삶

짜임

제1수	서쪽 산에서 고사리를 캐며 즐김.
제2수	동쪽 골짜기에서 낚시를 하며 즐김.
제3수	남쪽 논밭에서 농사를 지으며 즐김.
제4수	북쪽 마을에서 술을 마시며 즐김.

특징

① 고사를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냄.
② 설의법, 영탄법을 사용하여 은거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③ 자연물을 의인화하거나 청유형 표현을 통해 자연 친화적 태도와 풍류적 태도를 나타냄.

04 표현상 특징

정답 ① 정답률 84%

정답 풀이

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 (가)는 '허술한 배를 두신 분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험난한 정치 현실을 경계하라는 요구를, (나)는 '임'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참소를 분별하여 판단해 달라는 요구를, (다)는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도구나 자신이 바라는 행동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다)의 〈제2수〉의 종장에서 '고기'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와 자연의 유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와 (나)에는 의인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고 있다.

➡ (가)~(다) 모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④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가)의 '어디로 갔단 말인가', (나)의 '자취눈 내렸거늘 보았는가', (다)의 '벌써 아니 자랐으랴', '누구와 마주 잡을꼬' 등에서 물음의 방식이나 표현들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러한 표현들이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⑤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 내고 있다.

➡ (가)~(다) 모두 풍경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계절의 변화상을 그려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개념의 좌표

- 말을 건네는 방식(→ 23쪽)
- 의인법(→ 47쪽)
- 대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69쪽)
- 의문형 진술(→ 54쪽)
- 대상과의 친밀감(→ 58쪽)
- 시상의 전환 (→ 71쪽)

05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③ 정답률 80%

보기

정철과 조존성이 살았던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에는 당파 간 대립과 투쟁이 극심해지면서 정치적 공격을 받은 문인들이 벼슬에서 파직, 유배되거나 산림에 은거하는 등 정계에서 소외된 상태에 놓이는 경우가 잦았다. 이 과정에서 문인들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경계, 처세관, 자연에 몰입하려는 태도 등을 작품에 드러내었다.

정답 풀이

③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이고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중장에서는 당쟁의 상황에서 굳은 마음을 견지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겠군.

➡ '심의산'이 화자의 심회를, '오뉴월'의 '자취눈'이 화자의 복잡한 심정을 비유한 표현이라면, (나)의 초장과 중장은 당파 간의 대립과 투쟁으로 인해 심하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화자의 심리적 정황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당쟁의 상황 속에서 굳은 마음을 지키려는 화자의 의지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풍파'가 험난한 정치 현실이고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라면, (가)의 초장은 당쟁에 휘말린 사람이 정치적 소외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하겠군.

➡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을 함께 이르는 '풍파'가 정치 현실을, '일렁이던 배'가 시련을 겪은 관료를 의미한다면, (가)의 초장 '어디로 갔단 말인가'는 정치적으로 소외된 관료의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구름이 험하거늘'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에 해당하고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신진 관료라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 경험이 충분치 않은 이들에게 정치의 험난함을 알려 주는 것이겠군.

➡ '험한 구름'이 정치적 위기의 조짐을, '허술한 배 두신 분네'가 새로 정계에 나선 신진 관료를 의미한다면, (가)의 종장은 화자가 정치의 풍파 속에서 신진 관료들에게 처신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④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이고 '임'이 임금이라면, (나)의 종장은 온갖 참소를 임금이 잘 판단해 달라는 것이겠군.

➡ '온 놈이 온 말을 하'는 상황이 비방과 모략이 난무하는 현실을, '임'을 임금으로 본다면, (나)의 종장은 화자가 임금에게 참소를 분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⑤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의미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자연과 더불어 지내는 화자의 흥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미늘 없는 낚시'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상징한다면, (다)의 〈제2수〉 종장은 화자가 자연물인 '고기'를 의인화하여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념의 좌표

- 시조(→ 96쪽)
- 출사와 강호한정 사이에서의 갈등 (→ 108쪽)
- 비판(→ 26쪽)
- 자연과 함께 하는 삶(→ 108쪽)
- 비유(→ 46쪽)
- 대화체(→ 23쪽)

06~07 2024학년도 수능

가 김인겸, 〈일동장유가〉

주제 통신사로 일본을 여행하면서 얻은 견문과 감상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영조(1763) 때 문인 김인겸이 지은 장편 기행 가사로, 작가가 통신사의 일원으로 한양을 떠나 일본에 다녀오기까지 약 11개월간의 여정이 담겨 있다.

4음보 1행을 기준으로 약 4,200행에 달하는 이 작품에는 일본의 자연환경, 문물제도, 인물, 풍속, 그리고 각종 사건에 대한 견문과 소감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지식인으로서의 개방적인 시선을 보이면서도, 화이론에 바탕을 둔 주체적 정신과 조선 문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따라 타국의 문화와 풍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 작품은 홍순학의 〈연행가〉와 함께 장편 기행 가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되며, 국문학 자료는 물론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역사 자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지닌다.

장풍(센 바람)에 돛을 달고 육선(기선 셋과 복선 셋)이 함께 떠나
(삼현(송별의 음악 소리)과 군악 소리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룡(물고기와 용)들이 응당히(마땅히) 놀라리라) ( ): 과장법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부산 앞바다에 있는 섬)를 뒤 지우고 : 여정
고국을 돌아보니 야색(밤 경치)이 아득하여
아무것도 아니 뵈고 연해 각진포(육지 가까이 같은 바다에 있는 군영)에
불빛 두어 점이 구름 밖에 뵐 만하다
▶ 환송식과 함께 부산에서 출발함.
배 방에 누워 있어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 심란한데(오랜 여정에 대한 걱정) 대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 천지에 자욱하니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 직유법
(만 석을 실을 만한 큰 배)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
(지면이 움푹 주저앉은 곳)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나뭇가지처럼) 굽어 있고
쉰두 폭 초석(짚으로 만든)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
▶ 바다 가운데서 폭풍을 만남.
(중략)
(날이 마침 극열하고 석양이 비치어서
( ): 여름의 더위를 사실적으로 묘사함.
끓는 땅에 엎디어서 말씀을 여쭈오니
속에서 불이 나고 관대에 땀이 배어
물 흐르듯 하는지라 나라(임금)께서 보시고서)
너희 더위 어려우니 먼저 나가 쉬라시니
(임금의 말을 인용함.)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은이 망극하다
▶ 일본에서 돌아와 임금을 알현함.
더위를 장히 먹어 막힐 듯하는지라
사신들도 못 기다려 하처(손님이 길을 가다가 묵는 집)로 돌아오니
(누이도 반겨하고 딸은 기뻐 우는지라
( ): 귀국 후 가족들이 반기는 모습
일가 친척들이 나와서 위문하네 ▶ 하처에서 일가친척의 위문을 받음.
여드레 겨우 쉬어 공주로 내려가니
처자식들 나를 보고 죽었던 이 고쳐 본 듯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
사당에 현알하고 옷도 벗고 편히 쉬니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일본을 오가며 고생했던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함.)
손주 안고 어르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인이요 성대의 일반이로다(임무를 다한 후 느끼는 편안한 마음을 표현함.)
▶ 집에 돌아와 편안한 일상을 누림.

짜임

제1권	통신사 일행이 일본 친선 사절로 한양을 출발하여 경유지를 거쳐 부산에 도착함.
제2권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마도 등 여러 지역을 거쳐 적간관에 도착하여 머묾.
제3권	적간관 명절을 시작으로 오사카, 교토, 오다와라 등을 거쳐 에도에 도착하여 사행 임무를 수행함.
제4권	귀로에 올라 부산을 거쳐 한양에 돌아와 임금에게 일본 방문 결과를 보고함. 〈수록 부분〉

특징

① 직유법, 대구법, 과장법 등 다양한 표현법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를 실감 나게 묘사함.
② 구체적인 사건, 일자, 수치를 제시하여 상황을 사실적으로 기록함.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여정이 전개되는 추보식, 순행적 구성임.

나 유박, 〈화암구곡〉

주제 향촌 생활의 만족감과 분재에 대한 애정

해제 이 작품은 조선 영조·정조 때의 문인이자 화훼(원예) 전문가인 유박의 《화암수록》에 실린 연시조이다.

유박은 황해도 향촌에서 화원을 가꾸며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꽃을 품평하고, 자신의 취향이 담긴 분재를 만들어 감상하며 풍류를 즐겼는데, 출사하지 못한 선비들이 향촌에 머물며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모습과 자연에서의 삶의 만족감을 그린 강호 시가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자신만의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인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 독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 ]: 화자가 기른 화훼
꼬아 자란 [층석류](석류나무로 만든 분재)요 틀어 지은 [고사매](매화를 고목에 접붙인 분재)라
삼봉 괴석에 달린 솔이 늙었으니
아마도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 〈제1수〉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냄.(의인법))
▶ 제1수: 자신의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류풍 불어온다
긴 파람 짧은 노래 뜻대로 소일하니(출사하지 못하고 소일하며 유유자적하는 삶)
어디서 초동(땔나무를 하는 아이)과 목수(牧叟)(가축을 기르는 늙은이)는 웃고 가리키나니 〈제6수〉
▶ 제6수: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의 회포

맑은 물에 벼를 갈고 청산에 섶을 친 후(자연을 즐기는 모습)
서림 풍우에 소 먹여 돌아오니
두어라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 〈제9수〉
(출사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수용함.)
▶ 제9수: 자신의 삶을 수용하는 태도

짜임

제1수	자신의 취향대로 꾸민 화훼에 대한 자긍심 〈수록 부분〉
제2수	화훼를 하며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
제3수	봄날 술을 마시며 시름을 덜어 냄.
제4수	강호에서의 무욕적인 삶
제5수	강호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
제6수	출사하지 못하고 소일하며 유유자적하는 삶 〈수록 부분〉
제7수	저녁에 술과 거문고를 즐김.
제8수	술과 꽃으로 근심을 덜어 냄.

제9수	출사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수용하는 태도 〈수록 부분〉

특징
① 강호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냄.
②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의 회포와 향촌 생활에서 화훼를 조성하며 사는 삶의 자긍심을 드러냄.

06 표현상 특징

정답 ❷ 정답률 56%

정답 풀이

② (가)는 사물의 형태가 변화한 모습을 묘사하여 외부 환경의 영향력을 부각하고 있다.

➡ 폭풍을 만나 배와 쌍돛대, 초석 돛 등의 사물이 변형된 모습을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열두 발 쌍돛대는 차아처럼 굽어 있고 / 쉰두 폭 초석 돛은 반달처럼 배불렀네'와 같은 비유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과거를 회상하는 표현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 화자는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는 위험한 상황을 지나, 조선에 돌아와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풍도의 험하던 일 저승 같고 꿈도 같다'는 사행(使行) 과정을 회상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나)는 계절을 나타내는 어휘를 활용해 애달픈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제6수〉의 '양류풍(버드나무에 부는 바람)'을 봄과 연계할 수 있지만, (나)는 향촌 생활에 대한 자족감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애달픈 정서를 부각한 것은 아니다.

④ (나)는 두 인물의 행위를 대비하여 대상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제6수〉에 등장하는 '초동(땔나무를 하는 아이)'과 '목수(가축을 치는 늙은이)'는 한가롭게 소일하는 화자를 보고 웃으며 그를 가리키는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다.

⑤ (가)와 (나)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가)의 '기쁘기 극한지라 어리석은 듯 앉았구나'와 (나)의 〈제1수〉에서 '너뿐인가 하노라' 등은 감탄형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개념의 좌표

- 회상(→ 28쪽)
- 애상적 어조(→ 24쪽)
- 대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 69쪽)
- 영탄법(→ 50쪽)
- 경외감(→ 136쪽)

07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❹ 정답률 39%

보기

조선 후기 시가에서는 경험과 외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 〈일동장유가〉는 사행을 다녀온 경험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그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 〈화암구곡〉은 포착된 자연의 양상에 따라 강호에서의 자족감,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데 따른 회포, 취향이 반영된 자연물로 구성한 개성적 공간에서의 긍지를 드러냈다.

정답 풀이

④ (가)는 배에서 '신세'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행길의 복잡한 심사를, (나)는 '청산'에서의 삶에서 느끼는 자랑스러움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여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 '내 신세를 생각하니 / 가뜩이 심란한데'에서 (가)의 화자가 사행길에서 느끼는 복잡하고 불안한 심정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야인 생애도 자랑할 때 있으리라'는 화자가 자신의 향촌 생활을 '야인 생애'로 표현하며 자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겸양의 태도를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배가 '나뭇잎'처럼 파도에 휩쓸리고 하늘에 올랐다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여 대풍을 겪은 체험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는군.

➡ '크나큰 만곡주가 나뭇잎 불리이듯 / 하늘에 올랐다가 지함에 내려지니'는 큰 폭풍으로 인해 배가 요동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② (나)는 화암의 풍경이라 인정할 만한 것이 '너뿐'이라고 하여 자신이 기른 화훼로 조성한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는군.

➡ 〈제1수〉의 초장과 중장은 화자가 취향을 담아 조성한 분재 공간을 묘사하며, 종장에서는 '화암 풍경이 너뿐인가 하노라'라 하여 그 공간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낸다.

③ (가)는 '육선'에 탄 사신단이 만물이 격동할 만한 '군악'을 들으며 떠나는 데 주목해 경험에 대한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모양으로 가꾼 식물에 주목해 외물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는군.

➡ (가)는 사신단의 출항 장면을 통해 웅장한 여정의 경험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나)는 꼬이고 틀어진 식물 묘사를 통해 외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는 집으로 돌아와 한가하게 지내며 '성대'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는 양류풍에 감응하며 '뜻대로 소일'하는 강호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는군.

➡ (가)는 '성대'를 누리는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을, (나)는 자연의 정취를 느끼며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만족을 표현하고 있다.

개념의 좌표

- 기행 가사(→ 100쪽)
- 은일 가사(→ 100쪽)
- 자연과 함께하는 삶(→ 108쪽)
- 생동감(→ 58쪽)
- 출사와 강호한정 사이에서의 갈등(→ 108쪽)

Ⅲ 현대 소설

01 서술자 ❶

확인 문제 p.128~133

바로바로 간단 체크 엇박자 D_ 김중혁 ❶ ○ ❷ X ❸ 1 ❹ 관찰자 ❺ 엇박자 D 카메라와 워커_ 박완서 ❶ ○ ❷ ○ ❸ 1 ❹ 주인공 ❺ 문과 점경_ 이태준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어머니 ❺ 배고픔/허기짐

01 ③ **02** ⑤ **03** ⑤ **04** ④ **05** 훈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의 관점에서 주관적으로 해석되어 독자에게 전달된다. **06** ③ **07** ③ **08** ④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엇박자 D_ 김중혁

1인칭 관찰자 서술자인 '나'가 엇박자 D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고등학교 시절 합창 공연을 망친 일 때문에 큰 상처를 받았던 '엇박자 D'가 자신이 기획한 공연을 통해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서 '음치'들이 상징하는 것은 차별받고 억압받는 '사회적 소수자'들이다.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전체의 조화 속에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토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작가는 서술자 '나'가 엇박자 D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 하나로 통일되지 않는 각각의 노랫소리도 충분히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음을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인물**: 서술자인 '나', 합창 연습에 열정적인 '엇박자 D', 합창단 활동에 무관심한 '음악 선생'과 단원들
- **사건**: 합창단 활동에 무관심했던 '나'를 비롯한 친구들과 달리 엇박자 D는 가장 열정적이었으나, 불협화음을 이루는 엇박자 D에게 음악 선생은 축제 때 노래하지 말 것을 강요함.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고등학교 합창단 활동을 함께했던 엇박자 D의 열정적인 모습을 회상함.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비판적, 회고적, 상징적
- **배경**: 시간–과거 고교 시절/현재(20년 후), 공간–고등학교 교실(과거)
- **주제**: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다름과 차이에 대한 존중에 인색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비판함.
  ② 과거 사건을 회상함으로써 현재 사건의 의미를 재발견함
  ③ 1인칭 관찰자로 등장하는 '나'가 독자의 성찰을 유도함.

| 구성 |

발단	공연 기획자인 '나'는 디브이디(DVD) 화면에서 엇박자로 뛰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가 엇박자 D임을 알아본다.
전개	음치였던 엇박자 D는 고교 시절 합창 활동에 열정적이었지만 공연을 망쳤다는 이유로 음악 선생에게 뺨을 맞는다. 〈수록 부분〉
위기	'나'와 재회한 엇박자 D는 음치들의 노래를 모티프로 한 더블더빙의 공연 컨설팅을 맡아 줄 것을 제안하고, '나'는 이를 받아들인다. 엇박자 D는 고등학교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한다.
절정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엇박자 D는 음치들의 목소리로 고교 시절 합창곡을 들려준다.
결말	아름다운 음치들의 노래에 감동한 친구들은 소리 내지 않고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엇박자 D에 대한 예의를 표한다.

01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소설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안의 서술자인 '나'가 고등학생 시절 합창단을 함께했던 엇박자 D에 대해 보고 들은 일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작품 안의 서술자는 1인칭 관찰자이므로 다른 인물의 속마음을 알 수 없다.
② 서술자 '나'는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④ 서술자는 작품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⑤ 서술자는 작품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정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고 있지도 않다.

02 정답 ⑤

정답 풀이

음악 선생이 22명의 아이들 앞을 걸을 때, 혹시 나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아이들의 노래에 배어났다.

오답 풀이

① 엇박자 D를 대하는 음악 선생의 태도에 대한 '나'의 생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엇박자 D가 음악 선생을 설득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엇박자 D가 합창단 단장에 자원하였다.
④ 합창 단원들이 엇박자 D의 독특한 노래 실력을 포용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03 정답 ⑤

정답 풀이

'나'는 중심인물인 엇박자 D를 옆에서 관찰하는 주변 인물이다. 작가는 '나'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나'의 시선으로 엇박자 D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자가 엇박자 D에 대해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 '나'가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②, ④ 작품 안의 서술자인 '나'는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없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결말을 암시하고 있지도 않다.
③ 1인칭 관찰자인 '나'는 사건을 자신의 눈에 비치는 대로 주관적으로 관찰하여 서술하고 있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카메라와 워커_ 박완서

인물 간의 갈등 구조가 주인공 '나'의 시선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이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와 아픔을 한 가족의 세대 간 갈등과 극복 과정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주인공 '나'는 6·25 전쟁에서 오빠와 올케를 잃고, 조카 훈이를 친아들처럼 키운다. '나'는 오빠를 잃은 경험 때문에 훈이의 안정된 삶에 집착을 하게 되고, '나'와 훈이는 문과와 이과 진로 선택과 취업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는다. 이는 자칫 단순한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바탕에는 전쟁의 상처와 산업화 사회의 부조리가 깔려 있다. 작가는 이로 인해 빚어진 문제를 주인공 '나'의 시선으로 서술하여 가족에 대한 애정과 삶에 대한 애착을 담아 표현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 전쟁으로 오빠를 잃은 경험 때문에 안정된 삶에 집착하는 서술자인 '나', 조카인 '훈이', 훈이를 걱정하는 할머니('어머니')
- **사건**: 조카인 훈이를 친자식처럼 키우던 '나'는 진로 선택 문제를 놓고 훈이와 갈등을 겪음. 훈이는 문과 진학을 희망하지만 결국 '나'의 결정에 따라 이과로 진학함.
- **서술자의 태도**: 훈이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관한 자신의 주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함.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비판적, 사실적
- **배경**: 시간–1970년대 산업화 시기, 공간–서울
- **주제**: 6·25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의 좌절과 산업화 시대의 문제점
- **특징**: ①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② 당대 사회 현실을 1인칭 서술자를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함.

| 구성 |

발단	6·25 전쟁으로 오빠 부부가 죽고, '나'와 어머니는 조카 훈이를 데리고 남쪽으로 피란을 간다.
전개	'나'는 진로 선택 문제와 해외 취업 문제를 놓고 훈이와 갈등을 겪지만, 결국에는 '나'의 생각대로 결정한다. 〈수록 부분〉
위기	'나'의 노력으로 훈이는 고속 도로 건설 현장 측량 기사보 자리에 취직하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된다.
절정	'나'는 훈이가 취직한 고속 도로 건설 현장에 가서 훈이의 고된 생활을 목격하고, 훈이에게 서울로 돌아가자고 권유하지만 훈이는 이를 거절한다.
결말	'나'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훈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내린 자신의 결정에 혼란을 느낀다.

04

정답 ④

정답 풀이

'나'가 오빠(훈이의 아버지)를 사회의 병폐로 인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훈이의 진로 선택 동기로 직접 작용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훈이가 '나'와 상의하지 않고 문과를 선택한 사실이 갈등의 발단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어머니가 지레 겁을 먹자 겉으로는 훈이의 편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불안과 생각에 공감하고 있었으므로 적절하다.
③ '나'는 훈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담임에게 부탁해 전과를 시킨 뒤, 나중에 훈이를 설득하려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훈이는 '나'의 뜻에 따라 이과로 전과했으나, 이후 성적이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05

정답 풀이

이 소설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에서 훈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나'가 느끼는 대로 서술하고 있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나'는 훈이가 이과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며, 문과에 진학하여 상대나 법대로도 풀릴 수 있지만 이는 쉽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오히려 '나'는 훈이가 현실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먼 문학이나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될까 봐 염려하고 있으므로, 훈이가 문과를 선택해 상대나 법대로 진학하기를 바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② '나'는 조카인 훈이가 사회 구조에 순응하며 이과를 선택하고, 큰 기업체에 취직해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다.
④, ⑤ '나'는 '사람이 어떡허면 편하고 재미나게 사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은 왜 사나'와 같이 쓸데없는 생각을 부추기는 문과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07~08 개념으로 작품 읽기

점경_ 이태준

초점 화자인 어린 소년의 시선에서 당대 사회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소설은 1930년대 근대화·도시화된 경성을 배회하는 헐벗은 아이의 시선을 통해 당대의 풍경을 보여 준다.

화신 백화점에서 진열창 앞을 기웃거리다가 게이트 보이에게 쫓겨난 '아이'는 자기의 다리가 불편한 것도 모른 채 목적지 없이 떠돌다 탑동 공원에 들어간다. 이곳에서 아이는 과일을 사 먹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며 자신이 몰랐던 사실들을 알아가고, 근대화된 도시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작가는 이러한 '아이'의 시선을 통해 근대화와 도시화된 경성이 지닌 부정적인 측면과 도시의 비인간성을 드러내며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초점 화자
- **시점**: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탑동 공원을 배회하며 허기를 느끼는 '아이', 과일을 사 먹는 '양복 신사', 사과 껍질을 씹어 먹는 또 다른 '아이'

• **사건**: '아이'는 상품 진열창 안의 과자 곽들을 보며 어머니를 떠올림. 탑동 공원에서 과일 껍질을 깎는 양복 신사와 그 껍질을 씹는 아이를 보며 배고픔을 느낀 '아이'는 수염이 달린 어른에게 배 껍질을 얻어먹으려 했지만 멸시를 당함.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근대화된 경성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려 내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사실적, 비판적
• **배경**: 시간–1930년대 일제 강점기, 공간–경성
• **주제**: 근대화가 초래한 도시의 문제점과 인간다움의 상실
• **특징**: ① 특정 인물의 시각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함.
② 근대화된 환경에서의 인간 소외와 빈부 격차를 통해 도시화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함.

| 구성 |

발단	한 아이가 화려한 화신 백화점 진열창 앞에서 그 안을 기웃거리다 쫓겨난다. 과자 곽들과 과일을 보며 가난하게 생활했던 과거와 죽은 어머니를 회상한다. 〈수록 부분〉
전개	아이는 공원에서 사과를 깎는 신사와 껍질을 기다리는 아이를 보고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며 굶주림을 느낀다. 〈수록 부분〉
위기	아이가 배 껍질이라도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눈치챈 신사는 일부러 껍질을 짓이기고, 아이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수록 부분〉
절정	서양인 남녀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을 찍으며 구경하듯 행동하고, 여자가 은전 한 닢을 던지자 사람들이 달려들어 결국 한 어른이 돈을 가로챈다. 아이는 그 광경을 보며 세상의 부조리와 차별, 인간의 탐욕을 느낀다.
결말	혼란 속에서 아이는 공원지기와 순사에게 쫓기다 달아나며, 불안하고 냉혹한 세상 속에 홀로 남겨진 자신의 처지를 깨닫는다.

07

정답 ③

정답 풀이
서술자는 '아이'에 초점화하여 아이'의 시선과 생각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서술자가 교체되는 부분은 없다.
② 이 글에는 간접 인용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④ 이 글의 서술자는 '아이'에 초점화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체험을 진술할 수 없다.
⑤ 이 글에서 서술자가 동시적 사건을 병치하여 드러낸 부분은 없다.

08

정답 ④

정답 풀이
아이가 '배를 사서 깎는 사람'을 보며 '뛰는 가슴을 진정하지 못'한 것은 자신도 아까 본 '자기보다도 더 헐벗은 아이'처럼 배 껍질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이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상품의 향유가 가능한 어른이 채워 주리라는 기대에서 비롯된 행동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아이는 공원에서 실과를 보고도 먹고 싶다는 욕심을 내지 않는데 이는 화신 백화점 진열창에서 과자 가격을 보며 돈이 없어서 상품을 향유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결과이다. 이는 자신을 상품의 향유가 불가능한 부류로 규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③ 양복 신사는 상품의 향유가 가능한 부류, 그 밑에서 사과 껍질을 받아먹는 아이는 그렇지 않은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⑤ '여덟팔자수염'을 한 어른은 아이가 배 껍질이라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구둣발로 짓이기어 못 먹게 하는데, 이는 상품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도시의 비인간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2 서술자 ❷

확인 문제 p.137~141

바로바로 간단 체크 고향_ 현진건 ❶ ○ ❷ X ❸ 1 ❹ 관찰자 ❺ 공감대 돌다리_ 이태준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땅 암소_ 이문구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공업 단지 ❺ 비판적

01 ⑤ **02** ④ **03** ⑤ **04** ⑤ **05** ② **06** ①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고향_ 현진건

'그'에 대한 서술자 '나'의 심리와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인 1920년대 중반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 '나'가 기차 안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그'에게서 들은 사연에는 당대 조선의 농촌 공동체가 파괴된 과정과 식민지 현실이 개개인의 삶을 짓밟는 모습이 사실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액자식 구성을 통해 강렬한 현실 고발 정신을 드러내며 사실주의 문학의 전형을 보여 준다.

기차 안에서 '그'와 대화를 나누게 된 '나'는 첫인상만으로는 '그'를 탐탁지 않게 여기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짙은 동정과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된다. 두 인물이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다가가는 과정을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인물**: 서술자인 '나',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그'
• **사건**: '나'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됨.
• **서술자의 태도**: '나'는 '그'를 보고 처음엔 경계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시 조선의 현실과 조선인들의 비참한 삶을 재인식하고 마침내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

| 작품 개요 |
• **갈래**: 단편 소설, 액자 소설
• **성격**: 사실적, 현실 고발적
• **배경**: 시간–일제 강점기, 공간–서울행 열차 안
• **주제**: 일제 강점기 우리 농민(민중)의 참혹한 생활상
• **특징**: ① 서술자의 이야기 속 '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액자식 구성을 취함.
② 실제 지명과 기관명을 사용하여 당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전달함.

| 구성 |

발단	'나'는 서울행 기차에서 동양 삼국의 복장을 입고 천박한 행동을 하는 '그'를 만난다.
전개	'그'와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고향을 떠난 사정을 듣게 된다. 〈수록 부분〉
위기	'나'는 과거에 대구 근교의 평범한 농민이었던 '그'가 농토를 잃고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을 했음을 알게 된다.
절정	'그'가 오랜만에 돌아간 고향은 폐허가 되었고, 자신과 혼담이 있었던 여인을 우연히 만난 기구한 인생사를 듣게 된다.
결말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함께 술을 마시고, '그'는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부른다.

01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작품 안의 서술자인 '나'가 '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등장인물의 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 '나'는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그'의 과거 경험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나'는 '그'에게 느낀 연민과 슬픔의 정서를 독백적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③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는 다른 인물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없으므로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는 멀다.

④ '나'는 '그'의 속마음을 추측하며 '그'를 위로하는 우호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2

정답 ④

정답 풀이

서술자 '나'는 고된 유랑 생활을 해 온 '그'의 사연을 들으며 안타까움과 연민을 느낀다. 그러나 ㉣은 '그'의 과거 행적을 나타낸 서술일 뿐, ㉣에서 '나'의 연민이나 슬픔의 정서는 드러나지는 않는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돌다리_ 이태준

땅을 둘러싼 인물들의 가치관을 비교하고 인물의 유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일제 강점 말기인 1943년에 발표되었으며, 물질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의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나 있다.

아들인 '창섭'은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제안하지만 아버지는 땅이 천지 만물의 근거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대한다. 작가는 아버지의 말을 통해 토지의 본래적 가치보다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사회의 가치관을 비판한다. 이러한 작가의 생각은 '돌다리'라는 소재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버지는 '돌다리'를 가족과 선조들의 인연이 닿아 있는 사물로 인식해, 이를 꾸준히 보수한다. 아버지의 이런 행동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에서 꿈을 잃지 않고 민족성을 지키려는 의지의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하며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아버지, 물질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아들
- **사건**: 돌다리 보수와 시골 땅을 파는 문제를 둘러싸고 아버지와 창섭이 갈등을 겪음.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돌다리'와 '땅'에 관한 아버지의 말을 통해 땅의 전통적이고 본래적인 가치보다 금전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근대 자본주의를 비판함.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사실적, 교훈적, 비판적
- **배경**: 시간–일제 강점기, 공간– 농촌 마을
- **주제**: 땅을 둘러싼 신구 세대 간의 갈등과 물질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전통적인 가치관과 근대적인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줌.
  ② 근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냄.
  ③ 인물 간의 대화와 요약적 제시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함.

| 구성 |

발단	서울의 권위 있는 내과 의사인 창섭은 병원을 크게 늘리기 위해 부모님이 계신 시골의 농토를 팔려는 생각으로 고향에 내려온다.
전개	창섭은 땅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마을로 향하다가 마을 입구에서 돌다리를 고치는 아버지를 만난다. 〈수록 부분〉
위기	창섭은 아버지에게 병원 확장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팔자고 설득한다. 〈수록 부분〉
절정	아버지는 창섭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죽기 전에 땅을 농민에게 넘기겠다는 말을 하고, 창섭은 자신의 세계와 아버지 세계의 결별을 느끼며 서울로 돌아간다. 〈수록 부분〉
결말	아버지는 다음날 고쳐 놓은 돌다리에 나가 세수를 하면서 땅을 지키는 삶이 천지자연의 이치임을 되새긴다.

03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가 인물의 외면과 내면을 모두 파악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는 멀다.

오답 풀이

①, ③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거리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②, ④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04

정답 ⑤

정답 풀이

'아버지'는 땅을 팔자는 '창섭'의 제안에 고민하지만, 결국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가족의 역사가 담긴 땅에 대한 애착을 바탕으로 땅을 팔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따라서 '아버지'는 평면적이고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암소_ 이문구

황 씨와 마을 사람들의 인물 유형과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 농촌 공동체가 근대화의 과정에서 해체되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 황 씨는 소창직 직조 사업을 시작해 한때 성공을 거두지만, 산업 구조의 변화와 값싼 기계의 등장, 도시 공장의 확대, 미비한 정부 정책 등 외부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결국 사업에 실패한다. 이후 암소를 길러 빚을 갚으려 하지만 이마저도 좌절된다. 작가는 이러한 문제를 특유의 해학적이면서도 토속적인 문체로 날카롭게 비판한다.

이 작품은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을 다루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도시화와 산업화, 시장 경제의 확산 속에서 농촌 사회 전체가 겪는 구조적 문제와 몰락의 과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독자들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과 공동체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인 고통을 깊이 성찰하도록 이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실패를 연달아 경험하며 좌절하는 황 씨(황구만), 고랏댁(황 씨의 아내), 암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 사람들
- **사건**: 황 씨는 돈을 빌려 옷감 공장을 세워 운영하지만 읍내에 공업 단지가 생기고 합성 섬유가 유행하면서 공장 문을 닫게 됨. 이후 황 씨는 돈을 갚기 위해 암소 한 마리를 정성 들여 키우지만 암소가 술을 먹고 죽자 좌절함.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잇따라 실패를 겪는 비극적인 황 씨의 모습을 통해 농촌 사회의 급격한 변모로 농민들이 겪는 경제적 소외와 갈등, 농촌의 몰락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농촌 소설
- **성격**: 비판적, 사실적, 향토적, 토속적
- **배경**: 시간–1960년대 초반, 공간–충청도 어느 농촌
- **주제**: 산업화 사회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겪는 힘겨움
- **특징**: ① 산업화 사회로 변해 가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중심인물인 황 씨를 통해 드러냄.
  ②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빠르게 변해 가는 사회상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함.
  ③ 방언과 비속어를 활용하여 생동감과 향토성을 부여함.

| 구성 |

발단	박선출과의 언쟁으로 황구만(황 씨)은 언짢아한다.
전개	과거 선출은 군 입대로 황 씨에게 돈 팔만 원을 맡기고, 선출이 맡긴 돈으로 황 씨는 소창직 가내 공장을 시작한다. 〈수록 부분〉
위기	읍내 공업 단지 조성으로 가내 공장이 문을 닫게 되고, 사업에 실패한 황 씨는 암소를 키워 돈을 갚기로 한다. 〈수록 부분〉
절정	황 씨와 선출은 계약 하에 지극정성으로 암소를 키워 내고 암소는 송아지를 배게 된다. 그러나 암소가 광에 놓여 있던 술독을 비우고 술에 취해 쓰러진다. 〈수록 부분〉
결말	암소는 결국 죽고, 황 씨와 선출은 망연자실하며 울부짖는다. 〈수록 부분〉

05 정답 ②

정답 풀이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며 황 씨를 비롯한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서술자가 직접 관찰한 사건을 전달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므로 서술자는 주인공이 아니다.
④ 하나의 서술자가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⑤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서 인물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6 정답 ①

정답 풀이

㉠은 공임을 올려 받거나 다른 공장으로 옮겨가기 위해 황 씨에게 항의하며 고의로 갈등을 조성하였지만, ㉡은 황 씨의 암소가 죽지 않도록 힘을 모아 돕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있지만, ㉡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협력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은 원하는 바를 황 씨에게 직접적으로 요구함으로써 노동 조건을 좋게 하고자, ㉡은 암소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여 암소를 살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④ ㉠은 장래성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황 씨에게 항의하고, ㉡은 황 씨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소를 살리고자 하고 있다.
⑤ ㉠은 겉과 속이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은 암소를 살리는 데 실패하자 속으로 암소를 잡으면 싼값에 고기를 살 수 있겠다는 실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03 서술상의 특징 ❶

확인 문제 p.146~151

바로바로 간단 체크 유자소전_ 이문구 ❶ ○ ❷ X ❸ 1 ❹ 관찰자 ❺ 비단잉어 눈길_ 이청준 ❶ ○ ❷ ○ ❸ 1 ❹ 주인공 ❺ 사랑 과녁_ 이청준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상처 ❺ 양면성

01 ④ **02** ② **03** ⑤ **04** ① **05** 요약적 **06** ③ **07** ④ **08** ③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유자소전_ 이문구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과 풍자·해학 등 글에서 사용된 서술 방식을 확인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인물의 평생의 행적을 기록하는 전(傳)의 형식으로 '유재필(유자)'이라는 인물의 성품과 일생을 친구인 '나'의 시선에서 소개하고 있다. 사투리를 사용하여 향토적 정서를 강화한 점, 그리고 희극적 상황의 설정과 사건 전개 등은 전통적인 서사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착한 성품을 가진 유자가 다소 전근대적이고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함으로써 작가는 사치심과 이기

심에 젖어 허황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의 자세를 풍자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의 혼용 (수록 부분)
- **인물**: 친구 유재필을 '유자'라 부르는 서술자인 '나', 생각이 깊고 곧은 성격의 유재필(유자), 거만하고 위선적인 총수
- **사건**: 유자가 군 제대 후 재벌 총수의 운전사로 일하던 어느 날 총수가 새로 들여온 비단잉어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당함. 그러자 총수는 그의 운전사로 일하던 유자를 의심함.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인 '나'는 친구인 유재필을 '유자'라고 부를 만큼 성인군자를 대하듯 존경하며 그의 인품을 훌륭하게 여김.

| 작품 개요 |

- **갈래**: 단편 소설, 현대 소설
- **성격**: 전기적, 비판적, 풍자적, 해학적
- **배경**: 시간–1970년대, 공간–서울
- **주제**: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세태 비판
- **특징**: ① '전(傳)'의 형식을 활용함.
  ②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냄.
  ③ 풍자와 해학적 표현, 비속어 등을 통해 비판적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함.

| 구성 |

발단	'나'의 친구인 유재필은 매사에 생각이 깊고 곧은 성품을 지녔으며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인물로, '나'는 그를 성인군자를 대하는 기분으로 그를 '유자'라고 부른다. 〈수록 부분〉
전개	유자는 특유의 붙임성과 눈썰미로 학교에서 명물로 이름을 날린다. 졸업 후에는 선거 운동원과 의원 비서관 등을 지내다가 제대한 후 총수의 집에서 운전기사로 지내게 되지만, 유자는 총수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 한다. 〈수록 부분〉
절정·결말	총수에게 쫓겨난 유자는 그룹 소속 차량의 모든 교통사고를 뒤처리하는 노선 상무가 되는데, 그곳에서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간다. 말년에는 종합 병원 원무실장으로 근무하며 6·29 선언 때 시위를 하다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사표를 낸 후 간암으로 생을 마감한다.

01

정답 ④

정답 풀이

ㄴ. 방언을 사용하는 유자의 모습에서 인물의 개성적 면모와 토속적 정감을 느낄 수 있다.

ㄹ. 글의 앞부분에서 작품 속 서술자인 '나'가 중심인물인 '유자'를 평가하며 인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ㄷ.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유자의 행적과 그의 인품을 소개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거나 서사의 현장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02

정답 ②

정답 풀이

유자는 서민들의 수준에서는 상상도 못할 비싼 값을 치르고 비단잉어를 구입한 총수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총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3

정답 ⑤

정답 풀이

[A]는 '뱉어낸벤또(베토벤)', '차에코풀구싶어(차이콥스키)'와 같은 발음의 유사성과 비꼬는 말투를 사용한 언어유희로 총수의 허영심을 풍자하고 있고, 〈보기〉는 '개잘량이라는 ~ 나오신단 말이오'에서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로 양반을 풍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②, ④ 〈보기〉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의 행태를 풍자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인물의 외양 묘사나 영탄적 어조를 통해 상황의 비극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③ [A]와 〈보기〉 모두 간접 인용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눈길_ 이청준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과 인물의 심리 변화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집안이 몰락하자 피해의식으로 어머니를 외면하던 '나'가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절절한 사랑을 깨닫고 어머니와 화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의 집안이 몰락한 일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며 어머니에 대한 '나'의 무심한 태도가 드러난다. '나'는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나'가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깨닫고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갈등은 해소된다. 또한 '옷궤', '눈길' 등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음을 얻는 서술자 '나', 어머니(노인), 어머니에게서 옛이야기를 유도하는 아내
- **사건**: '나'는 과거에 홀로 눈길을 돌아오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림.
- **서술자의 태도**: 어머니에게 무심했던 '나'는 고향에 내려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에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함.

| 작품 개요 |

- **갈래**: 단편 소설, 현대 소설
- **성격**: 회고적, 상징적, 서정적
- **배경**: 시간–1970년대, 공간–시골
- **주제**: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그로 인한 인간적 화해
- **특징**: ① 과거 회상과 현재를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사용함.
  ②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구성 |

발단	고향집에 온 '나'가 내일 아침에 올라가겠다고 하자 어머니는 아쉬워하지만 곧 체념한다.
전개	학창 시절 집이 몰락한 후 어머니와 '나'는 서로 주고받은 것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에게 진 빚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머니가 집을 고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자 '나'는 이를 외면한다. 〈수록 부분〉

위기	'나'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아내는 어머니에게 옛집과 관련된 과거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어머니와 마지막 밤을 보냈던 날을 떠올린다.
절정	'나'는 어머니가 아내에게 '나'가 떠난 뒤 홀로 눈길을 되돌아오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수록 부분〉
결말	어머니의 애틋한 사랑을 깨달은 '나'는 죄책감에 눈물을 흘린다. 〈수록 부분〉

04

정답 ①

정답 풀이

과거 홀로 눈길을 돌아가던 어머니의 이야기와 아들을 향한 진심을 아내와 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장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1인칭 주인공인 '나'의 시선으로 일관되게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③ '나'의 과거 회상이 나타나지만 뒷부분에서 '나'의 깨달음으로 인물 간의 갈등이 오히려 해소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개입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상황에 대한 인물의 비관적인 인식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05

정답 요약적

정답 풀이

요약적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이나 과거의 사건 등 핵심적 내용을 요약하여 전달하는 서술 방식으로, 이를 통해 독자는 서사의 전개 속도가 빠르다고 느낄 수 있다. [A]에서 서술자인 '나'는 집안의 내력에 대해 집약적으로 제시하여 독자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어머니의 말에서는 눈길을 홀로 돌아가며 발자국, 산비둘기, 나무 등을 바라본 모습과 함께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마음이 드러날 뿐, 자신의 처지에 대한 걱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어머니(노인)와 '나'는 형의 주벽으로 집안이 몰락한 뒤, 어머니는 부모의 역할을 못했고 '나'도 자식 도리를 못 하여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처지가 되었다.
②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통해 눈길을 홀로 돌아갔던 어머니의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
④, ⑤ '나'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지만 잠든 척하며 일어나지 않는 모습에서 '나'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7~08 개념으로 작품 읽기

과녁_ 이청준

인물의 유형과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소설은 검사인 석주호가 북호정 노인에게 활을 배우면서 벌어진 사건을 담고 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활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대한다. 활쏘기를 '솜씨'로 바라보는 인물(지역 유지들)은 기술을 자랑하며 활쏘기를 과시하거나 이기기 위한 수단이자 흥미의 대상으로 대한다. 반면 활쏘기를 '궁도'로 바라보는 인물(노인, 여인)은 활쏘기를 남에게 보여 주는 수단이 아닌 자기 수양의 과정으로 여긴다. 그리고 이 작품에는 솜씨로 바라보는 태도와 궁도로 바라보는 태도를 넘나들며 활쏘기를 대하는 양면적인 인물(석주호)도 나타난다. 서술자는 작품 밖에서 인물 간의 대화와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는 방식을 통해 활쏘기라는 전통적 가치를 대하는 여러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석주호, 노인, 여인(노인의 딸), 소년, 지역 유지들
- **사건**: 활쏘기를 먼저 배운 석주호가 지역 유지들을 북호정에 부르지만, 그들은 노인의 딸에게 관심을 보이며 활쏘기 시범을 요청해 흥밋거리로 전락시키고, 이로 인해 노인과 노인의 딸은 상처를 받음.
- **서술자의 태도**: 석주호는 노인에게 활을 배우며 활쏘기를 자기 수양으로 생각하는 노인의 가치관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활쏘기를 대상화할 수 있는 기술로 보기도 하는 양면성을 보임.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비판적, 성찰적, 상징적
- **배경**: 시간–1960년대, 공간–시골 마을
- **주제**: 활쏘기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벌어지는 갈등과 그것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 내면의 성찰
- **특징**: ① 활쏘기를 자기 수양의 과정으로 보는 전통적 관점과 과시·흥미의 대상으로 보는 현대적 관점을 대비함.
  ② 인물들의 대조적 태도와 시각을 통해 활쏘기의 본질과 가치관의 차이를 드러냄.
  ③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석주호)의 시선으로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여 주제를 간접적으로 전달함.

| 구성 |

발단	초여름 새벽, 정자 '북호정' 뜰에서 노인과 젊은 여인이 교대로 활을 쏘고 소년이 부채로 판정 동작을 한다.
전개	석주호 검사는 우연히 이들의 활쏘기 연습을 목격하고 매료되어 노인에게 활쏘기를 배우기 시작한다. 〈수록 부분〉
위기	활쏘기를 먼저 배운 석주호는 지역 유지들을 북호정에 불러 함께 활쏘기를 배우려 한다. 그들은 활쏘기를 보여 주기식 기술로만 여기며 노인의 딸에게 활쏘기 시범을 강요한다. 〈수록 부분〉
절정	노인은 궁도를 잊고 단지 흥밋거리가 되어버린 상황에 대해 자괴감과 분노를 느끼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한다. 석주호는 자신을 성찰하며 노인의 지도에 순응하고 궁도를 따르려 한다. 〈수록 부분〉
결말	석주호는 노인의 허락에 활을 쏘지만 소년의 판정 동작을 눈여겨 보지 못하고 과녁이 아닌 소년을 맞히고, 소년이 쓰러진다.

07

정답 ④

정답 풀이

[A]와 [B]는 석주호라는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내면을 서술하여 석주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⑤ [A]와 [B]에서 인물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고조하고 있지는 않다.

08

정답 ③

정답 풀이

석주호가 엄숙하고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것은 여인의 활쏘기 시범을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행동을 노인을 돕고자 하는 의지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석주호가 물건이라도 그럴듯한 것을 지니고 있는 게 나을 법했다고 생각한 것에서 내력이 있는 활을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알 수 있다.

⑤ 노인의 의연한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는 석주호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04 서술상의 특징 ❷

확인 문제

p.156~161

바로바로 간단 체크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_ 조세희 ❶ ○ ❷ ○ ❸ 1 ❹ 주인공 ❺ 계고장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_ 성석제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실종 ❺ 황만근

하얀 배_ 윤후명 ❶ ○ ❷ ○ ❸ 1 ❹ 주인공 ❺ 이식쿨 ❻ 민족의 말

01 ④ **02** 간결체, 감정을 절제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다. / 사건에 긴장감을 부여할 수 있다. /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03** ③ **04** ④ **05** ③ **06** 군, 보이더라칸께 **07** ⑤ **08** ② **09** ③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_ 조세희

난쟁이 일가가 처한 현실을 현장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 작가가 활용한 서술 방식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1970년대의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

'난쟁이' 일가로 설정된 중심인물, 환상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의 도입, 간결한 문장의 사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투기를 일삼는 부도덕한 부유층과 최저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빈민층의 삶을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동화와는 달리, 결말이 주인공의 패배로 끝나게 됨으로써 동화의 일반성을 벗어나고 절망적 삶과 동화적 분위기의 부조화가 나타난다. 이를 통해 당시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의 현실과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그려지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 한 가정의 장남인 서술자 '나'(영수)와 '나'의 가족(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 **사건**: 가난하게 살아온 '나'의 가족은 어느 날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 계고장을 받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함.
- **서술자의 태도**: '나'는 하루하루 힘겹게 살며 아버지를 비롯해 가난한 삶을 살아온 자신의 가족에게 연민을 느낌.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연작 소설
- **성격**: 사회 고발적, 비판적
- **배경**: 시간–1970년대, 공간–서울의 재개발 지역
- **주제**: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된 꿈
- **특징**: ①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도시 빈민의 비극적 삶을 강조함.
  ② 서술 주체에 변화를 주어 주제를 강조함.
  ③ 현재와 과거의 시점이 교차되어 구성됨.

| 구성 |

제1부	서술자는 영수. 난쟁이 일가는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낙원구 행복동의 도시 빈민이다. 그들은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지만 재개발 사업으로 집이 철거될 위기에 처한다. 〈수록 부분〉
제2부	서술자는 영호. 행복동 주민들은 대부분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난쟁이 일가도 끝내 입주권을 팔지만, 제몫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고 집이 철거당한 뒤, 결국 거리로 나앉을 처지가 된다.
제3부	서술자는 영희. 가족으로부터 입주권을 구입한 투기업자를 따라간 영희는 투기업자에게 순결을 빼앗긴다. 투기업자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금고 안에서 입주권과 돈을 들고나와 입주 절차를 마치지만,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듣고 사회를 향해 절규한다.

01

정답 ④

정답 풀이

이 글에서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철거될 위기에 놓인 난쟁이 일가의 상황을 간결한 문체와 인물 간의 대화를 활용해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문어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대화를 통해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족들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② 난쟁이 가족의 일원인 '나'가 서술자로 등장하여 자신의 생각과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온 아버지와 '나'의 가족에 대한 설명을 간결한 문체를 통해 감정을 절제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천국'과 '지옥'이라는 대조적 의미의 단어를 활용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난쟁이 일가의 힘든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02

정답 풀이

[A]에서는 호흡이 짧은 문장인 간결체를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간결체는 감정을 절제하여 전달할 때나 사건의 긴장감을 부여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할 때 주로 사용한다.

03

정답 ③

정답 풀이

이 글의 '어머니'는 철거를 앞두고 알루미늄 표찰을 떼며 체념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고, 〈보기〉의 '그 여자'도 철거를 앞둔 인부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말없이 밖을 내다보고 있으므로 두 인물 모두 현실 저항적 태도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이 글은 재개발 사업으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가족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리고 있고, 〈보기〉는 인부들의 목소리 너머 삶의 터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도시 빈민의 상황을 그리고 있다.

② 〈보기〉에서는 인부들의 대화를 통해 철거를 해야만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현장감 있게 나타나고 있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_ 성석제

이 글에서 풍자와 해학성을 높이는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고 한 인물을 바라보는 다른 인물들의 태도를 비교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1990년대 아이엠에프(IMF) 경제 위기를 맞은 농촌 현실을 배경으로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풍자와 함께 암울한 농촌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작품은 '황만근'의 생애를 따라가는 형식으로 전개된다. 향토적이고 구수한 방언, 우스꽝스러운 인물의 행동에서 비롯된 해학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는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풍자 등이 두드러진다. 특히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일에도 진심을 다하는 황만근과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는 마을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그려 냄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황만근의 인품을 알아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민 씨, 실종된 황만근을 염려하는 황재석과 달리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이장, 황동수)
- **사건**: 황만근의 실종 소식에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집에 모여 이야기함.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민 씨를 통해 어수룩하지만 자기희생적인 인물인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마을의 궂은일을 도맡는 황만근을 무시하며 바보 취급하는 이기적인 마을 사람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봄.

| 작품 개요 |

- **갈래**: 단편 소설, 농촌 소설
- **성격**: 풍자적, 해학적, 향토적
- **배경**: 시간–1990년대 말, 공간–신대리(농촌 마을)
- **주제**: 황만근의 생애와 그의 행적, 부채로 얼룩진 농촌의 현실 고발과 이기적인 세태 비판
- **특징**: ① 전의 양식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이기적인 현대인의 삶을 비판함.
  ② 해학적 표현을 통해 농촌의 현실을 고발함.
  ③ 비속어와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성이 나타남.

| 구성 |

발단	황만근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집으로 모이지만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민 씨뿐,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수록 부분〉
전개	황만근은 어려서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행동이 엉뚱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아 왔으나, 실상은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들을 정성을 다해 돌보며 마을의 온갖 궂은일을 도맡아 한다.
위기	농민 궐기 대회를 앞둔 전날 밤 이장은 황만근에게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참가할 것을 당부한다.
절정	황만근은 민 씨와 술을 마시며 큰돈을 벌기 위해 무리해서 농사를 짓고 그러다 빚을 내는 이웃들의 태도를 비판한다. 그러고는 민 씨가 잠든 사이에 경운기를 몰고 군청으로 떠나고 그 후로 돌아오지 않는다.
결말	결국 황만근이 죽어서 돌아오고, 경운기를 몰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사실이 밝혀진다. 민 씨는 황만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묘비명을 쓰고 다시 도시로 돌아간다.

04

정답 ④

정답 풀이

이 글은 방언과 비속어를 사용하여 토속적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며 현장감을 높이고 있다.

05

정답 ③

정답 풀이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황재석은 황만근의 실종엔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를 걱정하고, 민 씨는 황만근의 실종의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민 씨는 궐기 대회 전날 이장이 황만근을 따로 불러낸 것을 기억하고 그를 추궁하고 있다.

④ 황동수는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⑤ 이장은 황만근의 실종으로 소여물도 주지 못한 채 황만근의 집에 모인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06

정답 군, 보이더라칸께

정답 풀이

'군 전체 사람이 ~ 안 보이더라칸께.'에서 이장은 황만근이 '반그이는 돼지고기 반 근만 해서' 안 보인다며 언어유희를 활용해 그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7~09 개념으로 작품 읽기 — 하얀 배_ 윤후명

인물의 심리가 묘사되는 방식과 소재의 의미에 집중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고려인의 삶을 통해 민족어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중편 소설이다.

'나'는 취재 차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면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이 힘든 삶 속에서도 모국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고국에 대한 그리움과 한국말을 배우는 과정을 담은 '말 배우는 아이'라는 글을 쓴 고려인 소녀 '류다'를 만나길 희망한다. 여러 어려움 끝에 마침내 이식쿨 호수에서 류다를 만난 '나'는 그녀의 평범한 인사말에서 전율을 느끼고, 이 과정에서 감각적이고 섬세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그려 낸다. 또한 '나'는 그녀를 만나 하얀 배를 떠올리게 되는데, '하얀 배'는 이식쿨 호수를 배경으로 한 소설 작품이자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한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 중앙아시아 여행 중 고려인의 고된 삶과 민족어의 소중함을 깨닫는 서술자인 '나', 고려인 미하일, 조국을 동경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고려인 소녀 류다
- **사건**: '나'는 취재 차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며 미하일에게 이식쿨 호수에 대해 듣고, 고려인 소녀 '류다'를 만남.
- **서술자의 태도**: '나'는 중앙아시아를 여행하며 강제 이주된 고려인 동포들이 힘든 삶 속에서도 모국어를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고 민족과 민족어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으며 감격함.

| 작품 개요 |

- **갈래**: 중편 소설, 여로형 소설
- **성격**: 회상적, 묘사적
- **배경**: 시간–1990년대 소련 붕괴 직후, 공간–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 **주제**: 중앙아시아에서 발견한 민족의 얼과 한국어의 소중함
- **특징**: ① 사건의 흐름이 여행의 흐름과 일치하는 여로형 소설임.
  ② 상징적 소재를 통해 주제 의식을 나타냄.
  ③ 이국의 풍광을 감각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 냄.

| 구성 |

발단	'나'는 러시아 취재 여행을 계획하던 중 류다의 글(사이프러스 나무를 매개로 한 '말 배우는 아이'라는 제목의 글)을 접하게 된다. '나'는 러시아로 가는 도중 류다를 만나기 위해 카자흐스탄으로 향한다.
전개	'나'는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하고, 류다가 사는 곳과 '하얀 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위기	'나'는 류다의 오빠 친구인 미하일과 이 씨 성을 가진 스타니슬라브와 함께 키르기스스탄의 이식쿨 호수를 찾아간다. 〈수록 부분〉
절정	'나'는 우여곡절 끝에 이식쿨 호수에 도착하게 되지만, 호수를 보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는다. 〈수록 부분〉
결말	'나'는 갑작스럽게 이식쿨 호수에서 우리말로 인사하는 류다를 만난 후 깊은 감동을 받고, 천산에서 '하얀 배'를 발견한다. 〈수록 부분〉

07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은 섬세한 묘사와 감각적 문체를 통해 인물의 내면과 자연 풍광을 서정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키르기스말로 이식쿨의 이식은 뜨겁다는 뜻이며…'처럼 현지어 의미 설명이 있을 뿐, 토속어를 사용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표현상의 특징은 나타나지 않는다.

08 정답 ②

정답 풀이

'하얀 배'는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을 상징하는 것으로, 중앙아시아 동포들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서정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09 정답 ③

정답 풀이

[A]에서는 자연물에 대한 감각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을 뿐, 인물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④, ⑤ '나'가 류다를 만나 인사말을 듣고 받게 된 감동을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의 활용과 자연물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 상상적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쉼표를 사용한 긴 문장으로 이식쿨 호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05 서술상의 특징 ❸

확인 문제 p.165~171

바로바로 간단 체크 태평천하_ 채만식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태평천하 ❺ 비판적 배반의 여름_ 박완서 ❶ ○ ❷ X ❸ 1 ❹ 주인공 ❺ 우상 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_ 전상국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달평 씨 ❺ 비판적

01 ④ **02** ⑤ **03** '진시황'은 윤 직원 영감이고, '호해'는 종학이다. 이처럼 '망진자는 호야니라'라는 관용적 표현을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윤 직원 영감의 집을 망하게 하는 인물이 윤 직원이 믿었던 가족 중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04** ⑤ **05** ③ **06** ① **07** ⑤ **08** ③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태평천하_ 채만식

경어체 문장, 서술자의 개입, 풍자와 반어와 같은 표현상 특징과 그 효과에 주목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구한말에서 개화기, 일제 강점기로 이어지는 우리 민족이 수난을 겪었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일제 강점기의 대지주이자 고리대금업자인 윤 직원을 중심으로 그와 그의 가족의 부정적인 면모를 그려 냄으로써 당대 사회의 모순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부정적 성격이 강할수록 희화적 풍자가 심해지는데, 윤 직원은 인색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 현실을 '태평천하'라고 여기는 등 역사의식을 지니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이렇듯 작가는 주인공 윤 직원을 반어적이고 풍자적인 수법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일제 강점하의 바람직한 가치관과 현실 대응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윤 직원과 그의 아들 윤창식, 손자 윤종학
- **사건**: 일제 강점기 사회를 '태평천하'로 생각하는 윤 직원 영감이 아들 창식과 갈등하던 중에 가장 믿는 손자인 종학이 사상 문제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함.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식민 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윤 직원과 같은 친일 지주 계층의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중편 소설, 풍자 소설, 가족사 소설
- **성격**: 비판적, 풍자적, 반어적
- **배경**: 시간–1930년대 후반 일제 강점기, 공간–서울의 어느 대지주 집안
- **주제**: 부조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풍자적 비판, 일제 강점기 한 지주 집안의 세대 간 갈등에 따른 가족의 붕괴
- **특징**: ① 비유, 과장, 반어 등을 통해 대상을 희화화함.
  ② 방언과 구어체 및 판소리 사설의 문체를 사용함.

| 구성 |

발단	윤 직원 영감은 인력거를 타고 와서는 그 삯을 깎으려 하고 나이 어린 기생을 데리고 다니면서도 인색하게 군다.
전개	윤 직원 영감은 자신의 아버지가 구한말 화적들의 습격을 받아 죽었던 집안의 내력을 가슴에 품고 일제의 권력과 결탁해 돈을 모으려고 한다.
위기	아들 창식은 노름으로 밤을 새며 가산을 탕진하고, 군수를 시키려던 손자 종수는 방탕한 생활에 빠져 많은 돈을 날린다.
절정·결말	마지막으로 기대를 걸고 있던 손자 종학이 사상 관계로 경시청에 잡혀갔다는 전보를 받은 윤 직원은 이런 태평천하에 왜 종학이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분노한다. 〈수록 부분〉

01

정답 ④

정답 풀이

서술자는 부친 윤용규의 죽음 이후로 친일을 하여 재산을 모은 윤 직원의 결심과 행적을 '웅장한 투쟁의 선언', '승리'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반어적 표현은 인물의 추악한 면을 더 두드러지게 하는 효과를 낸다.

오답 풀이

① 일관되게 윤 직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하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겸하야 웅장한 투쟁의 선언이었습니다." 등 구어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물인 윤 직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서술자가 독자에게 경어체를 사용하여 독자와의 거리를 좁혀 독자가 마치 서술자와 한편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를 통해 서술자는 윤 직원을 더 효과적으로 조롱할 수 있다.

⑤ 일제 강점기를 '좋은 세상', '고마운 세상', '태평천하' 등으로 생각하는 윤 직원 영감을 반민족적인 인물로 묘사하여 윤 직원 영감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02

정답 ⑤

정답 풀이

ⓐ(윤 두꺼비)는 윤 직원의 젊은 시절 별명이고, ⓑ(말 대가리)는 얼굴 생김이 말과 닮은 윤용규의 별명이다. 서술자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인물의 천박한 별명을 그대로 불러 윤 직원과 윤용규를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즉 희화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03

정답 풀이

'진시황'은 윤 직원 영감이고, '호해'는 종학에 해당한다. 이처럼 '망진자는 호야니라'라는 관용적 표현을 제목으로 지은 이유는 윤 직원 영감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이 윤 직원이 믿었던 가족 중 하나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04~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배반의 여름_ 박완서

인물이 겪는 사건과 깨달음의 과정에서 사용된 표현상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주인공 '나'가 더운 여름날 겪었던 배반의 에피소드 세 가지를 회상의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그중 두 번째 배반으로, 다른 인물의 말을 인용한 표현이나 비유, 희화화와 같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어린 '나'가 멋진 제복을 입은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환상이 깨어진 순간을 재치 있게 보여 주고 있다. '나'는 이러한 배반을 경험한 순간 큰 충격을 받지만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어 나간다.

이 작품은 만물이 성장하는 시기인 여름과 소년의 성장이 대응되어 작품의 구조적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아버지의 직업을 알고 실망하는 서술자 '나', 아들의 기대를 알고 일부러 환상을 깨려는 아버지
- **사건**: '나'와 동생들은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출근하는 아버지를 존경하며 우상으로 여겼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출근길을 함께 한 '나'는 아버지 직업의 실체를 알고 큰 충격에 빠짐.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인 '나'는 아버지의 화려한 제복에 감탄하며 아버지를 우상으로 삼았지만, '쪼오다' 같은 사내들에게 경례하는 아버지를 보며 우상이 깨지면서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낌.

| 작품 개요 |

- **갈래**: 성장 소설
- **성격**: 회고적, 체험적, 비판적
- **배경**: 시간–현대(여름), 공간–서울의 변두리
- **주제**: 배반의 경험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해 가는 한 소년의 성장 과정
- **특징**: ① 인물 간의 대화를 직접 화법으로 제시함.
  ② 소년의 시점에서 회상의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됨.

| 구성 |

발단	누이의 죽음 이후 물을 무서워하는 '나'를 아버지가 풀장에 빠뜨린다. '나'는 이 일을 계기로 수영을 배우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된다.
전개	화려한 제복에 감탄하며 아버지를 우상으로 섬기던 '나'는 아버지 직업의 실체를 알게 된다. 〈수록 부분〉
위기	'나'는 아버지의 직업의 실체를 알고 충격을 받지만,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절정	고등학생이 되어 새로운 우상으로 전구라를 섬기는 '나'에게 아버지는 그의 일화를 들려 준다.
결말	전구라의 실상을 알게 된 '나'는 '나'의 남자다움을 키우겠다고 다짐한다.

04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은 '대답했다', '이해하지 못했다.' 등과 같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질려서 얼이 쑥 빠져 버렸잖아."에서 낯선 도시의 모습에 놀란 '나'의 모습을 관용적 표현을 사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대머리가 까진 키가 작고 넥타이를 맨 쪼오다 티가 더럭더럭 나는 남자가 나타났다.'에서 '남자'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희화화하여 '남자'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억수같이 퍼붓는 소나기 속을 물 한 방울 안 맞고 십 리도 가게 생긴 생쥐 같은 사내들이 그 속에서 내렸고'에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사내들'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④ '동생들은 어른들이 커서 뭐 될래 하고 물으면 하나같이 아버지가 될래라고 대답했다.' 등에서 간접 인용을, "정신이 없지? 여기가 시내란다." 등에서 직접 인용을 사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05

정답 ③

'나'가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 줄 시중꾼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진술은 인간 소외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가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높지 않음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06~08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달평 씨의 두 번째 죽음_ 전상국

인물의 행동을 통해 주제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표현 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주인공 '달평 씨'가 유명세에 집착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두 번의 상징적 죽음을 통해 그리고 있다.

달평 씨는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 후 순수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던 본래의 모습을 잃으며 첫 번째 죽음을 맞는다. 이후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과 언론의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과 가식으로 선행을 가장하고, 그 결과 자신과 가족의 삶이 무너지는 두 번째 죽음에 이르게 된다. 작품은 대화를 통한 인물 간의 갈등, 비유적 표현을 통한 행동 묘사, 서술자의 개입 등을 활용하여 달평 씨의 내면 변화와 몰락의 과정을 생생하게 드러내며, 자극적 소비에 몰두한 대중과 언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유명세에 중독되어 변질되어 가는 '달평 씨', 달평 씨를 걱정하며 안타까워하는 아내와 자식들
- **사건**: 선행을 베풀던 달평 씨는 우연히 유명세를 얻은 후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거짓된 행동을 일삼고, 자식들마저 친자식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며 가족이 파탄날 위기에 처함.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매스컴과 대중의 시선에 의해 본래의 순수한 모습과 정체성을 잃어 가는 개인,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 냄.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비판적, 풍자적, 사실적
- **배경**: 시간–현대, 공간–서울 변두리의 '보은식당'
- **주제**: 유명세에 중독된 인물의 몰락 과정과 대중 및 언론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작중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드러냄.

| 구성 |

발단	아내와 식당을 운영하며 남몰래 선행을 베풀던 송달평은 고아를 돕는 과정에서 오해를 받아 폭행을 당한다.
전개	달평을 폭행했던 청년들의 오해로 달평의 선행이 언론에 과장되어 보도되고, 달평은 점차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다.
위기	사회사업가로 활동하며 명성을 얻던 달평은 명예욕에 휩싸여 가족의 걱정과 충고에도 불구하고 사회 활동에만 몰두하다 명성이 사그라들기 시작한다.
절정	사그라드는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달평은 강연장에서 거짓 연설을 하고, 결국 명예를 좇아 친자식들마저 입양한 아이들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지경에 이른다. 〈수록 부분〉
결말	명예에 집착한 결과 달평은 끝내 미쳐버리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다.

06

정답 ①

정답 풀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으나, 공간적 배경을 통해 그것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 풀이

② '나폴레옹처럼 초조하게 서성거리는 달평 씨의 모습'이나 '사자처럼 포효하는 남편'에서 비유적 표현으로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③ 대화를 통해 달평 씨와 아들딸 간의 갈등, 달평 씨와 아내 간의 갈등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⑤ '그러나 어쩐 일인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달평 씨에게서 자꾸 멀어져가고 있었다.', '날 샌 원수 없고 밤 지난 은혜 없다고' 등에서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07

정답 ⑤

정답 풀이

달평 씨의 부인은 달평 씨로 인해 식당 운영이 어려워졌음에도, 그에 대해 자신을 탓하며 '사자처럼 포효하는' 달평 씨에 맞서 대들지 않았다.

오답 풀이

① 청중들이 달평 씨의 강연을 듣고 '떠나갈 듯 박수를 치며 고개를 크게 주억거'리는 모습에서 강연 내용에 감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② 달평 씨의 아들딸은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이유를 물었지만 달평 씨의 부인은 그에 대답하지 않았다.

③ 종업원들이 달평 씨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④ A 주간 신문 기자는 달평 씨를 만나지 못하였다.

08

정답 ③

정답 풀이

'친선 단체의 회장직 감투'는 달평 씨가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얻게 된 명예와 유명세의 허위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불우한 사람들까지도 철저하게 속이려는 달평 씨의 허위의식을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입을 더 크게 벌'리는 달평 씨의 모습에서 더욱더 심한 거짓말을 함으로써 대중의 관심을 얻고자 하는 인물의 욕심이 드러난다.

② '다시 달평 씨를 입에 올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자극적인 정보에만 반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④ '아들딸들'의 말을 통해 예전의 달평 씨는 순수한 의도로 선행을 베풀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⑤ '그네의 외침'은 아내가 가족들까지 파탄에 이르게 할 달평 씨의 충격적인 발언을 듣고, 달평 씨가 더 이상 자신과 가족을 망가뜨리는 파탄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항하는 행위이다.

06 갈등

확인 문제 p.176~181

바로바로 간단 체크 스노우맨_ 서유미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유 대리 ❺ 눈 광장_ 최인훈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중립국 ❺ 비판적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_ 문순태 ❶ ○ ❷ ○ ❸ 1 ❹ 주인공 ❺ 냄새 ❻ 세월

01 ② **02** ② **03**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압박과 삶의 부담감을 상징한다. **04** ① **05** ⑤ **06** ③ **07** ③ **08** ②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스노우맨_ 서유미

이 글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유형과 진행 양상에 집중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기록적인 폭설 속에서 출근을 강행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회사에 빨리 가야 한다는 마음과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은 마음 사이의 내적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도시가 눈에 파묻힌 재난 상황에서도 남자는 뒤처질 것 같은 불안과 의무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삽 한 자루로 길을 뚫어 나간다. 그러나 회사는 여전히 멀고, 상사는 출근을 재촉한다. 결국 남자는 무력감과 자책 속에서 끝없는 삽질을 반복한다. 이처럼 이 소설은 비현실적인 상황과 풍자적 상상력을 통해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사회 속에서 맹목적으로 목표를 좇는 현대인의 고단한 현실을 성찰하게 한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상사의 압박에 뒤처질 것 같은 초조함을 가지고 출근을 강행하는 '남자', 출근하다 눈 속에 파묻힌 상태로 발견된 유 대리
- **사건**: 폭설로 도시 전체가 파묻힌 상황에서 '남자'는 출근을 위해 삽으로 눈을 퍼내며 회사로 향함.
- **서술자의 태도**: 비현실적 상황을 설정하여 경쟁 사회에서 기계적인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고단한 삶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현실 비판적
- **배경**: 시간–새해 첫날, 공간–대도시 아파트와 거리
- **주제**: 인간성을 상실한 기계적인 노동과 현대 경쟁 사회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고 상징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② 인물을 이름이 아닌 보통 명사로 호칭하여 비인간적인 현대 사회의 모습을 나타냄.

| 구성 |

발단	새해 첫 출근 날, 회사에 다니는 주인공 남자는 밤새 쌓인 눈으로 인해 출근을 할 수 없게 된다.
전개	초조함 속 하루를 더 보낸 남자는 상사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삽으로 눈을 파헤치며 회사로 향하지만 금세 지치고, 우수 직원 유 대리도 출근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위기	남자는 눈 속에서 우연히 중국집 전단지를 발견하고 배고픔을 느껴 길에서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
절정	계속 눈을 파헤치고 가던 중 눈 속에서 벨소리를 듣고 소리를 따라 삽질을 하던 중 눈 속에 묻힌 사람을 발견한다. 〈수록 부분〉
결말	눈 속에 파묻힌 사람이 유 대리인 것을 알게 되고, 지친 남자는 유 대리 옆에서 점점 정신을 잃어 간다. 〈수록 부분〉

01 정답 ②

정답 풀이

'남자'는 밤새 내린 눈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초조하고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상사의 출근 재촉 전화를 받은 뒤 눈을 파며 회사로 향하면서도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남자'는 사회의 부당함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사의 출근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출근을 강행하고 있다.

③ 폭설로 쌓인 눈을 삽으로 퍼내고 있으므로, 강력한 자연의 힘 앞에서 좌절하며 소극적인 성격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남자'는 주머니 속에서 울리는 휴대 전화 진동을 무시하고 있으므로 휴대 전화의 진동이 갈등을 최고조로 이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⑤ '남자'가 '눈의 중간쯤에 화석처럼 묻혀 있'는 유 대리의 몸을 흔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부르는 모습에서 유 대리의 죽음을 예감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정답 ②

정답 풀이

'남자'가 휴대 전화의 진동을 무시한 것은 그것이 출근을 재촉하는 전화일 것이라고 추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독자의 예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공룡이라도 묻혀 있는 것 같'다며 상황을 과장하여 서술하고 있다.

④ 눈 더미를 나무 벤치로 비유하여 눈을 파내는 행위를 포기하고 싶어 하는 '남자'의 심경의 변화를 드러낸다.

⑤ 이 글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고 열린 결말 형식을 취하여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03

정답 풀이

출근을 해야 하는 '남자'에게 '눈'은 장애물이자 시련이다. '남자'는 출근에 대한 상사의 압박에 불안감을 느끼다가 결국 눈을 파헤치며 출근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때 '남자'를 '현대인들'로 확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눈'은 현대인들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압박과 삶의 무게감, 부담감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 광장_ 최인훈

인물이 겪는 갈등의 유형과 그에 따른 인물의 선택에 집중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해방 이후부터 6·25 전쟁까지의 혼란한 시대 속에서 남과 북을 오가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명준의 여정을 통해 이념 갈등과 개인의 내적 갈등을 깊이 있게 그리고 있다.

명준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인간다운 삶을 찾지 못하고 결국 제3국인 중립국을 선택하고, 북한 측 장교들이 설득을 시도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중립국으로 향하다 끝내 바다에 몸을 던진다.

작가는 이러한 비극을 통해 이념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개인을 파멸로 몰아넣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남북의 이념 갈등 속에서 고뇌하며 중립국을 택하는 '명준', 명준이 북한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장교들
- **사건**: 명준은 포로 송환 위원회에서 중립국을 선택하고, 북측 장교들이 명준을 설득함.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이념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를 추구하는 명준의 고뇌를 통해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이념 대립의 폭력성과 분단 상황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장편 소설
- **성격**: 독백적, 회고적
- **배경**: 시간–해방 직후~6·25 전쟁, 공간–남한, 북한, 타고르 호(號) 안
- **주제**: 이데올로기의 갈등 속에서 바람직한 삶과 사회를 추구하는 지식인의 고뇌
- **특징**: ①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함.
  ② 관념적이고 철학적인 용어가 많이 나타남.
  ③ 주인공이 회상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됨.

| 구성 |

발단	해방 후 평범한 대학생이던 명준은 월북한 아버지 때문에 기관에 끌려가 고초를 겪고 월북을 결행한다.
전개	북한에 도착한 명준은 현실이 이상과 달리 왜곡된 이념과 부자유로 가득함을 깨닫고, 은혜와의 사랑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하지만 그녀의 유학으로 그마저 좌절된다.
위기	6·25 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으로 종군하게 된 명준은 은혜와 극적으로 해후하나, 그녀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그는 포로가 된다.
절정	명준은 포로수용소에서 석방될 때 남한과 북한이 아닌 제3국을 선택한다. 〈수록 부분〉
결말	제3국인 인도로 향하는 타고르 호에서 명준은 바다에 투신한다.

04 정답 ①

정답 풀이

'앞에 앉은 장교가,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한다.', '그들은 서로 쳐다본다.'와 같이 현재형 시제를 활용하여 명준이 겪는 사건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인물 간의 첨예한 갈등을 부각한 장면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④ 이 글의 첫 부분 '방 안 생김새는, …… 빠지게 돼 있다.'에서 포로수용소 방 안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을 뿐, 공간적 배경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남북의 이념 갈등 속에서 고뇌하던 명준이 중립국을 선택했으나 이러한 선택이 작품의 절망적인 결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다.

05 정답 ⑤

정답 풀이

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를 경험하며 이념 갈등을 느끼고, 이러한 대립에서 벗어나고자 중립국을 선택한 것이지 타국 생활에 대한 동경을 바탕으로 중립국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중립국은 남북한의 이념 갈등이 배제된 공간을 의미한다.
② 중립국은 남북한의 체제를 경험하며 회의를 느낀 명준이 선택한 곳이다.
③, ④ 북한 장교들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중립국'이란 말만을 반복하는 모습에서 남북한 어느 곳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중립국행을 바라는 명준의 단호한 의지가 표현되고 있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바다, 마술'은 거창하지만 허황된 이상을 뜻하고, '한 사발의 물, 과학'은 이와 달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이들 사이에 놓인 '골짜기'는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나타낸다.

07~08 개념으로 작품 읽기 — 늙으신 어머니의 향기_ 문순태

세대 간 갈등 양상을 통해 드러난 각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을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아들 '나'와 아내가 어머니 특유의 냄새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며 겪는 갈등을 통해 세대 간 이해의 부족과 가족 관계의 단절을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젊은 시절 은은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어머니의 향기가 이제는 낯설고 불쾌한 냄새로 인식되는 변화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멀어진 정서적 거리와 가치관의 차이를 상징한다. 아들은 처음에는 아내의 불만에 공감하며 어머니를 멀리하지만, 이내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어머니의 삶과 헌신을 깨닫는다. 작품은 이러한 냄새를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나는 세대 간의 오해와 단절,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 어머니의 냄새에 거부감을 느끼는 서술자이자 아들인 '나', '나'의 아내, 가족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어머니
- **사건**: 어머니 특유의 냄새에 거부감을 느끼던 '나'는 어머니의 헌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태도를 반성함.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인 '나'는 과거와 달리 '생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어머니(부모 세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어머니의 냄새에 거부감을 느끼지만, 이것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온 어머니의 '세월의 냄새'임을 깨닫고 반성함.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사회 소설, 세태 소설
- **성격**: 고백적, 비판적, 독백적, 회상적
- **배경**: 시간–1960~1970년대, 공간–주인공의 고향인 시골 농촌과 서울
- **주제**: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과 그러한 어머니의 사랑을 잊어버린 현대인들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과거 회상과 현재를 오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함.
  ②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어머니의 냄새를 감각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함.
  ③ 고부 간 갈등을 통해 전통적 생활 방식과 현대적 생활 방식의 차이를 드러냄.

| 구성 |

발단	'나'의 어머니는 도시로 나와 '나'의 아내와 함께 셋이서 살지만, 점차 고부 갈등이 일어나고 어머니는 특유의 냄새를 피우기 시작한다. 〈수록 부분〉
전개	아내는 어머니의 냄새를 핑계로 일주일 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집안은 어머니의 냄새로 가득 차게 된다.
위기	'나'는 질식할 것만 같은 어머니의 냄새를 약화시키기 위해 아내를 설득해 데려오고, 어머니를 동생 집에 맡긴 후 아내와 함께 어머니의 냄새 제거 작업을 시작한다.
절정	동생네 집에서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나'는 어머니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다.
결말	차를 몰며 '나'는 어머니의 냄새가 희생적이고 고단한 삶의 애환임을 깨닫고 그 체취를 이해하게 된다.

07 정답 ③

정답 풀이

'형언할 수 없는 어머니의 냄새'라는 표현에서 '나'가 어머니의 냄새를 부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주변의 말을 듣지 않고 주사를 맞는 모습에는 어머니의 완고함이 드러나 있다.

② 몸살이 나서 몸이 아픈데도 가족을 위해 일하는 모습에는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헌신이 드러나 있다.

④ 며느리가 쓰러져 누워 있는 것에 상관하지 않고 저녁을 준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⑤ 어머니가 자신의 냄새를 '쓰디쓴 세월의 냄새'라고 한 말에 명치끝을 후벼 파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나'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08 정답 ②

정답 풀이

'나'의 가슴 속에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존재'로 살아 있었다는 것으로 볼 때, '나'가 어머니의 삶을 '궁핍과 땀과 희생과 인종'으로 보는 것에 어머니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가 밥이 없으면 까탈을 부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동물적 본능에 가까운 생에 대한 집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부모 세대에 대한 그릇된 관념으로 볼 수 있다.

③ '어머니의 냄새'는 가족 내 현실 문제를 드러내는 소재로 볼 수 있다.

④ 어머니의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는 아내의 말은 어머니의 냄새를 문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어머니의 냄새가 심하다고 말하는 '나'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며 단호하게 부인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냄새에 대한 각기 다른 인식으로 형성된 갈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7 구성

확인 문제 p.187~193

바로바로 간단 체크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_ 양귀자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의심 ❺ 연민

타클라마칸 배달 사고_ 배명훈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이별 ❺ 빈스토크

표구된 휴지_ 이범선

❶ ○ ❷ ○ ❸ 1 ❹ 주인공 ❺ 표구

01 ① **02** ① **03** ② **04** ⑤ **05** ④ **06** ③ **07** ④ **08** ③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_ 양귀자

소설의 구성 단계를 파악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도시 변두리 서민들의 삶을 통해 1980년대의 사회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 임 씨는 비 오는 날마다 떼인 돈을 받기 위해 가리봉동을 찾는 인물로, 힘겹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도시 빈민층이다. 처음엔 임 씨를 외모와 직업으로 판단하던 '그' 부부는 임 씨의 정직한 모습을 통해 편견을 깨닫고, 자본주의적 가치에 젖은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게 된다.

작가는 '그'의 시선으로 임 씨에 대한 안타까운 시선을 내비치며 시간에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건을 이끌어 감으로써 독자에게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인간다운 연대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성실하고 정직한 도시 빈민 노동자 임 씨, 사소한 이익에 연연하지만 부고러움을 아는 소시민적 인물 '그', 인색할 정도로 알뜰한 주부인 아내
- **사건**: 욕실 바닥 공사를 임 씨에게 맡긴 '그'와 아내는 임 씨의 능력을 의심했으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는 임 씨의 모습에 반성함. 임 씨는 이후 '그'와 술을 마시며 속사정을 털어놓음.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였다가 반성하는 인물을 통해 타자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전하며 세속적인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그려 내는 한편, 소외된 계층의 인물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단편 소설, 연작 소설
- **성격**: 사실적, 비판적, 성찰적, 일상적
- **배경**: 시간–1980년대, 공간–부천 원미동의 한 연립 주택
- **주제**: 도시 중산층의 소시민성과 타자 이해를 통한 자기반성
- **특징**: ① 실제 공간을 배경으로 하여 서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냄.
  ② 주인공 '그'의 관점에서 묘사한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
  ③ 시간의 변화에 따라 인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과정이 묘사됨.

| 구성 |

발단	'그'는 원미동에 처음으로 집을 장만하여 이사를 하지만, 집에 잦은 하자가 생겨 보수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전개	어느 날 목욕탕 배수관에 문제가 생겨 지물포 주인에게 소개받은 임 씨에게 일을 맡긴다.
위기	임 씨는 원래 연탄장수이지만 여름에는 집수리를 부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와 아내는 욕실 공사를 맡긴 것을 후회하고 그가 공사비를 부풀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정	예상과 달리 깔끔하게 공사를 마친 임 씨는 서비스로 옥상까지 고쳐 주고, 공사비가 적게 들었다며 견적보다 적은 돈을 받는다. '그'는 임 씨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함께 술을 마신다. 〈수록 부분〉
결말	'그'는 임 씨가 비 오는 날마다 떼인 연탄값을 받으러 다닌다는 말을 듣고, 그의 가난하고 성실한 삶에 깊은 연민을 느낀다. 〈수록 부분〉

01 정답 ①

정답 풀이

서술자가 '그'에 초점화하여 아내와 임 씨의 말과 행동을 '그'의 관찰과 인식을 매개로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⑤ 이 글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는 순행적 구성이다.

③ 임 씨가 '그'와 대화하며 자기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 내화와 외화로 이루어진 액자식 구성은 아니다.

02 정답 ①

정답 풀이

[A]에서는 임 씨가 바뀐 견적 금액을 바로 제시하지 않고 숫자를 더하고 빼며 시간을 끄는 장면이 제시된다. 이는 사건의 전개 속도를 늦추어 독자가 결과를 기다리며 긴장감을 느끼도록 한다.

03 정답 ②

정답 풀이

이 글의 제목은 비 오는 날 가리봉동에 가야 하는 임 씨의 상황을 통해, 도시 변두리 서민들이 겪는 고단한 현실과 빈부 격차의 모순을 드러낸다. 임 씨가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살아가지만 빈부 격차 속에서 어려운 형편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임을 고려할 때, ②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도시 변두리 동네에서 사는 소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이들의 애환과 삶의 의지를 그려 내고 있다.

③, ④ 성실하고 정직한 노동자임에도 떼인 연탄값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는 임 씨의 삶을 통해 도시 빈민층의 각박한 현실과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난다.

⑤ 제목의 '비 오는 날'은 임 씨가 일하지 못하는 날, '가리봉동'은 임 씨의 연탄값을 떼어먹은 스웨터 공장 사장이 새로 세운 공장이 있는 곳이다. 이는 임 씨의 사연과 연관되어 서민들의 애환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드러내며 독자에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타클라마칸 배달 사고_ 배명훈

역순행적 구성의 특징을 이해하고, 사건 전개의 흐름을 발생 순서에 따라 정리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타클라마칸 사막에 고립된 '민소'를 구하기 위한 빈스토크 시민들의 노력과 선의를 다루고 있다.

'은수'는 초고층 도시 국가 '빈스토크'로 이주하지만, 애인 '민소'와의 다툼으로 헤어진다. 그러나 '민소'가 보낸 화해의 엽서가 우연한 실수로 전달되지 않고, 그녀는 영주권을 얻기 위해 해군 용역업체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실종된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병수'가 엽서를 전하며 도움을 청하자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대하여 '민소'를 찾는 기적이 일어난다.

작가는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격추된 '민소'의 회상으로 '민소'와 '은수'의 과거를 보여 주며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는 역순행적 구조를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전달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실종된 '민소', 민소의 과거 연인 '은수', 빈스토크에서 태어나 살아온 '병수'
- **사건**: 병수가 은수를 찾아와 민소가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전함. 한편 민소는 꿈과 현실을 혼동하며 5년 전 은수와 빈스토크에서 이별한 일을 떠올림.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타클라마칸 사막에 고립된 민소를 구하기 위한 빈스토크 시민들의 노력을 다루며, 민소의 구조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시민들의 선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봄.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공상 과학 소설
- **성격**: 우의적, 풍자적
- **배경**: 시간–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공간–가상 도시 빈스토크와 국경 지역, 타클라마칸 사막 등(가상과 현실 공간의 혼재)
- **주제**: 수많은 사람의 협력으로 만들어 낸 기적
- **특징**: ① 과거와 현재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함.
  ② '파란 우편함', '바벨탑' 등 상징적인 소재가 등장함.

| 구성 |

발단	빈스토크 홍보 담당관 병수의 방문을 계기로 은수는 빈스토크로 이사 오며 헤어진 옛 연인 민소를 떠올린다.
전개	병수는 4년 전 배달하지 못한 민소의 엽서를 은수에게 전하며, 그녀가 용병으로 일하다 타클라마칸 사막에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린다. 〈수록 부분〉
위기	빈스토크 정부가 민소의 구조를 포기하자, 은수와 병수는 직접 위성 사진을 구해 그녀를 찾기로 결심한다.

절정	은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쓰고, 그 편지가 전 세계로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민소를 찾아 나선다.
결말	사막에 고립된 민소는 멀리서 들려오는 구조 헬리콥터의 엔진 소리를 들으며 구원의 순간을 맞이한다.

04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은 5년 전 은수와 민소의 이별, 그리고 현재 그들의 모습을 교차하며 보여 주고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하며 서술자가 서술의 초점을 은수와 민소로 교차하며 제시하지만, 서술 시점 자체는 3인칭으로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서술 시점이 변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② 병수와 은수의 대화를 통해 민소가 실종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으며, 민소의 회상을 통해 민소와 은수가 이별한 사건의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며, 이야기 밖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내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꿈과 현실을 혼동하고 과거를 회상하는 민소를 통해 입체적으로 구성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05

정답 ④

정답 풀이

민소를 찾아 달라는 은수의 편지는 유료 우편 체계가 아닌, 공짜인 파란 우편함을 이용하여 전달하였고, 빈스토크 시민들은 협심하여 결국 민소를 찾게 된다.

오답 풀이

②, ③ 민소는 은수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폐쇄적인 빈스토크에 가서 취직하는 걸 마땅치 않아 하였다.

⑤ 빈스토크에서 나고 자란 병수는 파란 우편함을 근거로 내세우며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는 빈스토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5년 전 은수와 민소는 빈스토크 앞에서 잠정적 이별을 한다(ㄷ). 5년이 지난 어느 날, 민소는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격추당해 실종되고(ㄱ), 병수가 은수를 찾아와 민소가 타클라마칸 사막에서 8시간 전에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ㄴ). 이에 은수는 민소를 찾기 위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는 파란 우체통을 통해 퍼져 나간다(ㄹ).

07~08 개념으로 작품 읽기

표구된 휴지_ 이범선

액자식 구성의 특징을 알고, 소설의 외화와 내화를 구분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시골에 있는 아버지가 도시로 나온 청년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소박하고 진솔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이 작품은 화자(화가)의 이야기, 청년의 이야기, 편지의 내용이 서로 연결되고 삽입되는 액자 소설 형식으로 구성되어, 삭막한 도시 문명과 대비되는 부모의 따뜻한 마음이 드러난다. 또한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편지는 국보와 같이 소중하므로 표구하여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작가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주인공시점
- **인물**: 화가인 서술자 '나', '나'에게 한 편지를 표구해 달라고 부탁한 '친구', 가정으로부터 편지를 받는 지게꾼 청년
- **사건**: 친구가 화가인 '나'에게 지게꾼 청년의 편지의 표구를 부탁했던 일을 떠올리며, 표구사로 향해 표구된 편지를 가져옴.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지게꾼 청년의 편지에 담긴 부모의 투박하지만 진솔한 사랑을 표현하며, 삭막한 도시 문명과 대비하여 진솔한 사랑이 담긴 부모의 편지야말로 국보와 같이 소중하므로 표구하여 간직할 만한 가치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감상적, 사색적, 회고적
- **배경**: 시간–1960년대~1970년대, 공간–화실
- **주제**: 아주 사소한 것에서 오는 삶의 의미, 자식에 대한 부모의 소박하고 진솔한 사랑
- **특징**: ① 외부 이야기('나'와 은행원 친구의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지게꾼 청년의 사연과 편지 내용)가 삽입되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② 편지 내용에서 사투리와 구어체, 맞춤법에 맞지 않는 표기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현장감과 진솔함을 더하고, 인물의 순박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함.

| 구성 |

외화	발단	화가인 '나'는 표구한 편지를 한 번씩 읽어 보는 버릇이 있는데, '나'는 친구의 부탁으로 편지를 표구했던 과거를 회상한다.
내화	전개	한 젊은 지게꾼이 매일 동전을 종이에 싸서 저금을 하러 은행에 방문했고, 은행원인 친구는 종이에 적힌 편지를 발견하고 편지를 '나'에게 표구해 달라고 부탁한다. 편지에는 청년을 향한 지게꾼 아버지의 소박한 일상과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수록 부분〉
외화	절정	어느 날 표구를 부탁했던 친구가 외국으로 전근을 가고, '나'는 문득 편지를 떠올린다. 〈수록 부분〉
	결말	편지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나'는 표구를 부탁했던 친구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수록 부분〉

07

정답 ④

정답 풀이

'나'에게 '휴지'로 여겨지던 창호지 편지는 '표구'라는 행위를 통해 '국보급'으로 인식될 만큼 그 가치가 격상된다. 이는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하찮아 보이는 대상이라도 그 안에 진실한 마음과 순수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소중히 여길 때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됨을 상징한다.

08

정답 ③

정답 풀이

ⓐ에서 '재미있다'고 한 친구의 말 뒤에 ⓒ의 일부를 삽입한 것은, ⓐ에서 화가가 편지 내용과 친구의 장난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며 '비시시 웃'게 되는 이유를 보여 준다.

오답 풀이

① ⓐ에서 ⓑ로 서술 시점이 변하는 부분을 한 문단 안에 이어 연결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② '청년'이 종이에 싼 돈을 입금해 달라고 '여직원'에게 부탁하고 구석으로 간 내용은 '청년'의 이야기인 ⓑ에 해당하고, '이게' 이후의 내용은 '화가'의 이야기인 ⓐ에 해당하므로 내화와 외화가 지시 표현을 통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편지의 출처가 드러난다.

④ ⓐ의 '떠날'과 ⓒ의 '떠나고'는 유사한 의미의 표현으로서, '화가'는 외화에서 사용된 표현과 유사한 의미의 표현이 적혀 있던 편지 내용을 떠올리며 그림로 표구사로 간다.

⑤ '친구의 심정을 느껴 알 것 같아졌다.'라는 ⓐ의 내용 뒤에는 ⓒ의 편지 내용이 인용되어 있다. 같은 편지 내용을 다시 삽입한 것은 ⓐ의 '화가'가 편지 내용을 감상하며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8 소재의 기능

확인 문제 p.196~201

바로바로 간단 체크 너와 나만의 시간_ 황순원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주 대위 ❺ 개 짖는 소리 오발탄_ 이범선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가자 ❺ 철호 ❻ 오발탄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_ 윤흥길 ❶ ○ ❷ X ❸ 1 ❹ 관찰자 ❺ 궐기 대회

01 ⑤ **02** ④ **03** ① **04** ④ **05** ③ **06** ⑤ **07** ②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너와 나만의 시간_ 황순원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소재가 사건 전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을 마주한 세 사람의 심리와 선택을 보여 준다. 다리를 다치고 자살을 암묵적으로 종용받으면서도 삶을 붙잡는 주 대위, 살기 위해 도망치는 현 중위,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켜 목숨을 건지는 김 일등병이 그들이다.

작가는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간결한 문장, 치밀한 묘사, 객관적 서술을 활용하여 인간 삶의 방식을 성찰하게 한다. 특히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해 자살을 결심했다가 우연히 들려온 '개 짖는 소리'를 계기로 삶의 의지를 되찾고 그를 구해 내는 주 대위의 모습은 전쟁의 극한 상황 속 피어난 삶의 의지를 잘 드러낸다. 이러한 묘사는 전후 소설이 이념 갈등에 머물던 한계를 넘어 전쟁의 의미를 보다 깊이 통찰하도록 한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전쟁 중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는 '주 대위', 낙오된 주 대위를 업고 인가로 향하는 '김 일등병', 홀로 길을 떠났다가 죽음을 맞은 '현 중위'
- **사건**: 주 대위는 현 중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김 일등병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자결을 결심하지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김 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하며 인가로 이끔.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극한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선 세 사람의 심리와 그들이 선택한 삶의 방식을 간결한 문장과 사실적 묘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그려 내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단편 소설, 전후 소설
- **성격**: 사실적, 실존주의적
- **배경**: 시간–6·25 전쟁 중, 공간–어느 깊은 산속
- **주제**: 전쟁의 극한 상황 속 삶에 대한 의지
- **특징**: ① 전쟁 상황 속 인간 존재의 의미를 성찰함.
  ② 간결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제시함.

| 구성 |

발단	현 중위와 김 일등병이 부상당한 주 대위를 부축하며 걸어간다.
전개	주 대위가 자살하기를 바라던 현 중위는 혼자 길을 떠난다.
위기	현 중위가 떠나고 얼마 후 주 대위와 김 일등병이 현 중위의 시체를 발견한다.
절정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주 대위가 김 일등병을 권총으로 위협하여 인가에 도착하도록 유도한다. 〈수록 부분〉
결말	인가를 찾은 후 주 대위가 의식을 잃는다. 〈수록 부분〉

01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은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 버려야 한다.' 등과 같이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인물의 상황과 내면 심리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에서 배경 묘사가 나타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② 상징적 소재를 활용해 인물의 과거 행적을 비판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인물 간의 대화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첨예한 대립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서술하고 있을 뿐, 인물의 상상과 현실을 병치하고 있지 않다.

02 정답 ④

'개 짖는 소리'는 절망에 빠져 자결하려고 했던 주 대위에게 삶의 희망을 안겨 주는 소재로, 주 대위는 이 소리를 듣고 김 일등병을 위협하여 인가 쪽으로 가게 함으로써 김 일등병이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오답 풀이

① 삶을 포기하고 자결을 결심했던 주 대위는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삶의 희망을 갖게 된다. 이러한 그의 선택이 그가 기회주의적인 성격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② 김 일등병은 '개 짖는 소리'를 들은 주 대위가 자신을 총으로 위협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갈등이 극대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김 일등병이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은 찾을 수 없다.

⑤ 주 대위는 권총으로 김 일등병을 위협하여 그를 인가로 이끌고 있고, 김 일등병은 영문을 모른 채 주 대위의 지시에 따르고 있다. 따라서 김 일등병이 주 대위를 이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오발탄_ 이범선

작가가 소재를 활용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6·25 전쟁 직후 월남한 가족이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모순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주인공 철호와 가족의 고단한 삶은 전쟁으로 정신적 황폐와 물질적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모순과 남북 분단 문제까지 보여 준다. 힘겹게 살아가는 철호와 전쟁의 후유증으로 정신 이상자가 된 어머니는 각각 '원시인'과 '미라'에 빗대어 표현되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궁핍한 삶의 현실과 이로 인해 무력감과 비참함을 느끼는 인물의 심리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월남한 가족의 가장으로 양심을 지키며 가족을 부양하고자 하는 인물인 '철호', 6·25 전쟁 중 월남하여 해방촌에 살지만 북쪽 고향을 잊지 못하고 실성하여 '가자'만 외치는 '어머니'
- **사건**: 해방촌에 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철호는 자신의 힘든 처지와 정신 이상자가 된 어머니를 보며 방향성을 잃고 무력감을 느낌.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월남한 실향민들이 궁핍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그 안에서 방황하는 인물을 제목인 '오발탄'에 비유함. 이를 통해 당대 사회의 비극적 분위기와 비참한 현실을 고발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회고적, 비판적, 사실적
- **배경**: 시간–6·25 전쟁 직후, 공간–서울 해방촌 일대
- **주제**: 6·25 전쟁 후 한국 사회의 궁핍한 삶
- **특징**: ① 사실적인 묘사로 시대의 궁핍함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냄.
  ② 전쟁 때문에 파멸해 가는 인간상과 무력감을 표출함.

| 구성 |

발단	6·25 전쟁 후, 계리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송철호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있지만, 미쳐버린 어머니, 실업자인 동생, 여동생 등 가족의 궁핍하고 불안한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
전개	철호는 턱없이 낮은 월급에도 계속 일하지만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철호 자신은 치통과 굶주림을 견디며 힘든 나날을 보낸다. 〈수록 부분〉
위기	동생 영호가 권총 강도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철호가 아내의 출산 소식에 병원으로 향하지만 아내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절정	아내의 죽음에 망연자실한 철호는 절망감 속에서 거리를 헤매다 평소 고통받던 사랑니를 무리하게 모두 뽑아버리며 극한의 고통을 감내한다.
결말	사랑니를 뽑은 후 설렁탕을 먹던 철호는 택시를 잡아 타고 어디론가 향하려 하지만,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

03 정답 ①

정답 풀이

철호의 꺼멓고 윤기 없는 얼굴을 '송장'에, 그의 초췌한 모습을 '원시인의 한 사나이'에,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수세미'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이 글에서는 힘든 현실 속 무력감을 느끼는 인물과 전후 정신 이상자가 된 인물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고 있을 뿐, 반사회적인 인물이 나타나거나 인물을 희화화하는 장면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글에서 비극적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열악한 현실에 괴로워하는 인물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④ 철호와 어머니가 거주하는 공간은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해방촌으로, 유복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⑤ 이 글에서 자아를 성찰하는 인물은 나타나지 않으며, 혼란한 현실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 역시 찾을 수 없다.

04 정답 ④

정답 풀이

㉠과 ㉡은 같은 인물이 떠올린 대상이지만 인물이 ㉡에 대해 동정심을 표현하는 장면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은 철호가 초췌한 몰골을 한 자신의 모습을 비유한 표현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의 힘든 모습이 담겨 있다.

② ㉡은 실성하여 '가자'만 외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생명력이 없는 존재에 비유한 표현이다.

③, ⑤ ㉠은 철호가 스스로의 모습을, ㉡은 철호가 어머니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한 소재로,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는 자신과 어머니에 대한 철호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05~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아이젠하워에게 보내는 멧돼지_ 윤흥길

소재의 기능과 소재가 인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윤흥길의 《소라단 가는 길》에 실려 있는 연작 소설 중 한 편으로, 하인철이란 인물이 6·25 전쟁 당시 유년 시절의 체험을 고향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어린 '나'의 순진한 시각을 통해 창권이 형의 활약과 몰락 과정을 보여 주며,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참혹성을 생각하게 한다. 창권이 형은 권위 있는 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사실조차 모른 채 애국 청년 노릇을 하며, '금빛의 교포'를 닦는 행동을 통해 고등학생 역할까지 수행하는 어리숙한 모습을 보인다. 또한 창권이 형이 '멧돼지'를 '멧세지'라고 잘못 발음했다고 오해하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인 '나'를 서술자로 내세워 해학성을 유발함으로써 당시 현실을 비판적으로 조망한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인물**: 국민학교 2학년생인 서술자 '나', 궐기 대회 때마다 혈서를 쓰며 '애국 청년 노릇'을 하는 창권이 형

- **사건**: 창권이 형은 애국 청년 노릇을 하며 식당 일을 뒤로 한 채 고등학생인 척 분장을 하고 궐기 대회에서 메시지 낭독까지 하게 됨. '나'는 창권이 형이 '멧돼지'를 '멧세지'라 잘못 발음했다며 지적함.
- **서술자의 태도**: 어린 '나'는 창권이 형이 애국 청년 노릇을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멧세지'를 보내는 것을 '멧돼지 보내기'로 오해하여 창권이 형이 '무식'하다고 생각함.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연작 소설
- **성격**: 사실적, 비판적, 풍자적
- **배경**: 시간–6·25전쟁 중, 공간–전라북도 익산
- **주제**: 전쟁의 폭력성과 이데올로기 대립의 참혹성
- **특징**: ① 전쟁에 이용당하는 어리숙한 인물과 그를 이용하는 권력을 풍자함. ②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주제를 해학적으로 표현함.

| 구성 |

발단	국민학교 2학년생인 '나'는 궐기 대회 때마다 멧돼지를 외국 귀인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의아해한다.
전개	'나'는 궐기 대회 연단 위에 올라 혈서를 쓰는 창권이 형을 발견한다.
위기	창권이 형은 식당 일을 뒤로 한 채 가짜 고등학생 흉내까지 내며 애국 청년 노릇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나'는 창권이 형을 이해하지 못한다. 〈수록 부분〉
절정	창권이 형은 적성 중립국 감시 위원 추방 시위에 참여했다가 흥분하여 미군 부대 철조망을 넘는 만용을 부려 셰퍼드들에게 공격받아 불구의 몸이 된다.
결말	창권이 형은 모든 것을 잃고도 금장 회장 시계를 보며 화려한 지난날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나'는 창권이 형에게 연민을 느낀다.

05 정답 ③

정답 풀이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내화 중 일부로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가 중심인물인 창권이 형의 행동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② 서술자는 등장인물인 '나'이며,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나열하고 있지도 않다.

④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와 창권이 형, '나'와 어머니, 창권이 형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을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⑤ 이야기 내부 인물인 '나'가 자신의 경험을 전달하고는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반복적으로 교차하며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06 정답 ⑤

정답 풀이

㉠은 '안 그래도 새것임을 만천하에 광고하듯' 교포가 너무 번뜩이면 새것임이 눈에 띄어 창권이 형이 가짜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쉽게 탄로 날 위험이 있음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① 창권이 형이 불안감을 느끼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창권이 형이 교표를 정성스럽게 닦으며 스스로 '진짜배기 고등학생으로 착각하고 있는 기색'이었다는 표현으로 볼 때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③ 창권이 형의 능청스러운 성격은 교표를 통해 은폐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다.

④ 교표는 궐기 대회에서 남들의 시선을 고려하여 창권이 형을 고등학생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소재이고 이후 교표 때문에 창권이 형이 궐기대회에서 맡은 역할이 축소되었는지 여부는 제시된 글만으로는 알 수 없다.

07 정답 ②

정답 풀이

'나'는 창권이 형을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이라며 그가 '멧돼지'를 '멧세지'라 잘못 발음했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 글에서 '나'는 창권이 형을 동경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③ 어린아이인 '나'는 외국 귀인들에게 보내는 '멧세지'를 '멧돼지'로 이해하고 있다.

④ '나'는 창권이 형을 '무식한 가짜 고등학생'으로 여기며 불신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멧세지'가 맞는 표현임을 파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⑤ '나'는 어리기 때문에 '멧세지'가 무엇인지 몰라 '멧돼지'로 오해한다. 이러한 '나'의 오해는 궐기 대회에서 주장되는 비장한 '멧세지'를 우스꽝스러운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웃음을 유발한다.

09 배경의 종류와 기능

확인 문제 p.205~209

바로바로 간단 체크 도도한 생활_ 김애란 ❶ ○ ❷ ○ ❸ 1 ❹ 주인공 ❺ 반지하방 ❻ 피아노 메아리_ 오영수 ❶ X ❷ ○ ❸ 전지적 작가 ❹ 산골 ❺ 대비

01 ③ **02** '도도한 생활'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03** ① **04** ② **05** ②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도도한 생활_ 김애란

폭우가 내리는 상황과 '반지하방'이라는 시·공간적 배경이 이 글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2000년대 청년들의 궁핍하고 고단한 삶을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나'는 젊은 세대의 어려움을 대표하는 인물로, 유년기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피아노와 관련된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엄마는 만두 가게를 운영하며 '나'에게 피아노를 사 주고, 아버지의 빚보증으로 집이 망했을 때도 피아노를 팔지 않고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로 가는 '나'에게 기어코 피아노를 보내 준다. 그러나 언니의 반지하방에 자리한 피아노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곰팡이와 빗물로 점점 망가진다.

작품은 '나'가 머무는 '반지하방'이라는 열악한 공간과 피아노 같은 개인적 사물에 주목하여, 일상 속 감정과 젊은 세대가 겪는 사회적 문제를 섬세하게 드러낸다. 특히 방이 비에 잠겨 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가 주인집 남자의 제지를 무시하고 피아노를 치는 장면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도도한 자존심과 삶의 의지를 지키고자 하는 내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나'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인물**: 서울의 반지하방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서술자 '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성격의 주인 남자
- **사건**: 저녁부터 내린 폭우에 반지하방으로 빗물이 들어오고, 언니를 기다리던 '나'는 빗물이 걷잡을 수 없이 차오르는 상황에서 피아노를 연주함.
- **서술자의 태도**: '나'는 곰팡이가 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피아노를 연주하고 싶어 하고, 빗물이 들어차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자존심(도도함)을 지키려고 함.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감각적, 사실적
- **배경**: 시간–2000년대, 공간–서울 반지하방
- **주제**: 청년들의 고단하고 궁핍한 삶
- **특징**: ① 개인적인 공간과 사물에 주목하여 주제를 형상화함.
  ② '도도한 생활'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닌 제목을 통해 주제를 압축적으로 보여 줌.

| 구성 |

발단	만두 가게를 하는 엄마는 '나'에게 피아노를 사 주는데, '나'는 만두 가게에서 가끔 피아노를 치고, 엄마는 그 모습을 좋아한다.
전개	아빠의 빚보증 때문에 집이 망하고, 서울권 대학에 합격한 '나'는 엄마가 사 준 피아노와 함께 서울에 있는 언니의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한다.
위기	저녁부터 내린 폭우에 방으로까지 빗물이 들어오고, '나'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늦는 언니를 기다리며 방에 들어온 빗물을 닦아낸다. 〈수록 부분〉
절정	빗물을 퍼내던 중 돈이 필요하다는 아빠의 전화를 받게 되고, 언니의 옛 애인이 술이 취해 찾아온다.

01

정답 ③

정답 풀이

눅눅하고 곰팡이가 피어 오르는 반지하방은 쾌적하지 못한 삶의 공간으로, 가난과 고립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나'가 등록금을 모으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기도 하며, 언니가 영문과에 편입하기 위해 늦은 밤까지 공부를 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반지하방은 '나'와 언니로 대변되는 청년 세대가 고단한 삶을 살아가며 꿈을 위해 노력하는 공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반지하방이 '나'와 '언니'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공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정답 풀이

'나'는 부정적인 상황에 함몰되기보다는 오히려 힘겨운 상황에서도, 오랜 세월 함께 한 대상이자 자부심의 상징인 피아노를 연주함으로써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노력한다. 즉 '도도한 생활'이란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고 지키고자 노력하는 삶이라 볼 수 있다.

03~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메아리_ 오영수

산골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인물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깊은 산골에서 살아가는 동욱 내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도시에서 상처받고 지친 인물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와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현대 소설이다.

인물들은 도시 생활에서 겪은 혼란과 피폐함을 뒤로하고, 산골이라는 고요하고 따뜻한 배경 속에서 정신적 위안과 안정을 얻는다. 산골의 자연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인물들의 내적 치유와 성찰의 공간으로 기능하며, 도시 문명의 소란과 대비되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작품은 현대인이 겪는 정신적 상처와 갈등, 그리고 자연을 통한 회복의 가능성을 섬세하게 담아내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서술자**: 작품 밖 서술자
-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 **인물**: 6·25 전쟁 후 도시 생활을 접고 산골로 들어온 양동욱 부부, 부부와 함께 살아가는 성실한 성격의 박 노인과 윤 생원
- **사건**: 양동욱 내외는 도시에서 자식을 잃고 깊은 산골에 정착하고, 두 사람에게 집을 지어 준 박 노인, 가엾은 처지의 윤 생원과 함께 살아감.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도시에서의 혼란스럽고 피폐한 삶과 산골 생활에서의 평안하고 정겨운 분위기를 대비하여, 산골에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며 살아가는 인물들의 공동체적인 모습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 냄.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소설, 단편 소설
- **성격**: 공동체적, 휴머니즘적
- **배경**: 시간–1950년대 전후, 공간–깊은 산골
- **주제**: 도시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찾는 과정
- **특징**: ① 짧은 문장을 활용하여 속도감 있게 서술함.
  ② 혼란스럽고 피폐한 도시 생활과 평화로운 산골 생활을 대비함.
  ③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을 배경으로 함.

| 구성 |

발단	6·25 전쟁 후 부산에서의 피난살이가 힘겨워진 양동욱 내외는 지리산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구며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
전개	동욱 내외는 산속에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어 생활 기반을 마련하며, 과거의 상처로 산 속에서 살던 목수 박노인에게 도움을 받아 집을 짓는다. 〈수록 부분〉
위기	겨울이 깊어지자, 박 노인은 20년 전 자신의 아내와 사통했던 조수 윤 생원(윤방구)을 데리고 찾아오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윤 생원은 동욱 내외와 함께 살게 된다.
절정·결말	이듬해 봄이 되자 동욱의 아내는 명숙이 엄마를 데려와 윤 생원과 같이 살게 해 보겠다고 말하고 부산으로 떠난다. 〈수록 부분〉

03

정답 ①

정답 풀이

동욱의 아내가 양은그릇을 이고 장사로 나섰지만 '본전도 더 깎지 않고는 팔리지 않았다'는 장면에서 손해를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동욱은 자신을 따라 산골로 들어가는 아내를 측은하고 미덥게 여기고 있다.

③ 동욱 내외는 괭이, 호미, 톱, 낫, 등의 연모와 함께 된장, 소금, 석유, 호롱 등을 꾸려서 산골로 들어갔다.

④ 동욱과 박 노인이 처음 만난 곳은 산골이다.

⑤ 동욱은 명숙이 엄마가 올 것을 확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당연히 방도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다.

04

정답 ②

정답 풀이

아내가 측은하기도 하고 미덥기도 한 마음에서 한 말로, 정착할 곳을 찾는 힘겨운 상황을 더 견뎌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도시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산골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드러난다.

③ 감자씨를 심을까 생각하며 봄 농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아내가 하려는 말의 내용을 궁금해하는 동욱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⑤ 산속에서 홀애비로 늙어 가는 윤 생원의 처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다.

05

정답 ②

정답 풀이

동욱 내외가 '오지그릇 조각들'을 보고 '가슴이 설레고 반가'워한 이유는 산골에서 정착할 만한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았기 때문이다. 〈보기〉에 따르면 '산속은 정신적 위안과 안정을 주는 공간'이며, 이 글의 내용에서 산속이 물질적 안정을 주는 공간인지는 알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아무리 노력해도 살 방법을 찾기가 어려웠던 도시에서의 삶이 동욱 부부가 삶의 의욕을 잃은 원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③ 돼지를 기르고 싶다는 윤 생원의 말에 인물들이 서로 방법을 모색하는 장면을 통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박 노인이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지만 가엾은 처지가 된 윤 생원을 거두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명숙이 엄마라는 새로운 구성원을 데리고 오려는 동욱 내외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능 다가가기

p.212~215

01 ④ 02 ⑤ 03 ② 04 ④ 05 ③ 06 ④

01~03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윤흥길, 〈날개 또는 수갑〉

주제 구성원을 획일화하고자 하는 전체주의 문화 비판

해제 이 작품은 한 회사가 돌연 제복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1970년대 국가가 개인의 자유보다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을 통제하던 현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겉으로는 '준비 위원회'라는 절차를 거치지만 실제로는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제도를 강행하는 회사의 모습은, 형식적 절차만 갖춘 채 통제를 정당화하던 당시 국가 권력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제복 제도에 반대하던 직원들이 결국 각자 흩어져 회사의 지시를 따르는 장면은, 부조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인 저항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소시민의 나약한 태도를 보여 준다.

구성

발단	동립산업에서 사무직 직원들을 포함한 전 사원을 대상으로 제복 착용 확대 정책을 시행할 것을 고지한다.
전개	우기환, 민도식 등 많은 사원들이 제복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정책과 관련하여 준비 위원회가 결성된다.
위기	장상태를 비롯한 사원 대표들은 회사의 방침에 그대로 수용하는 쪽을 택하게 되고, 전체 사원이 새로운 제복을 착용하도록 결정된다.
절정	결정에 불만을 가진 사원들이 불만을 성토하는 사이 정책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우기환은 결정에 불복하여 퇴사한다. 〈수록 부분〉
결말	민도식을 제외한 전 사원이 제복을 착용한 채 창업 기념일 행사에 참석하고, 도식은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낀다. 〈수록 부분〉

특징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함.

② 등장인물 중 한 인물(민도식)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음.

②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을 드러내고 있음.

01 서술상 특징

정답 ④ 정답률 94%

정답 풀이

④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인물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선택적(제한적) 작가 시점)

➡ '도식이 보기엔'에서 작품 밖 서술자가 민도식의 시선을 통해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자는 민도식의 시선을 통해 '자신감의 표현임이 분명'한 웃는 표정, '두툼한 입술과 커다란 눈', '작은 체구', '관록 같은 게 엿보이는 얼굴' 등 권 씨의 특징을 관찰하여 알려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인물의 행위를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내적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참을성 좋게 여전히 웃고 있'는 권 씨의 행위가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이를 통해 권 씨의 내적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②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입체적 구성)

➡ 민도식이 권 씨를 바라보는 상황만이 나타나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의 교차와 인물이 겪는 인식의 변화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⑤ 서술자가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지 않다. 민도식이 권 씨를 바라보는 상황만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개념의 좌표

- 내적 갈등(→ 173쪽)
- 입체적 구성(→ 184쪽)
- 공간적 배경(→ 203쪽)
- 선택적 작가 시점(→ 127쪽)

02 구절의 의미 이해

정답 ⑤ 정답률 84%

정답 풀이

⑤ ⓔ는 사원들이 사복을 입은 민도식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다.

➡ ⓔ는 지각을 한 민도식이 느낀 감정일 뿐 사원들이 민도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반응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는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에 관심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반응이다.

➡ ⓐ는 권 씨가 사무직 사원들의 대화를 듣고 그들을 돌아다보며 보인 반응이다.

② ⓑ는 장상태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명령하였기 때문에 미스 윤이 드러낸 반응이다.

➡ ⓑ는 장상태가 '화를 벌컥 내면서 큰 소리로' 미스 윤에게 명령하자 미스 윤이 보인 반응이다.

③ ⓒ는 아내가 집을 나서지 않고 있는 남편 때문에 걱정하여 보인 반응이다.

➡ 아내는 남편의 회사 사원이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체육 대회 날 '밍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을 걱정하며 거듭 재촉(ⓒ)하고 있다.

④ ⓓ는 전체 사원들이 같은 옷을 입고 군대처럼 도열한 모습을 본 민도식에게 나타난 반응이다.

➡ 민도식은 새로 맞춘 제복을 입은 전 사원이 '군대처럼 질서 정연하게 도열'한 모습을 보고서 ⓓ와 같이 반응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② 정답률 58%

보기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집단의 논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인물이다.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 내는 주체적인 관점을 보인다.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집단에 동화되지 못한 채 집단 논리의 수용 여부를 두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바른길

정답 풀이

②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군.

➡ 권 씨를 '노리갯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은 권 씨를 만만하게 보고 함께 그에게 화풀이를 하자는 제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이나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과는 관계가 없다. 또한 민도식은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그것을 입을지 여부는 '각자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는 의견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동료에게 '준비 위원회'의 '회의'에 담긴 '경영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여 발언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주체적인 관점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민도식은 준비 위원회의 회의가 대내외에 좋은 인상을 풍기기 위해 행해진 '요식행위'라며, '동림산업'이 내세우는 논리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주체적인 관점을 지닌 인물이다.

③ 아내에게 '큰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도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군.

➡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출근하는 민도식의 모습은 그가 '동림산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가지만 자신을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보니, 민도식은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지만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민도식은 '사복 차림'으로 체육 대회에 참석하며 집단의 논리를 거부하고 싶어 하지만, 결국 자신을 제복을 차려입은 사원들의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⑤ '제1 공장' 정문 앞에서 '붙박여 버린 듯'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니, 민도식은 '동림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동림 산업'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공장 정문 앞에서 망설이는 민도식의 모습은 그가 '동림산업'의 정책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04~06 2025학년도 수능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주제 비현실적인 경험을 통한 인간 소외와 고독

해제 이 작품은 갑자기 사라진 '배꼽'과 그로 인해 벌어진 '배꼽 논쟁'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과 사회 현실을 성찰한 작품이다. 평범한 소시민 '허원'에게 배꼽이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는 배꼽이 모태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며 존재의 근원과 생명의 연결을 나타낸다는 '허원'의 배꼽론으로 발전한다. 배꼽의 실종은 억압적 현실 속에서 위로를 구하던 허원에게 깊은 상실감과 고독을 안기며, 나아가 개인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구성

발단	평범한 직장인 허원은 어느 날 자신의 배꼽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불편한 일상생활을 이어간다. 〈수록 부분〉
전개	배꼽에 대한 지속적인 사색 끝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배꼽론을 발전시키고, 이 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배꼽에 관심을 갖는 현상이 나타나 허원은 유명 인사로 부상한다. 〈수록 부분〉
위기	기자들이 배꼽 철학 인터뷰와 함께 허원의 배꼽 사진 게재를 요청하지만, 배꼽이 없는 허원은 자신의 진짜 배꼽을 내보일 수 없어 고민에 빠진다.
절정	허원은 자신의 배꼽 그림 대신 막연한 대리인 그림을 제출하지만 결국 주목받지 못하고, 기자는 무단으로 다른 사람의 배꼽 사진을 사용하기에 이른다.
결말	기자를 피해 열차를 타고 도주한 허원은 잠에서 깨어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자신의 배꼽이 돌아온 것을 발견한다.

특징

① 화가, 관객, 평론가의 시선이 교차하며 서술됨.
② 반복과 변주를 통해 동일 주제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함.
③ 열린 결말을 통해 독자에게 질문과 성찰을 유도함.

04 서술상 특징

정답 ④ 정답률 89%

정답 풀이

④ ㉣: 인물의 상황에 관련된 정보를 부가하여 서술하고 있다.

➡ ㉣은 '어느 해 여름이었다.'의 뒤에 '하니까'라는 표지를 사용하여 '허원'이 '자신의 배꼽을 잃어버리고 나서 불편하기 그지없는 세 번째의 여름을 맞고 있을 때'라고 서술하며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덧붙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을 나타내어 서술하고 있다.

➡ ㉠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허원'의 생각을 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누구의 생각을 누가 말하는지 명시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하며 그 심화된 의미를 함축하여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의 개입

➡ ㉡은 '허원'의 생각을 '허원'의 목소리로 드러낸 것으로, 인물의 생각을 서술자가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③ ㉢: 인물의 의식을 인물 자신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작품 안의 서술자

➡ ㉢은 '허원'의 의식을 작품 밖 서술자를 통해 서술한 것이다.

⑤ ㉤: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은 배꼽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갑자기 일반에까지 성행하게 된 현상을 서술한 것이므로, 인물 행동의 진행 과정을 순차적으로 서술한 것이 아니다.

개념의 좌표

- 서술자와 시점(→ 124쪽)
- 서술자의 개입(→ 144쪽)
- 평면적(순행적) 구성(→ 184쪽)

05 소재의 기능

정답 ③ 정답률 82%

정답 풀이

③ 일상적이지 않은 경험을 인물이 의식한다는 표지로, 인물의 심리적 동요를 부른다.

➡ 비밀'은 '허원'의 배꼽이 없어진 비현실적인 경험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허원'이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긴 채 혼자만 알고 있음을 보여 주는 표지가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허원'은 결국 허망감에 빠져 끝없는 상념들을 쌓으며 심리적인 동요를 하게 된다.

오답 풀이

① 자신의 신념을 인물이 돌이켜 본 결과로, 새로운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주제를 형성한다.

➡ 갑자기 배꼽이 사라진 사건에 대한 '비밀'은 '허원'이 자신의 신념을 돌이켜 본 결과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전환점으로, 갈등으로 인한 위기감을 완화한다.

➡ 얽힌 인간관계를 인물이 성찰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비밀'이 이러한 서사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상충된 이해관계를 인물이 조정하는 단서로, 심화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한다.

➡ 인물이 상충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비밀'이 이러한 내용의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기성의 질서에 인물이 저항한다는 신호로, 돌발적 사건의 발생을 알린다.

➡ 기성의 질서에 저항하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으므로, '비밀'이 이를 나타내는 신호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개념의 좌표

- 소재의 기능(→194쪽)
- 갈등의 해소(→175쪽)

06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④ 정답률 83%

보기

이 작품은 주인공이 배꼽을 잃어버렸다는 허구적 설정으로 시작하여, 이후 배꼽을 둘러싼 희화적 에피소드들이 이어진다. 주인공은 으레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불편한 생활을 이어 가던 중 배꼽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꼽에 관련된 개인적 상황은 물론 인간 존재와 사회 상황에 대한 심층적 탐색이 이루어진다.

정답 풀이

④ '그의 사념'이 도달한 '배꼽론'의 '확고한 경지'는 사소한 것의 심층적 의미를 탐색할 때 이를 수 있으므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이 가능해지겠군.

➡ '허원'이 배꼽론에 대해 매우 '확고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꼽'에 매달려 '거기에서밖에는 영영 더 이상 자유로워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실현된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의식의 끈'이 '건드려'짐으로써 주인공이 비정상적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게 된 것이겠군.

➡ '의식의 끈'이 '건드려'진다는 것은 배꼽이 없는 자신에 대해 익숙해지지 못하고 허전함을 느끼는 상태로, 주인공이 비정상적인 문제 상황에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② '회사 출근'을 포기하게 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상황은, 주인공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배꼽이 없어진 이후 '회사 출근'을 포기하고 '늦잠 버릇'이 사라진 '허원'의 모습은 그의 일상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준다.

③ '배꼽'을 '탯줄'에 연관하여 이해하는 것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우주와 만나'는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할 수 있겠군.

➡ '배꼽'을 '어머니의 탯줄', '우주'로 확장하여 이해한 그의 생각은 개인에 관련된 생각을 '심오하고 추상적인 생각'으로 확장하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⑤ '기묘한 현상'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상황이 뜻밖이지만 '사실'로 나타나는 현상을 두고 일컬은 말이라고 할 수 있겠군

➡ '기묘한'은 '배꼽 이야기'가 '일반화'되는 뜻밖의 상황을 나타낸 것이고, '현상'은 이러한 상황이 현실 속에서 '사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Ⅳ 고전 산문

01 설화, 가전

확인 문제 p.224~229

바로바로 간단 체크 단군 신화_ 작자 미상 ❶ 단군왕검 ❷ 환웅 ❸ 고조선 ❹ 건국 ❺ 자긍심 공방전_ 임춘 ❶ 공방 ❷ 농사 ❸ 벼슬 ❹ 의인화 ❺ 평가 ❻ 일대기 김현감호_ 작자 미상 ❶ 김현 ❷ (호랑이) 처녀 ❸ 호원사 ❹ 구체적 ❺ 전기적

01 ⑤ **02** ② **03** 비범하고 고귀한 혈통의 주인공을 나라의 시조로 나타냄으로써,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한다. **04** ⑤ **05** ③ **06** ④ **07** 흥륜사(의 간장과 나발 소리), 호원사 **08** ④ **09** ⑤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단군 신화_ 작자 미상

나라의 건국 과정과 영웅 서사 구조가 드러나는 건국 신화를 읽으면서 신화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환인–환웅–단군왕검'의 삼대에 걸친 일대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천상의 존재인 환인, 천상과 지상을 연결하는 환웅, 그리고 천상계와 지상계의 결합을 상징하는 단군왕검의 이야기로 구성된다. 특히 환웅과 웅녀의 혼인을 통해 단군왕검이 탄생한 점에서, 천부 지모형 신화의 성격을 보여 준다. 이러한 신성한 혈통을 가진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면서 시조(始祖)의 정당성과 신성성이 나타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건국 신화의 특징이 드러난다.

또한 신화 속에는 당시의 정치·문화·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환웅이 천왕으로 불린 점에서 제정일치 시대의 통치자임을 알 수 있으며, 곰과 범의 등장으로 토템 신앙, 풍백·우사·운사 등으로 농경 사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천상적 존재인 '환인',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환웅', 천상적 존재와 지상적 존재의 결합을 상징하는 '단군왕검', 곰에서 인간이 된 '웅녀'
- **사건**: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 쑥과 마늘을 먹고 삼칠일 만에 인간이 된 웅녀와 혼인하여 아들 단군왕검을 낳고, 단군왕검은 고조선을 건국함.

| 작품 개요 |
- **갈래**: 설화, 건국 신화
- **성격**: 서사적, 상징적, 민족적
- **제재**: 단군왕검의 신성한 탄생과 고조선의 건국
- **주제**: 홍익인간의 이념과 단일 민족의 역사성
- **특징**: ① 우리 민족이 하늘의 후손이라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함.
  ② 홍익인간이라는 고조선의 건국 이념이 나타남.
  ③ 단군왕검에 대한 삼대에 걸친 일대기적 구성이 나타남.
- **출전**: 《삼국유사(三國遺事)》

| 구성 |

1대	천상적 존재인 환인이 아들 환웅의 큰 뜻을 헤아리고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함.
2대	환웅이 천상과 지상을 매개하는 존재로서 지상계에 내려오고, 곰에서 인간이 된 웅녀와 혼인함.
3대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은 훗날 고조선을 건국함.

01 정답 ⑤

정답 풀이
설화 중에서도 건국 신화에 해당하는 이 글은 전승 범위가 민족으로 한정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오답 풀이
①, ③ 이 글의 갈래는 설화로 원작자가 밝혀지지 않은 집단적 창작물이며, 예로부터 입으로 구전되다가 훗날 기록된 것이라는 특성을 가진다.
② 흥미와 교훈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민담이다.
④ 비범한 인간이 좌절과 몰락을 경험하는 이야기는 전설이다.

02 정답 ②

정답 풀이
환인이 삼위 태백을 내려다보며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였고, '홍익인간' 정신을 펼치기 위해 환웅을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다. 따라서 '홍익인간' 정신을 처음 제시한 인물은 환웅이 아니라 환인이다.

오답 풀이
① 환인은 천상적 존재로 작품의 신성성을 높이고 있다.
③ '풍백' – 바람, '우사' – 비, '운사' – 구름은 농사에 영향을 미치는 날씨와 관련된 요소로, 당시 사회에서 농경 생활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드러낸다.
④ 곰은 환웅이 준 쑥과 마늘을 먹고 삼칠일(21일) 만에 여자가 된 동물로, 환웅과 혼인하여 단군왕검을 낳는다.
⑤ 단군왕검은 하늘의 신성한 혈통을 지난 환웅과 곰이 사람으로 변한 웅녀 사이에 태어난 고조선의 시조로 탄생부터 신성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일천오백 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후에 산신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일천구백여덟 살이었다는 점에서 초월성을 지닌 인물이다.

03

정답 풀이
인간이 된 곰과 하늘의 신의 아들인 환인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왕검은 비범하고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건국 신화에서는 국가의 시조를 신성화하여 나라 건국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하였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공방전_ 임춘

사물을 의인화한 인물과 인물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고려하며 가전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돈(엽전)을 의인화하여 그의 일대기에 걸친 내력과 행적을 허구적으로 구성한 가전으로, 돈의 폐단과 인간의 탐욕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 공방은 엽전의 형상에서 이름을 따온 인물로, 욕심 많고 염치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백성을 농업에서 멀어지게 하고 오직 이익만을 좇게 만드는 등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공방은 이해득실을 따지며 시정잡배와 어울리는 등 부정적인 행태를 보이며, 이를 통해 작가는 당시 사회의 잘못된 현실을 풍자하고 경계하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이 작품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그 가계와 생애, 성품을 전기 형식으로 기록하고, 주인공의 인물됨을 행동과 말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설화와 구별된다. 이러한 구조와 설정을 통해 작품은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사회적 비판과 풍자를 담아 내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돈을 의인화한 인물인 '공방'
- **사건**: 공방이 백성으로 하여금 근본인 농사를 버리고 돈을 좇게 함, 공방이 권력과 결탁하여 돈으로 벼슬을 사고팔아 부를 쌓음.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재물을 탐하며 탐욕적인 인물인 공방의 행태를 제시하고, 작품 말미에 사신의 말을 빌려 공방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견해를 강하게 드러냄.

| 작품 개요 |

- **갈래**: 가전
- **성격**: 풍자적, 우의적, 교훈적
- **제재**: 돈(엽전)
- **주제**: 돈(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돈을 탐하는 세태 비판
- **특징**: ① 의인화 기법을 활용한 전기적 구성임.
  ② 돈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비판적·풍자적 견해가 강하게 드러남.
- **출전**: 《서하선생집(西河先生集)》, 《동문선(東文選)》

| 구성 |

도입	공방의 가계와 등장 배경	• 공방의 가계와 등장 〈수록 부분〉 • 공방의 아버지 소개
전개	공방의 행적과 공과	• 공방의 성품과 행적 〈수록 부분〉 • 공방에 대한 탄핵과 공방의 죽음 • 공방 제자들의 등용, 그 폐단으로 인한 세력 약화 • 공방 아들의 죽음
비평	공방에 대한 사신의 평가	• 돈을 없애지 않은 후환과 폐단

04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에서 공방이 충신으로서의 면모를 보인 부분은 없다. 따라서 충신에서 간신이 되며 성격이 변화하는 입체적 인물이 등장한다고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공방(=돈)'의 유래를, 본래 거친 성질로 쓰이지 못하다가 갈고 닦여 쓸모 있는 존재로 변화하고 숯 화로 거리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가계(家系) 이야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③ 의인화된 공방의 일대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④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신의 평가를 통해 공방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5

정답 ③

정답 풀이

㉠에서 사신은 오나라 왕을 도와 권력을 휘두르며 사익을 추구하는 공방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③에서는 중천, 날빛, 구름이 각각 조정, 임금, 간신을 의미하여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간신의 횡포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의 사신의 태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의를 따르며 천성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드러나는 시조이다.
② 충신을 회유하는 내용의 시조이다.
④ 매화의 절개에 대해 예찬하는 내용의 시조이다.
⑤ 지조와 절개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시조이다.

06

정답 ④

정답 풀이

공방의 행태에 대해 사람들이 '공방의 말 ~ 백 근만 하다.'라고 평가하는 장면일 뿐, 사신의 평가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도입 부분에는 거친 성질로 쓰이지 못하다가, 갈고 닦아 쓰일 수 있게 되며 숯 화로 거리에 자리를 잡은 공방의 가계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
②, ③ 전개 부분에서는 욕심 많고 염치가 없는 공방의 성품과 부정부패를 일삼아 권세를 누리는 공방의 삶을 통해 돈의 폐해를 이야기하고 있다.
⑤ 비평 부분에서는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고 큰 이익을 좇는 공방에 대한 사신의 부정적 평가를 통해 작가의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7~09 개념으로 작품 읽기

김현감호_ 작자 미상

개별적 증거물과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는 전설 작품을 읽으며 설화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전설로, 호원사의 건립 내력을 밝힌 사찰 연기 설화이자,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신하는 변신형 설화이다.

사람으로 변신한 호랑이 처녀가 인간 남자와 사랑에 빠진다는 설정을 통해 환상적이고 신이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호랑이 처녀가 세 오빠와 김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부분에서는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또한 구체적인 시간과 지명(호원사 등)이 제시되어 개별적 증거물이 등장하는 전설의 특징을 지니고,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전기적(傳記的) 요소가 나타난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도덕적이고 진실한 인물인 '김현', 이타적이고 자기희생적인 인물인 '호랑이 처녀'
- **사건**: 호랑이 처녀가 김현에게 자신을 죽여 공을 세우게 하고, 김현은 절을 세워 그녀의 은혜에 보답함.

| 작품 개요 |

- **갈래**: 사찰 연기 설화, 변신형 설화
- **성격**: 불교적, 전기적, 환상적
- **제재**: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사랑
- **배경**: 시간 – 신라 원성왕 때, 공간 – 흥륜사
- **주제**: 자기희생의 고귀한 사랑
- **특징**: ① '원성왕 때', '호원사' 등 구체적 시간과 지명을 제시함.
  ② 절의 창건 내력을 밝혀 불교적 세계관이 제시됨.
  ③ 호랑이가 인간으로 변하는 전기적 요소가 나타남.
- **출전**: 《삼국유사(三國遺事)》

| 구성 |

발단	김현과 호랑이 처녀가 탑돌이를 하다가 만나 정을 통함.
전개	김현이 호랑이 처녀의 집에 따라갔다가 죽을 위기에 처함.
위기	호랑이 처녀가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함. 〈수록 부분〉
절정	김현이 호랑이 처녀를 잡아 공을 세우고 벼슬을 얻음. 〈수록 부분〉
결말	김현이 '호원사'라는 절을 세워 호랑이 처녀의 은혜에 보답함. 〈수록 부분〉

07 정답 흥륜사(의 간장과 나발 소리), 호원사

정답 풀이

전설은 사실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한다. 이 글에서는 기존에 존재했던 '흥륜사'의 간장과 나발 소리, 김현이 호랑이 처녀를 기리기 위해 새로이 지은 '호원사'가 개별적 증거물로 제시되어 있다.

08 정답 ④

정답 풀이

호랑이 처녀가 징계를 받는 것은 자신의 한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늘과 김현, 그리고 자신의 일족과 나라를 위해서이다. 호랑이 처녀가 부탁한 것은 불교의 공덕에 따라 불법을 얻게 되는 것뿐이었다.

오답 풀이

① "어찌 차마 베필의 죽음을 팔아서 일생의 벼슬을 바랄 수 있겠소?"라는 김현의 말, 이후 처녀가 자신의 희생을 통해 얻을 이로움을 제시하고 서로 '울면서 헤어'진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김현은 호랑이 처녀의 부탁을 받아들임으로써 임금으로부터 벼슬을 받고 등용된다.

③ 호랑이 처녀는 '김현의 칼을 뽑아 스스로 목을 찔러 쓰러'진다.

⑤ 호랑이 처녀가 김현을 설득하며 '제가 일찍 죽는 것'은 '저의 소원이요, 낭군의 경사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09 정답 ⑤

정답 풀이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범이 희생을 감행하기 직전의 일이다. 범의 희생에 대한 김현과 처녀(범)의 갈등이 이미 해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장면이 부처가 김현과 처녀(범)의 만남에 감동하여 부처의 전능함이 발현되는 계기가 되는 장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실현되는 서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02 고전 소설의 개념과 특징

확인 문제 p.234~239

바로바로 간단 체크 이생규장전_ 김시습 ❶ 사랑 ❷ 최랑 ❸ 전기적/비현실적 ❹ 유교 ❺ 불교 ❻ 도교 구운몽_ 김만중 ❶ 성진 ❷ 팔선녀 ❸ 양소유 ❹ 불도 ❺ 이원적 ❻ 적강 ❼ 문어체 정각록_ 작자 미상 ❶ 태자비 ❷ 육도 자사 ❸ 개입 ❹ 평면적/순행적 ❺ 전기 ❻ 유교

01 ② **02** ③ **03** ㉮: 유교, ㉯: 불교 **04** 팔선녀 **05** ⑤ **06** ④ **07** ⑤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이생규장전_ 김시습

우연성과 전기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읽으며 고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이생과 최랑의 자유연애가 등장한다. 두 사람은 관습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사랑을 하지만 홍건적의 난으로 최랑이 죽고 만다. 두 사람의 사랑은 최랑의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다시 이루어지는데, 이는 비극적 현실을 환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현실 극복 의지가 드러난 것이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시문에 능하고 수려한 외모를 지닌 선비 '이생', 홍건적의 위협에도 절개를 지킨 '최랑'
- **사건**: 이생과 최랑은 서로 사랑하여 부부의 연을 맺지만, 홍건적의 난으로 최랑이 죽게 됨. 이생은 우연히 옛집에 갔다가 최랑의 환신과 재회하고 함께 살기로 함.
- **의의**: 최초의 한문 소설, 조선 시대 소설 발달에 큰 영향을 줌.

| 작품 개요 |

- **갈래**: 한문 소설, 애정 소설, 전기(轉奇) 소설
- **성격**: 전기적(傳奇的), 비극적, 낭만적
- **배경**: 시간 – 고려 말(공민왕) 홍건적의 난 때, 공간 – 조선 황해도 송도(개성) 선죽리
- **제재**: 남녀 간의 사랑
-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 **특징**: ① '만남과 이별'의 흐름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임.
  ② 유·불·선 사상이 함께 나타남.
  ③ 시의 삽입(삽입 시)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 구성 |

발단	이생은 어느 봄날 서당에 다녀오다가 우연히 담 너머로 최 씨 집안의 아름다운 처녀 최랑을 보게 된다.
전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시를 주고받는데, 이생의 부모가 이를 눈치채고 둘을 헤어지게 한다. 최랑이 상사병에 걸리자 최랑의 부모는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여 두 사람을 혼인시킨다.
위기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고, 이생은 간신히 목숨을 보전했으나 최랑은 정조를 지키다가 홍건적의 손에 죽게 된다.
절정	이생이 가족의 생사를 알 수 없어 슬퍼하던 중, 최랑이 환생하여 돌아오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삼 년 동안 행복하게 산다. 〈수록 부분〉
결말	최랑은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장사 지내 줄 것을 부탁하며 이생에게 영원한 이별을 고한다. 이생은 아내의 유언에 따라 장사를 지내 주고, 아내를 그리워하다 병들어 죽는다.

01

정답 ②

정답 풀이

죽은 아내가 환생하는 것에서 고전 소설의 전기성(傳奇性)이 드러나지만 아내는 천상계의 인물이 아니므로 아내가 적강을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답 풀이

① 이미 죽은 아내가 환생하여 이생과 만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이므로, 전기성(傳奇性)이 드러나는 장면이다.

③ 이생은 아내가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함께 살기로 한다. 이러한 이생의 태도에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이라는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④ 평면적 인물은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격이 변하지 않는 인물을 말한다. 이생은 아내가 이승에 없는 사람임을 알고도 변함없이 아내를 사랑하므로 '평면적 인물'로 볼 수 있다.

⑤ 이생은 죽은 아내와 옛집에서 우연히 만나고 있다.

02

정답 ③

정답 풀이

이생의 아내인 최랑이 도적을 만나 남편과 헤어지고, 사망한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시는 ③이다.

오답 풀이

① 윤선도의 연시조 〈만흥(漫興)〉의 제3수로, '뫼(산)'가 그리워하던 임보다 더 반갑다고 하는 자연 친화적 태도가 두드러지는 작품이다.

② 황진이의 시조로, 자신과 떨어져 있는 임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다.

④ 월산 대군의 시조로, 가을 강에 낚시를 하러 가서 빈 배에 달빛을 싣고 돌아온다는 점에서 욕심 없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⑤ 사랑이 이루어짐에 대한 기쁨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③과 함께 〈이생규장전〉에 삽입된 시이다.

03

정답 ㉮: 유교, ㉯: 불교

정답 풀이

의리를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최랑의 태도로 보아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유교적 도리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생, 현생, 내세를 의미하는 삼세의 인연을 강조하는 최랑의 말에서 불교적 윤회 사상이 나타난다.

04~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 구운몽_ 김만중

이원적 구성과 환몽 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을 읽으며 고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현실 → 꿈 → 현실'의 환몽 구조로 세속적 욕망이 꿈속의 일처럼 허망한 것임을 말하는 소설이다. 또한 환몽의 전환 과정이나 남녀의 만남 과정을 실감 나게 서술하여 독자를 사로잡고 있으며, 등장인물이 각각의 개성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우아하고 품위 있는 문체로 배경과 인물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하였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세속의 부귀영화를 탐내다가 인간 세계로 추방되는 '성진', 가르침을 주기 위해 성진을 인간 세계로 내쫓아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알려 주는 '육관 대사', 성진과 함께 인간 세계로 내려온 팔선녀
- **사건**: 성진이 불교의 가르침을 잊은 채 술을 마시고 팔선녀와 놀았던 일때문에 인간 세계로 쫓겨나게 됨.
- **의의**: '현실 – 꿈 – 현실'의 구조를 완벽하게 장편 소설로 그려 내 후대의 소설에 영향을 미침.
- **사상적 배경**
  – 유교적 사상: 입신양명, 부귀공명(당시 양반 사회의 이상적 인생관),
  – 도교적 사상: 작품의 비현실적 내용을 이루는 신선 사상(선녀와 용왕 등),
  – 불교적 사상: 핵심적 주제를 이루는 사상 → 공(空) 사상

| 작품 개요 |

- **갈래**: 국문 소설, 영웅 소설, 애정 소설, 환몽 소설, 액자 소설
- **성격**: 전기적, 이상적, 불교적
- **배경**: 시간 – 중국 당나라 때, 공간 – 연화 도량(현실:천상계), 당나라 서울과 중국 일대의 변방(꿈: 지상계)
- **제재**: 꿈을 통한 성진의 득도 과정
- **주제**: 인생무상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
- **특징**: ① '현실 → 꿈 → 현실'의 이원적 환몽 구조를 지닌 일대기 형식임.
  ②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나타나며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임.
  ③ 설화 〈조신의 꿈〉의 영향을 받음.

| 구성 |

발단	성진이 세속의 부귀영화를 탐내다가 육관 대사에 의해 인간 세계로 추방된다. 〈수록 부분〉
전개	성진은 인간 세계에서 양소유로 환생하고, 성진과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에 환생한 팔선녀와 차례로 인연을 맺는다.
위기	두 부인과 여섯 첩을 거느린 양소유는 입신양명하여 벼슬이 승상에 이르는 등 부귀영화를 누린다.
절정	양소유는 두 부인과 여섯 첩을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랐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 이때 한 도승이 그를 꿈에서 깨운다.
결말	깨달음을 얻은 성진은 잘못을 뉘우치고 불교에 다시 귀의하고, 팔선녀도 불교에 귀의하기를 청한다. 이후 아홉 사람은 불도를 열심히 닦아 모두 극락세계로 들어간다.

04

정답 팔선녀

정답 풀이

성진은 팔선녀를 만나고 온 후 그들을 그리워하여 사사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

05

정답 ⑤

정답 풀이

성진이 풍도로 쫓겨나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어기고 인간의 욕망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는 인물의 영웅적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영웅의 일대기를 따른다고 볼 수 없다. 영웅의 일대기가 드러나는 부분은 성진이 인간 세계에서 출세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속에서의 이야기이다.

오답 풀이

① 대사가 황건 역사를 부르자 공중에서 신장이 내려오는 장면에서 초월적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② 작품의 배경인 연화 도량은 천상계로서 현실을 초월한 공간이다.
③ '성진이 머리를 조아리고 울며 가로되' 등의 서술에서 일상 대화에서 쓰이지 않는 말투인 문어체가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뒷부분 줄거리]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06~07 개념으로 작품 읽기

정각록_ 작자 미상

영웅적 인물과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는 영웅 소설을 읽으며 고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로, 주인공 정 소저(태자비)의 영웅적 활약상을 다룬다. 정 소저는 백성에게 덕을 베풀고,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며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태자비가 된 후에는 비범하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반역 세력을 숙청하며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수호한다. 이처럼 작품은 여성을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주체적 영웅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조선시대 양반층이 무능한 왕권과 권력층의 횡포에 품었던 증오와 원한을 소설 속 사건과 인물로 형상화한 것이다. 특히 정치적 문제로 억울함과 울분이 쌓였던 몰락 양반층의 심리와 연결되며, 작자는 이를 통해 황실의 권위를 비판하고 실추시키려는 의도를 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반역 세력을 숙청하는 여성 영웅 '정 소저(태자비)', 태자비의 조력을 받는 '천자', 반역 세력인 선봉장 '원이정'과 도원수 '양경', 여섯 도읍의 자사(양주 자사, 황주 자사 등)
- **사건**: 선봉장 원이정과 도원수 양경은 적과 싸우는 척하다 일부러 적진에 잡혀감. 태자비는 반역 세력인 육도 자사를 모두 처단하여 천자에게 바치고, 다시 성에 들어가 양경과 원이정을 비롯한 남은 역적을 다 없애고 환궁할 것을 고함.
- **서술자의 태도**: 국가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태자비로부터 유교적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서술자의 인식이 드러남.

| 작품 개요 |

- **갈래**: 고전 소설, 영웅 소설, 전기 소설
- **성격**: 전기적, 비현실적
- **배경**: 시간 – 중국 명나라, 공간 – 황실과 전장
- **제재**: 태자비(정 소저)의 영웅적 활약상
- **주제**: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반역 세력을 숙청하는 태자비의 영웅적 활약
- **특징**: ① 전기적 요소를 통해 비현실적인 상황이 부각됨.
  ②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반역 행위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냄.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과 상황에 대해 생각을 서술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됨.

| 구성 |

발단	정욱의 딸로 뛰어난 외모와 무술 실력을 갖춘 정 소저는 양귀비의 오빠 양경이 며느리로 삼으려 하자 죽었다고 속이고 숨는다. 그리고 숨은 곳에서 태자와 만나 서로 사랑하여 태자비가 된다.
전개	태자비(정 소저)는 모함과 위기를 겪으며 숨어 지내고, 남장을 한 채 떠나며 이원종의 딸과 혼인한다.
위기	양경이 반란을 일으키고, 황제와 양경의 권력이 대립한다. 양경과 원이정의 거짓 항복으로 황제는 위기에 처하고, 나라의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절정	태자비는 뛰어난 실력과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직접 나서서 황제 측을 돕고 반란군을 진압한다. 〈수록 부분〉
결말	태자비는 황후가 되고 태자는 황제가 되어 둘은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06

정답 ④

정답 풀이

태자비와 황주 자사가 싸우는 장면에서 공간이 환상적으로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태자비의 영웅적인 능력이 부각되고 있을 뿐 인물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평면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② 태자비와 백성, 태자비와 천자 등의 대화를 중심으로 사건 전개 양상이 제시되고 있다.
③ '태자비가 입은 전포의 용두에서 ~ 양진을 분별하지 못하였다.'에서 전기성이 드러나고 있다.
⑤ '그런데 문득~감히 당하리오.'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난다.

07

정답 ⑤

정답 풀이

태자비는 풀어 주었던 양경과 원이정을 잡아들여 '반적을 다 없'애려 하고 있으므로 태자비가 양경과 원이정에게 인정을 베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태자비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국가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태자비가 반역 무리가 '조정을 침노'해 천자가 죽을 위기에 처했다는 백성의 말을 듣고 '역적을 깨뜨'려 '임금을 구원하'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반대파를 숙청함으로써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태자비가 '임금을 구원하'려 전장에 나가 싸우는 모습에서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태자비가 전장에 나가 '모든 역적을 함몰시'킨 것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는 영웅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03 고전 소설의 유형

확인 문제

p.244~249

바로바로 간단 체크 호질_ 박지원 ❶ 북곽 선생 ❷ 동리자 ❸ 범 ❹ 꾸짖음 ❺ 풍자 ❻ 의인화 ❼ 희화화 유충렬전_ 작자 미상 ❶ 유충렬 ❷ 정한담 ❸ 강희주 ❹ 군담 ❺ 이원적 ❻ 적강 ❼ 일대기 왕시전_ 작자 미상 ❶ 김유령 ❷ 늙은 신하 ❸ 화산도사 ❹ 애정 ❺ 전기적

01 ③ **02** 북곽 선생은 ㉠과 같은 세상의 평판과 달리 ㉡과 같이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위선적인 인물이므로 범은 그를 더럽다고 평가한 것이다. **03** ⑤ **04** ③ **05** ⑤ **06** ④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호질_ 박지원

부정적인 인물을 풍자하는 표현 기법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읽고 풍자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호질〉은 '북곽 선생'과 '동리자'라는 부정적인 인물을 우화적인 수법을 활용하여 비판한 작품이다. 의인화된 동물인 '범'이 직접 '북곽 선생'을 꾸짖는 방식으로, 짐승만도 못한 인간의 부도덕성을 풍자하고, 당시 양반 계층의 부패한 도덕 관념과 허위의식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범'은 성리학적 이념만을 중시하는 사대부와 그들의 부도덕성을 비판해 온 작가의 의식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범 앞에서 보이는 '북곽 선생'의 비굴한 행동과, 범이 사라지고 난 뒤 '북곽 선생'이 농부 앞에서 보이는 위선적인 모습을 통해 끝까지 위선과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양반 계층의 이중성도 풍자하고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인품이 훌륭한 선비로 알려졌으나 위선적인 '북곽 선생', 과부이면서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낳은 '동리자', 북곽 선생을 꾸짖는 '범'
- **사건**: 북곽 선생은 열녀로 알려진 동리자와 밤을 보내다 북곽 선생을 여우로 착각한 다섯 아들에게 쫓겨 귀신인 척하며 도망치고 똥으로 가득 찬 구덩이에 빠짐. 그 꼴을 본 범이 북곽 선생에게 '더럽다'고 말함.
- **서술자의 태도**: 의인화된 동물인 범을 내세워 위선적이고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북곽 선생과 동리자에게 비판적인 태도를 보임.

| 작품 개요 |

- **갈래**: 한문 소설, 풍자 소설, 우화 소설
- **성격**: 풍자적, 우의적, 비판적
- **배경**: 시간 – 조선 후기, 공간 – 정(鄭)나라, 어느 고을
- **제재**: 양반의 위선과 허세
- **주제**: 양반의 위선적인 삶과 인간 사회의 부도덕성 비판
- **특징**: ① 호랑이를 의인화한 우의적 수법을 사용함.
  ② 인물의 행위를 희화화하여 제시함.
  ③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인간의 부정적인 삶을 비판함.
- **출전**: 《열하일기(熱河日記)》 중 〈관내정사(關內程史)〉

| 구성 |

발단	어느 고을에 학자로 존경받는 북곽 선생이라는 선비와 수절을 잘하는 부인이라 하나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둔 과부 동리자가 있었다. 〈수록 부분〉
전개	북곽 선생이 동리자의 방에 들어가 밀회를 즐기고 있는데, 과부의 아들들이 북곽 선생을 천 년 묵은 여우로 의심하여 방으로 쳐들어온다. 〈수록 부분〉
위기	북곽 선생은 도망치다가 똥구덩이에 빠진다. 〈수록 부분〉
절정	때마침 먹잇감을 찾아 마을에 내려온 범은 북곽 선생의 위선적인 모습과 인간들의 파렴치한 행동 등을 날카롭게 꾸짖고 사라진다. 〈수록 부분〉
결말	북곽 선생은 머리를 조아리며 비굴한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다가 새벽에 일하러 나온 농부와 마주친다. 범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북곽 선생은 또다시 위선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자기변명을 한다.

01

정답 ③

정답 풀이

동리자는 열녀로 알려져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이미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물이다. 따라서 동리자가 자신을 열녀로 받드는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성이 다른 다섯 아들을 낳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천자는 북곽 선생의 행동을 가상히 여겼고 제후는 그의 명망을 존경했다. 그러나 북곽 선생은 늦은 밤 과부의 방에 들어가는 등, 당시에는 금기시되던 행동을 하는 인물이므로 북곽 선생에 대한 천자와 제후의 평가는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동리자의 아들들은 어머니의 방에 들어간 북곽 선생을 여우가 사람으로 둔갑한 것으로 착각했으므로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우를 잡는다고 방에 쳐들어가는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

④ 북곽 선생은 밤늦게 과부의 방에 든 자신의 행동이 떳떳하지 못한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귀신 흉내를 내며 도망치는 것이다.

⑤ 북곽 선생은 겉과 속이 다른 인물로, 당시 지배층의 위선적 면모를 보여 준다. 그리고 동리자 역시 당시 수절을 잘하는 부인으로 칭송받던 인물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인물이다.

02

정답 풀이

이 작품은 위선적이며 부패한 사대부(선비) 계층을 비판하기 위해 쓴 것이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 유충렬전_ 작자 미상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에 주목하며 영웅·군담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유충렬전〉은 조선 후기 군담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 충실히 구현되었으며, 천상계의 신선이었던 주인공이 죄를 짓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이원적 구성과 적강 구조도 나타난다. 주인공이자 충신인 '유충렬'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간신 '정한담'의 모함과 반역으로 위기에 처하지만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위기에 처한 가문과 국가를 구출하게 된다.

또 유충렬이 호국을 정벌하고 통쾌한 설욕을 하는 장면은 병자호란 이후 생긴 민중들의 청나라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천상계의 신선이었다가 유심의 아들로 태어난 인물이자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인 '유충렬', 스스로 천자가 될 능력을 지녔다고 천자를 협박하는 '정한담', 유충렬을 믿고 있다가 정한담의 습격을 받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천자'
- **사건**: 정한담의 계략으로 가족과 헤어지게 된 유충렬은 강희주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고, 도술을 익히며 때를 기다림. 정한담이 호국과 내통하여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유충렬은 정한담을 진압하고 천자를 구함.
- **서술자의 태도**: 천자에 대한 안타까움의 심정을 직접 드러내고 있음.

| 작품 개요 |

- **갈래**: 국문 소설, 영웅 소설, 군담 소설, 적강 소설
- **성격**: 전기적, 비현실적, 영웅적
- **배경**: 시간 – 중국 명나라 시대, 공간 – 명나라 조정과 중국 대륙
- **제재**: 유충렬의 영웅적 일대기
-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인 행적
- **특징**: ① 천상계와 지상계로 이원적 공간이 설정됨.
  ② 전형적인 영웅 소설, 군담 소설임.

| 구성 |

발단	명나라 고관인 유심은 늦도록 자식이 없자 산천에 기도하여 신이한 태몽을 꾸고 충렬을 낳는다.
전개	유심의 정치적 적인 간신 정한담은 누명을 씌워 유심을 귀양 보내고 충렬 모자마저 죽이려 하나, 충렬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강희주의 사위가 된다.
위기	강희주마저 정한담에 의해 귀양을 가게 되고 충렬은 아내와 헤어져 광덕산의 도승을 만나 도술을 배우게 된다.
절정	정한담이 남적, 북적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충렬이 등장해 천자를 구해 낸다. 〈수록 부분〉
결말	충렬은 반란군을 진압하고 황후·태후·태자를 구출하며 유배지에서 고생하던 아버지와 장인을 구한 뒤 아내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린다.

03

정답 ⑤

정답 풀이

정한담은 충렬이 천자가 있는 도성이 아닌 금산성으로 가도록 계략을 꾸몄다. 이후 충렬이 없는 틈을 타 천자를 공격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한다.

오답 풀이

① '천자'는 옥새를 품고 도망치다가 '정한담'에게 붙잡혔으므로 옥새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다.

② '정한담'은 '유충렬'을 금산성으로 유인한 후 자신은 정예병만을 거느리고 '천자'를 잡기 위해 도성으로 갔다.

③ '정한담'은 자기 자신을 하늘이 낸 영웅이며 천자가 될 운명이라고 말했다.

④ '천자'는 '원수(유충렬)'만을 믿고 안심하여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성 안을 지키는 군사는 거의 없었다.

04

정답 ③

정답 풀이

㉢에서는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인물의 행위를 과장하여 서술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충렬의 부모는 자식을 얻기 위해 형산에서 기도한 후 신기하고 이상한 꿈을 꾸고 충렬을 낳았다. 이는 영웅의 일대기에서 '기이한 출생'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② 부모와 떨어진 충렬은 전적 고관인 강희주의 도움을 받아 목숨을 건지고 그의 사위가 된다. 따라서 강희주는 충렬에게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호국의 군사들을 낮잡아 '되놈'이라고 칭하는 것은 당시 오랑캐에 대한 민중들의 적개심을 반영한 서술이다.

⑤ 정한담 또한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내려온 인물로, 비범한 능력을 보이며 유충렬과 대립하고 있다. 정한담이 고함을 지르자 '궁궐이 무너지고 혼백이 상천'한다는 내용은 정한담의 비범함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왕시전_ 작자 미상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과 초월적 존재의 조력, 적강 구조 등이 나타난 작품을 읽으며 애정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남녀이합형(男女離合型) 애정 소설로서 여인을 향한 남성의 순수한 사랑을 그린 이야기이다. 권력을 상징하는 늙은 신하에 의해 이별하게 된 남녀 주인공이 화산도사라는 천상계 인물의 힘을 빌려 다시 만나게 되면서 행복한 결말을 맞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에는 전반적으로 도교적인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며, 천상계와 인간계로 나뉜 이원적 구성과 본래 천상계 인간이었던 김유령이 잘못을 저질러 인간계로 내쳐졌다는 부분에서 적강 구조가 나타난다. 특히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으로 남녀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전기성이 돋보인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아내와 이별하게 되자 아내를 되찾기 위해 헌신하는 '김유령', 김유령의 아내 '왕시', 김유령을 도와 왕시와 재회하도록 도움을 주는 초월적 존재인 '화산도사'
- **사건**: 김유령과 왕시는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왕시가 나라의 높은 신하에 의해 대궐로 들어가 이별하게 됨. 김유령은 꿈속 선할아버님의 조언에 따라 화산도사를 찾아가 시키는 일을 묵묵히 행함. 5년 동안 아내를 찾기 위해 선업을 닦은 후 비로소 왕시를 되찾음.

| 작품 개요 |

- **갈래**: 국문 소설, 애정 소설
- **성격**: 전기적, 비현실적
- **제재**: 사랑의 시련과 재회
- **주제**: 여인을 향한 남성의 순수한 사랑
- **특징**: ① 초월적 존재의 도움으로 행복한 결말을 맞음.
  ② 전기적 요소가 나타나 비현실성을 부각함.
  ③ 천상계와 인간계가 나뉜 적강 구조가 나타남.

| 구성 |

발단	부모를 여의고 여종 무빙과 살던 왕시는 열아홉에 김유령과 혼인하지만, 혼인한 지 한 달 만에 늙은 신하에 의해 왕시가 궁녀로 들여지며 이별하게 된다.
전개	왕시를 그리워하던 김유령은 꿈의 계시를 따라 화산도사를 찾아가 재회를 부탁한다.
위기	김유령은 도사의 명에 따라 선행을 베풀었으나 바람직하지 못한 존재를 구했다며 다시 수행을 명받는다. 〈수록 부분〉
절정	다시 화산을 찾은 김유령은 도사의 힘으로 왕시와 함께 죽었다가, 자신만 되살아나 왕시의 장례를 치른다. 〈수록 부분〉
결말	김유령은 도사의 도움으로 왕시를 되찾아 함께 살며 높은 벼슬에 오른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 생을 마감하고, 김유령은 본래 선인이었으므로 자취를 감춘다.

05 정답 ⑤

정답 풀이

화산도사는 [A]에서 김유령의 행동을 질책하고 있고, [B]에서 김유령의 성품에 대해 칭찬하고 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A]와 [B]에 모두 상대방의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답 풀이

① [A]에서 화산도사는 무엇 때문에 뱀을 살게 하고, 어째서 도적을 살려 주었느냐며 김유령을 질책하고 있다.
② [B]에서 화산도사는 '너는 돌이나 쇠보다도 더욱 굳은 사람이로다.'라며 김유령의 성품을 칭찬하고 있다.
③ [B]에서 화산도사는 '네 돈을 내'라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A]에서 화산도사는 '두 가지 일을 또 저질렀으니 삼 년간 조심하고 사 년 만에 오'라며 문제 해결을 유보하고 있다.
④ [A]에서는 '삼 년간 조심하고 사 년 만에 오'라는 소원의 조건을 제시하였지만, [B]에서는 따로 조건을 제시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06 정답 ④

정답 풀이

김유령이 도술을 부린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인 화산도사가 부른 사람이 도술을 부린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늙은 신하라는 외부의 힘에 의해 남녀 주인공이 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그대가 선간에서 저지른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도사가 말하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전생에 신선계의 인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왕시를 만나기 위해 도사의 말을 따르는 것을 통해 왕시에 대한 김유령의 애틋한 사랑을 알 수 있다.
⑤ 김유령의 소원이 왕시를 다시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화산도사의 말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04 판소리, 판소리계 소설

확인 문제 p.254~259

바로바로 간단 체크 수궁가_ 작자 미상 ❶ 용왕 ❷ 별주부 ❸ 토끼 ❹ 독수리 ❺ 의사줌치 ❻ 적층적 ❼ 우화적 ❽ 고사 흥부전_ 작자 미상 ❶ 흥부 ❷ 놀부 ❸ 제비 ❹ 다리 ❺ 판소리계 ❻ 골계미 ❼ 서술자 ❽ 형제 춘향전_ 작자 미상 ❶ 춘향 ❷ 변학도 ❸ (성)춘향 ❹ 신분 ❺ 운문체 ❻ 판소리

01 ④ **02** ⑤ **03** ② **04** ② **05** ③ **06** ①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수궁가_ 작자 미상

고사의 활용, 해학, 언어유희 등이 잘 드러난 작품을 읽으며 판소리 사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설화 〈구토지설〉을 바탕으로 정착된 판소리 사설로, 〈토끼 타령〉·〈별주부 타령〉·〈토별가〉라고도 불린다.

우의적 수법을 통해 우직한 별주부와 영리한 토끼의 행위를 대

비시키며 인간 사회의 세태를 비판·풍자하는 이 작품은 특히 별주부, 토끼, 용왕 등의 인물에 따라 세속적 명리 추구, 지배층의 무능, 맹목적 충성 등 다양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내용적으로는 재주와 충성의 참된 의미를 일깨우며 교훈적 가치를 제시하고, 형식적으로는 고사의 활용, 풍자와 해학적 요소의 등장, 언어유희가 두드러지는 특성을 가진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피지배층을 대표하며 지혜롭게 위기에서 탈출하는 '토끼', 어리석고 무능력한 '용왕',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신하 '별주부', 토끼의 꾀에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독수리'
- **사건**: 별주부를 따라 수궁에 갔던 토끼는 간을 육지에 두고 왔다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함. 그러나 또다시 산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독수리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처하고, 토끼는 의사줌치가 있다는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모면함.
- **서술자의 태도**: 별주부의 꾀임과 독수리의 위협으로 죽을 위기에 처할 때마다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하는 토끼의 모습을 통해 당시 사회의 무능력한 지배층을 풍자하고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는 서술자의 인식이 나타남.

| 작품 개요 |

- **갈래**: 판소리 사설
- **성격**: 교훈적, 해학적, 우화적
- **배경**: 시간 – 원나라 순제, 공간 – 수궁(水宮)과 산중(山中)
- **제재**: 토끼의 목숨
- **주제**: 욕심에 대한 경계와 위기 극복의 지혜, 무능한 집권층에 대한 풍자
- **특징**: ① 우화적 수법을 사용하여 인간 세상을 풍자함.
  ② 비속어, 과장된 표현 등을 통해 해학성을 드러냄.
  ③ 지배층의 언어인 고사성어, 한문 투의 문장과 서민들의 일상적 어투가 혼재됨.

| 구성 |

발단	남해 용왕이 병이 들자, 이를 고치기 위해 토끼의 간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말에 용궁의 신하들은 토끼를 데려 오기로 한다.
전개	별주부는 자원하여 육지로 올라가 온갖 감언이설로 토끼를 유혹하고, 수궁으로 데려가는 데 성공한다.
위기	수궁에 도착한 토끼는 용왕이 자신의 간을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절정	토끼는 이미 육지에 간을 두고 왔다고 거짓말하며 용왕을 속이고, 간을 가지러 간다는 핑계로 육지로 나온다.
결말	육지로 돌아온 토끼는 별주부와 용왕의 어리석음을 조롱하며 달아나고, 뒤이어 독수리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자 재치와 기지를 발휘해 가까스로 살아남는다. 〈수록 부분〉

01

정답 ④

정답 풀이

토끼는 옛이야기 속 인물들을 자신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추켜세우고 위기를 모면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겸손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창자가 부르는 창인 '중중모리', '중모리'와 사설인 '아니리'가 번갈아 나오고 있다.

② 중중모리로 창을 하는 장면에서 '얼씨구~좋을씨구' 부분에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언어유희가 나타나고 있다.

③ 토끼는 수궁에서 간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지만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육지로 돌아온다. 이후 산속에서 무서운 독수리를 만나 또 다시 잡아 먹힐 위기에 처하지만, 임기응변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한다.

⑤ 위기에서 벗어난 토끼의 기쁜 심정을 이야기할 때는 빠른 장단인 중중모리를, 독수리에게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보다 느린 장단인 중모리를 사용하고 있다.

02

정답 ⑤

정답 풀이

독수리에게 의사줌치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은 '아니리'의 한 장면으로, 창으로 불리우고 있지 않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흥부전_ 작자 미상

근원 설화가 바탕이 된, 해학이 잘 드러난 작품을 읽으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흥부전〉은 〈춘향전〉, 〈심청전〉과 더불어 3대 판소리계 소설로 꼽히며, 놀부와 흥부의 삶을 해학으로 승화한 평민 문학의 대표작이다. '방이 설화, 박타는 처녀 설화' 등을 근원 설화로 하여 〈흥부가〉 → 〈흥부전〉 → 〈연의 각〉 등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적층 문학이기도 하다.

형제 간의 우애를 주제로 강조하면서도 조선 후기에 몰락하기 시작한 양반의 모습과 비참한 서민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특히 해학적인 문체를 사용하여 비참하게 살아가는 서민의 절박함이나 비극적 상황을 특유의 해학적 웃음으로써 극복하려는 골계미를 보여 준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토지가 없고 가난한 몰락 양반이지만 선량하고 정직하며 우애와 신의가 있는 '흥부', 형제인 흥부를 외면하고 부를 축적하며 탐욕과 심술로 가득 찬 '놀부'
- **사건**: 형 놀부는 가난한 동생 흥부를 외면하며 살다가, 흥부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구해 주고 큰 부자가 되자 자신도 억지로 제비 다리를 부러뜨리고 치료해 줌.
- **서술자의 태도**: 서술자는 흥부의 어짊과 욕심 없음을 칭찬하며, 놀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서술함.

| 작품 개요 |

- **갈래**: 국문 소설, 판소리계 소설
- **성격**: 교훈적, 해학적, 풍자적
- **배경**: 시간 – 조선 후기, 공간 – 경상도·전라도 경계 지역
- **제재**: 형제 간의 갈등과 우애
- **주제**: 형제 간의 우애, 권선징악(표면적 주제), 빈부 간의 갈등(이면적 주제)
- **특징**: ① 풍자와 과장된 표현, 익살, 해학 등 웃음의 미학이 잘 나타남.
  ②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남.
  ③ 〈춘향전〉, 〈심청전〉과 더불어 3대 판소리계 소설에 해당함.

| 구성 |

발단	경상도·전라도 경계 지역에 살던 연 생원은 놀부와 흥부 형제를 두고 죽었는데, 형인 놀부는 부모의 유산을 독차지하고 동생인 흥부를 내쫓는다.
전개	흥부는 놀부의 집에 쌀을 구하러 갔으나 매만 맞고 돌아오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품팔이와 매품팔이를 한다.
위기	흥부는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치료해 주고, 제비가 박씨를 물어온다.
절정	박 속에서 금은보화가 나와 흥부는 부자가 되고, 이를 따라한 놀부는 패가망신한다. 〈수록 부분〉
결말	흥부가 놀부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고, 형제는 화목하게 산다.

03

정답 ②

정답 풀이

㉠은 장면의 극대화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가난한 흥부가 남루하고 어설픈 옷차림을 하고 놀부의 집을 찾아가는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을 뿐, 중국에서 유행하던 옷차림을 나열한 것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에 ~고'의 문장 구조와 4·4조, 3·4조의 음수율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이 느껴진다.

③ 흥부의 옷차림은 작품의 전체 줄거리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장면의 극대화로 자세하게 묘사되었다. 이렇게 사건 전개에 중요하지 않은 장면의 극대화는 작품의 유기성을 떨어뜨린다.

④, ⑤ 흥부의 초라한 옷차림을 열거와 비유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04

정답 ②

정답 풀이

놀부는 흥부처럼 큰 부자가 되고 싶어 제비의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다. 즉, 그는 부자가 되기 위해 제비를 거짓으로 불쌍해하는 위선적 인물로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제비에게 가련하다고 위로하는 말은 진심이 아니므로 근본 심성이 착하다고 할 수 없다.

③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으므로 선한 인물형으로 볼 수 없다.

④ 놀부가 풍자의 대상인 것은 조심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의로 제비 다리를 부러뜨렸기 때문이다.

⑤ 놀부가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이므로, 놀부라는 인물을 친근하게 표현하려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 춘향전_ 작자 미상

이원적 구성, 장면의 극대화, 운문성 등이 드러난 작품을 읽으며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춘향전〉은 판소리로 전해지다가 소설로 정착된 판소리계 소설로, 조선 후기에 큰 인기를 끌어 120여 종의 이본이 전해진다.

표면적 주제는 양반 아들 이몽룡과 기생 딸 춘향의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지만, 이면적 주제는 신분 제약을 벗어난 인간 해방과 불의한 지배층에 대한 서민의 항거이다. 춘향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신분 제도의 제약을 넘어 기존 질서에 저항하며, 이는 민중의 사회적 비판 의식이 반영된 모습이다.

제시된 부분은 옥에 갇힌 춘향이 꿈에서 황릉묘의 안주인이자 정절의 상징인 두 부인을 만나는 장면으로, 현재의 고난이 본래 선계의 존재였던 춘향의 잘못 때문이며, 미래에 부귀영화를 누리리라는 암시를 담고 있다. 이는 고전 소설의 이원적 구성과 적강 구조를 보여 준다. 또한 꿈에서 깨어 현실을 마주한 춘향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장면에서는 운율적 요소를 활용해 장면을 극대화하며, 그녀의 심리를 더욱 절절하고 애절하게 전달한다.

핵심 정리

| 감상 포인트 |

- **인물**: 유교적 이념에 충실하여 정절을 지키는 '(성)춘향', 춘향과의 사랑을 지키는 인물인 '이 도령(이몽룡)', 선한 백성을 핍박하는 부패한 인물인 '변학도(변 사또)', 천상계 인물이자 정절의 표상인 황릉묘의 주인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
- **사건**: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한 죄로 옥에 갇힌 춘향은 꿈에서 황릉묘의 두 부인을 만나 자신이 천상계의 사람이었으며, 후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란 사실을 듣게 됨. 꿈에서 깬 춘향은 현실을 깨닫고 이 도령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한편 이 도령은 시험장에 가 빼어난 글 솜씨를 자랑함.

| 작품 개요 |

- **갈래**: 판소리계 소설, 애정 소설
- **성격**: 풍자적, 해학적, 평민적
- **배경**: 시간 – 조선 후기, 공간 – 전라도 남원
- **제재**: 춘향의 정절
- **주제**: 여성의 정절과 남녀 간의 사랑(표면적 주제), 신분제 극복을 통한 인간 해방과 지배층에 대한 저항과 비판(이면적 주제)
- **특징**: ① 풍자와 해학적 표현을 통해 골계미가 드러남.
  ② 운문체와 산문체가 혼합되어 나타남.
  ③ 서술자의 개입을 통한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남.

| 구성 |

발단	춘향의 자태에 첫눈에 반한 이몽룡은 춘향과 백년가약을 맺지만 이내 아버지를 따라 한양으로 떠나게 된다.
전개	남원에 새로 부임한 사또 변학도는 춘향에게 수청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한 춘향은 옥에 갇힌다. 춘향은 옥중 꾼 꿈에서 황릉묘의 두 부인을 만나 전생의 죄로부터 비롯된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 내면 미래에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수록 부분〉
위기	어사가 되어 남원에 돌아온 이몽룡은 춘향의 소식을 듣게 되고,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걸인의 행색을 하고 춘향을 만난다.
절정	변학도의 생일잔치에 찾아간 이몽룡은 암행어사로 출두하고, 변학도를 봉고파직한다.
결말	옥에서 풀려난 춘향은 이몽룡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고, 두 사람은 백년해로한다.

05

정답 ③

정답 풀이

[A]의 '벼룩 빈대 ~ 더욱 싫다.'에서 4음보 율격과 4·4조의 음수율, 음성 상징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표현이 운율을 형성하며 춘향의 두려운 심정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벼룩 빈대~번개는 번쩍번쩍'에서 공간의 특징이 열거됨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동방의 귀뚜라미 소리', '울고 가는 기러기'는 청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자연물이지만, 그리운 이를 향한 애틋함이 아닌 춘향의 근심을 표현하고 있다.

④ 고사를 인용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⑤ '이것을 먹고 살면 무엇할꼬'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웬일인고'에서는 춘향의 신세 한탄을 확인할 수 있다.

06

정답 ①

정답 풀이

춘향은 비극적인 현실로 인해 꿈 속에서 들은 긍정적 예언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이 도령의 장원 급제하는 모습을 보며 독자는 두 인물이 재회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달나라 구경을 이루지 못한 춘향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으나, 독자는 그보다 전생과 관련된 예언에 주목할 것이다.

③ 독자는 춘향이 자문하는 모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춘향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요소를 찾을 것이다.

④ 독자는 춘향의 부정적 반응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므로, 춘향의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

⑤ 꿈에서 깨어난 춘향이 허무함을 느낄 수 있으나, 독자는 예언에 주목하므로 춘향의 허무함을 느끼기보다는 춘향에게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수능 다가가기

p.262~265

01 ② 02 ④ 03 ④ 04 ① 05 ④ 06 ⑤

01~03 2025학년도 수능

작자 미상, 〈정을선전〉

주제 가정 내 인물 간 대립으로 인한 가정의 위기와 권선징악적 문제 해결

해제 이 작품은 남자 주인공 정을선과 여자 주인공 유추연이 만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정 내의 불화와 갈등을 다룬 가정 소설이다. 계모 노씨의 흉계로 추연이 죽음을 맞이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앞부분은 계모형 가정 소설의 구조를, 정렬부인 조씨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한 위기와 그 극복 과정을 다룬 뒷부분은 쟁총형 가정 소설의 구조를 보인다. 악행을 저지르는 정렬부인 조씨를 돕는 보조 인물들과 주인공을 돕는 보조 인물들이 서로 대응되는 것이 특징적인데, 출제된 지문에서는 정렬부인 조씨의 모함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충렬부인 유씨를 승상 정을선이 구해 내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

구성

발단	재상 정진희와 부인 양씨 사이에서 아들 을선이 태어나고, 뛰어난 용모와 재질을 가진 을선은 익주 유한경의 딸 추연과 혼약한다.
전개	을선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추연과 혼례를 올리지만, 계모 노씨의 음모로 을선이 추연을 의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위기	추연은 변명도 못한 채 울다가 죽고, 그녀의 혼령이 나타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 죽어 마을이 폐촌이 된다.
절정	을선이 금성산에서 구슬을 얻어 추연을 회생시키고, 충렬부인으로 삼아 사랑한다. 그러나 정렬부인의 시기로 충렬부인은 다시 위험에 처한다. 〈수록 부분〉
결말	충렬부인은 무사히 아들을 낳고, 을선이 진상을 밝힌 뒤 정렬부인을 처벌한다. 이후 을선과 충렬부인은 부귀를 누리며 함께 세상을 떠난다. 〈수록 부분〉

특징

① 영웅 정을선을 중심으로 유추연과의 사랑의 성취 과정을 다양한 사건으로 배열해 유기적으로 결합함.

② 전반부는 결연 장애의 계모형 가정 소설, 후반부는 처처 갈등의 쟁총형 가정 소설로 구성됨.

③ 주동 인물(유 부인)을 돕는 보조 인물들과 반동 인물(조 씨)을 돕는 보조 인물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함.

01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 ② 정답률 48%

정답 풀이

② ㉠을 보니, 승상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의 내용은 '이미 아는 바'와 같겠군.

➡ '이미 아는 바'는 호첩이 전한 편지를 읽고 놀라 호첩과 정렬부인으로부터 내막을 듣게 된 것을 의미하지만 '상소'에 들어 있는 내용은 월매와 옥졸의 이야기, 정렬부인의 시비 금연의 자백을 통해 얻은 모든 내용이므로, 둘은 같은 내용이라 볼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을 보니, 호첩에게 물은 '연고'의 내용은 왕비가 말한 '사연'과 관련이 있겠군.

➡ 승상이 호첩에게 '연고'를 묻고 집안의 변을 알게 된 뒤, 왕비에게서 '사연'을 듣고 이미 알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을 보니, 승상은 '사연'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왕비가 '그놈'의 행위를 알게 된 경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겠군.

➡ 승상이 왕비에게서 '사연'을 들은 뒤 던진 물음 ㉡에서 알 수 있다.

④ ㉡에 대한 왕비의 대답을 보니, 왕비에게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이 있었군.

➡ "사촌 오라비가 이르기로 알았노라."라는 왕비의 말에서 왕비의 사촌 오라비인 복록이 '그놈'의 행위에 대해 제보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⑤ ㉡이 제시된 후에 드러난 복록의 상황을 보니,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꼈겠군.

➡ 승상이 복록을 찾았을 때, 복록은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죽어 있었다. 따라서 복록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리적 중압감을 느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2 소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④ 정답률 69%

정답 풀이

④ 누명을 씌우기 위한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인물을 특정 장소로 유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 승상에게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아뢰는 금연의 말을 통해 남장을 한 금연을 충렬부인의 침소에 보내고, 충렬부인에게 침소로 가라고 강권을 하여 다른 남자와 통한 것으로 모함한 것이 누명의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렬부인의 계략에는 누명을 쓰는 충렬 부인을 특정 장소(침소)로 가게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오답 풀이

① 누명이 벗겨지면서, 누명을 썼던 인물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다.

➡ 왕비는 충렬부인이 누명을 썼음을 뒤늦게 깨닫고 통곡하므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인물은 충렬부인이 아니라 왕비이다.

② 누명을 쓴 인물의 요청으로 남주인공은 누명을 씌운 인물의 처벌을 유보한다.

➡ 승상은 누명을 쓴 충렬부인을 구해 진상을 밝히며 누명을 씌운 정렬부인을 고발하므로, 처벌을 유보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를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다.

➡ 누명의 내용은 누명을 쓴 인물인 충렬부인이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고 있다는 것이지 충렬부인이 남몰래 자신의 처소에서 벗어나 구덩이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⑤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남주인공이 자신의 어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만류한 것이다.

➡ 승상은 금연을 국문하는 과정에서 충렬부인이 누명을 쓰게 된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다. 따라서 충렬부인의 누명이 벗겨지는 계기는 정렬부인의 시비인 금연이 사건의 진상을 밝힌 일 때문이다.

03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④ 정답률 51%

보기

〈정을선전〉은 영웅 소설과 가정 소설의 상투적인 면모가 혼재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가정 안팎의 서사는 남주인공을 매개로 연결되고, 사건이 선악 구도로 전개되며, 인물의 고난과 감정은 극대화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다처제에서 비롯되는 가정 내 갈등이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된다. 그러면서도 상전의 수족에 불과한 하층의 시비가 능동적인 행위자로 등장하거나, 가정과 사회에서 상층인 인물이 희화화된다.

정답 풀이

④ 월매가 '매를' 맞는 장면에서, 월매는 자신이 모시는 주인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힘으로써 능동적인 행위자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월매는 매를 많이 맞으면서도 충렬부인의 시비인 금섬처럼 죽겠다고 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정을선이 황상에게 올린 상소에서, 대원수와 가장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가정 안팎의 사건에 남주인공이 두루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정을선이 서융을 정벌하고 돌아오던 중, 정렬부인이 충렬부인에게 누명을 씌운 일을 황상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승상이 충렬부인을 구출하는 장면에서, '슬픔에 매우 야위어 뼈가 드러'난 부인의 모습과 '통곡'하는 승상의 모습은 인물의 고난과 감정이 극대화된 형상임을 알 수 있군.

➡ 정을선이 구덩이 속에서 아기를 안은 충렬부인을 구하러 왔을 때, 충렬부인은 극도로 야윈 모습으로 나타나며, 두 인물의 형상은 감정과 고통이 극대화된 모습이다.

③ 왕비가 '앙천통곡'하는 장면에서, 충렬부인의 수난이 '악녀'의 탓이라는 인식이 드러나면서 일부다처제의 문제가 개인의 인성 문제로 축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왕비가 '앙천통곡'하는 장면에서 그녀는 자신이 '악녀'의 꾀에 빠져 충렬부인을 죽이려 하였다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⑤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 소리'에 반응하는 장면에서, 가정의 상층 인물이 자신의 위엄이 실추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희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정렬부인이 승상의 호통에 '똥을 한 무더기를 싸고 자빠졌다'는 묘사를 통해 드러난다.

개념의 좌표

- 영웅 소설(→ 242쪽)
- 가정 소설(→ 241쪽)
- 희화화(→ 164쪽)

04~06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작자 미상, 〈상사동기〉

주제 신분을 뛰어넘는 남녀의 사랑

해제 이 작품은 작중 인물들의 이름을 따서 〈영영전〉, 〈회산군전〉으로도 불리는 한문 애정 소설이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작품의 제목이자 배경인 '상사동'은 영영의 이모이자 김생을 도와주는 노파가 사는 동네의 지명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선비 김생과 궁녀 영영이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비교적 현실성 있게 그려 낸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구성

발단	명나라 효종 때 선비 김생이 성 밖에서 미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게 된다. 그녀의 정체가 회산군의 시녀(영영)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전개	상사병에 걸린 김생은 노파의 주선으로 회산군 집에 들어가 영영과 만나 정을 나누지만, 궁중 시녀였던 영영은 김생과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여 둘은 이별을 준비한다. 〈수록 부분〉
위기	이별을 앞둔 두 사람은 슬퍼하고, 김생은 절망에 빠져 지내다 마음을 다잡고 과거에 응시해 유가를 나온다.
절정	김생은 다시 회산군 집에 들어가 영영을 만났으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영영의 편지를 받고 그리움으로 앓아눕는다.
결말	김생의 친구인 이정자가 나서서 김생과 영영의 만남을 도와주고, 김생은 영영과 해후하여 함께 여생을 보낸다.

특징

① 보조적 인물들의 개입을 통해 등장인물 간의 사랑을 현실적이고 개연성 있게 표현함.

② 감정의 직접적 표현, 인물의 외양 묘사,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인물의 애정을 표현함.

04 서술상 특징

정답 ① 정답률 55%

정답 풀이

①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 막동이 김생에게 계책을 설명하는 부분의 '한 식경 후', '날이 저물 때쯤', '다음 날', '그 다음 날'과, 김생이 노파에게 영영을 처음 본 사건을 이야기할 때의 '모월 모일' 등을 통해 사건의 추이를 드러낸다.

오답 풀이

② 앞날의 일을 가정하여 갈등의 심화를 암시한다.

➡ 막동과 노파의 대사에 '~하시면 ~하지요.', '~한다면 ~일 것입니다.' 등 가정 표현이 나타나지만, 이것이 갈등의 심화를 암시하지는 않는다.

③ 인물에 대한 논평을 활용하여 갈등의 해소 방안을 제시한다.

➡ 막동의 '낭군께선 늘 언행이~', 노파의 '자색이 고운 것은~' 등은 인물에 대한 논평일 뿐 갈등 해소 방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④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여 성격의 변화를 보여 준다.

➡ 노파의 '이 애는 회산군~말미를 얻었기 때문이지요.'는 인물의 내력 요약일 뿐, 성격 변화를 보여 주지는 않는다.

⑤ 인물의 성격을 고사에 빗대어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한다.

➡ 노파의 '하동의 사자후보다 심하여'는 고사에 빗대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 표현이지만 사건의 전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념의 좌표

- 갈등의 심화(→ 175쪽)
- 편집자적 논평(→ 233쪽)
- 갈등의 해소(→ 175쪽)
- 요약적 제시(→ 142쪽)
- 고사의 활용(→ 252쪽)

05 소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④ 정답률 74%

정답 풀이

④ ㉠이 이루어지면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이루어지면 생이 영영과 만날 기회를 얻게 된다.

➡ ㉠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생은 '흉금을 털고 말하'게 되므로 생은 노파에게 속내를 드러낼 기회를 얻게 되고, ㉡이 이루어지면 생은 영영과 만나려는 '낭군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얻게 된다.

오답 풀이

① ㉠과 ㉡은 모두 생에게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 생은 ㉠에서 '진정 그럴듯하다 여기고 기뻐하며', '내 일이 잘 되겠구나'라고 하고, ㉡에서는 '기뻐하며', '할멈 말대로 된다면야 ~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라 반응한다. 따라서 의구심이 아니라 큰 기대감을 드러낸다.

② ㉠과 ㉡은 모두 생의 의도를 숨기기 위해 상황의 급박함을 부각하는 방식을 취한다.

➡ ㉠은 급박함을 부각하는 표현이 아니며 ㉡에서도 노파가 '때를 기다렸다가 오시지요.'라고 하므로 같은 방식으로 볼 수 없다.

③ ㉠은 막동의 제안을 생이 실행함으로써, ㉡은 생의 제안을 노파가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 ㉠은 막동이 제안하고 생이 실행한 것이며, ㉡은 생의 제안이 아니라 노파의 제안이다.

⑤ ㉠에서 생은 노파에게 접근하기 위해 가상의 존재를 내세우고, ㉡에서 생은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운다.

➡ ㉡에서는 영영과의 만남을 위해 노파의 제사상 계책에 동조할 뿐, 권력자의 위세를 내세우지 않는다.

06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⑤ 정답률 82%

보기

〈상사동기〉는 남녀가 결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애정을 추구하는 서사라는 점에서, 애정 전기 소설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전대 소설보다 현실성이 강화되었다. 감정에 충실하여 애정을 우선시하는 주인공의 성격,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 환상성을 벗어나 일상에 밀착된 배경의 설정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분적 한계를 지닌 여성과의 결연 과정에서 애정 성취를 가로막는 사회적 관습으로 인한 갈등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설사적 의의가 있다.

정답 풀이

⑤ 회산군 부인의 허락을 구하려는 노파에게 생이 동조하는 것에서, 사회적 관습 안에서 현실적인 애정 성취 방법을 찾는 인물의 내적 갈등을 확인할 수 있군.

➡ 〈보기〉의 '서사 진행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은 막동과 노파이다. 노파는 생과 영영의 만남을 돕기 위해 단오날에 영영이 궁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이 계획을 들은 생은 "인간의 5월 5일이 천상의 7월 7일이 되겠소!"라고 기뻐하며 동조하므로 해당 대화 내용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생이 첫눈에 반한 영영과의 애정 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점에서, 감정에 충실한 인물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군.

➡ 생은 첫눈에 반한 영영을 만나기 위해 막동과 노파의 제안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감정에 충실한 인물로 제시된다.

② 막동과 노파가 생의 애정 성취를 돕기 위해 나서는 점에서,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보조적 인물의 등장을 확인할 수 있군.

➡ 막동과 노파는 생과 영영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보조 인물로, 사건에 적극 개입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③ 생이 길을 가다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노파의 집까지 뒤따르는 것에서, 사건 전개가 일상적 공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군.

➡ 생은 '길에서' 우연히 영영을 마주치고 '할멈의 집'까지 뒤따르는데 이는 모두 일상적 공간으로, 사건이 현실적 배경 속에서 전개됨을 보여 준다.

④ 영영이 회산군 댁 시비인 까닭에 두 인물의 만남이 어려운 점에서, 여성 주인공의 신분적 한계로 인해 애정 성취에 곤란을 겪는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영영은 회산군 댁 시비로서 '궁에서 나고 자라 문 앞길도 밟지 못한 지 오래'되었으며, 노파는 생이 그녀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개념의 좌표

- 애정 소설(→ 240쪽)
- 전기 소설(→ 243쪽)
- 주변 인물(→ 135쪽)
- 배경(→ 202쪽)
- 인물과 사회의 갈등(→ 174쪽)
- 내적 갈등(→ 173쪽)

V 수필 • 극

01 수필 - 현대 수필, 고전 수필

확인 문제 p.274~277

바로바로 간단 체크 풀 비린내에 대하여_ 나희덕 ❶ 경수필 ❷ 자동차 ❸ 풀 비린내 수오재기_ 정약용 ❶ 기(記) ❷ 수오재 ❸ 나 주옹설_ 권근 ❶ 설(說) ❷ 손 ❸ 주옹 ❹ 마음

01 ② **02** ㉠: 풀벌레, ㉡: 피비린내 **03** ④ **04** ④ **05** ① **06** ③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 풀 비린내에 대하여_ 나희덕

작가의 일상적 경험에서 얻은 깨달음과 표현 방식에 주목하며 수필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이 글은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생태 문제를 성찰하게 하는 교훈적 수필이다.

자동차의 안락함에 젖어 있던 글쓴이는 어느 밤 고속 도로를 달린 후, 범퍼에 엉겨 붙은 수많은 풀벌레의 잔해를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 자신이 무수한 생명을 죽였다는 죄책감은 문명의 이기가 다른 생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손에 남은 '풀 비린내'는 글쓴이의 깊은 죄책감과 생태적 자각을 상징한다.

핵심 정리

| 작품 개요 |

- **갈래**: 현대 수필, 경수필
- **성격**: 일상적, 성찰적, 생태적
- **제재**: 자동차 운전, 풀벌레
- **주제**: 자동차를 사용하는 바람직한 태도와 생태주의에 대한 성찰
- **특징**: ① 일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의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인에게 생태 문제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반성과 성찰을 이끌어 냄.
  ②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해 경험을 인상적으로 표현함.
  ③ 티베트 승려들의 생태적 삶과 글쓴이의 생태적 사유를 통해 주제를 표현함.

01 정답 ②

정답 풀이

이 글은 글쓴이가 일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쓴 경수필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운전 중 풀벌레들이 죽은 경험을 통해 현대 문명이 야기하는 생태 문제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풀벌레의 생명도 존중해야겠다는 깨달음의 순서로 전개하고 있다.

③ 옛날 티베트의 승려들이 공기 중의 미생물을 죽이게 될까 봐 얼굴에 일곱 겹의 천을 두르고 다닌 사례를 통해 독자의 성찰을 유도하고 있다.

④ 풀벌레들이 죽은 잔해를 '마치 거대한 모터 주위에 두텁게 쌓여 있는 먼지 뭉치처럼'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⑤ '인간에게 안락한 공간이 다른 생명을 해칠 수 있'다는 것에서 글쓴이의 자동차에 대한 인식 변화를 알 수 있다.

02 정답 ㉠: 풀벌레, ㉡: 피비린내

정답 풀이

글쓴이는 풀벌레들이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쳐 죽은 잔해를 발견한 후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고, 자신에 대한 성찰 결과 '감성적 기계'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풀 비린내뿐만 아니라 피비린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자각에 도달하였다.

03~04 개념으로 작품 읽기 — 수오재기_ 정약용

개인적 경험의 과정과 이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 고전 수필을 읽으면서 기(記)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수오재기〉는 '수오재(나를 지키는 집)'라는 당호(堂號)에 의문을 제기하여 작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깨달음을 얻는 과정을 담아낸 고전 수필이다.

작가는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나'와 '또 하나의 나'를 구분하여 현상적 자아에 대비되는 본질적 자아의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본질적 자아인 '나'는 간직하고 지켜 내야 할 자아의 내면이고, 내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고 미혹에 빠지려고 할 때 중심을 잡아 줄 수 있는 든든한 기둥과 같은 것이다. 작가는 본질적 자아, 즉 내면적 자아를 유지할 때 비로소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거나 유혹당하지 않게 된다는 깨달음을 통해 큰형님이 '수오재'라는 이름을 지은 속뜻을 깨달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작가가 귀양지에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나'의 모습을 살펴본다는 내용은 반성과 성찰의 행위를 보여 주는 이 글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핵심 정리

| 작품 개요 |

-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기(記)
- **성격**: 회고적, 교훈적
- **제재**: '수오재'라는 집의 이름
- **주제**: 참된 '나'(본질적 자아)를 지키는 것의 중요성
- **특징**: ①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하게 된 과정을 기록하여 깨달음을 제시함.
  ②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함.
  ③ 열거와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 구성 |

기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한 의문
승	'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깨달음.
전	본질적 자아를 소홀히 여겼던 삶에 대한 반성
결	〈수오재기〉를 쓰게 된 이유

03 정답 ④

정답 풀이

글쓴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직접 인용의 방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독자에게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겠다는 목적성을 가진 글이다.
② 글쓴이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린 경험을 성찰한 후 본질적 자아를 지켜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③ '수오재기'라는 제목에서 '기'는 한문 수필의 대표 양식 중 하나인 '기(記)'를 뜻한다.
⑤ 글의 처음 부분에서 글쓴이는 '수오재'라는 이름에 대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문을 제기한다. 이후 자신의 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그 의문을 스스로 해소하고 있다.

04

정답 ④

정답 풀이

본질적 자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집에 '수오재'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글쓴이의 큰형님이다.

오답 풀이

① '내가 장기로 귀양 온 뒤'에서 알 수 있다.
② 글쓴이가 '나는 나를 잘못 간직했다가 잃어버렸던 자'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③ '수오재기'는 '큰형님이 자기 집에 붙인 이름'인데, 글쓴이는 '이상한 이름'이라고 생각한다.
⑤ 글쓴이는 '아늑한 바닷가의 대나무 숲'에 와서야 '멈추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귀양지인 장기에 와서야 자신의 본질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다.

05~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주옹설_ 권근

작가의 견해가 드러난 고전 수필을 읽고 설(說)의 특징을 파악해 보자.

해제 〈주옹설〉은 손과 주옹의 대화와, 작가의 허구적 대리인인 주옹의 말을 통해 세상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태도를 제시한 교훈적인 고전 수필이다.

손이 주옹에게 위험한 배 위에서 사는 이유를 묻자 주옹은 배 위의 위태로운 상황은 자신을 늘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고, 자신이 배의 중심을 잘 잡으면 충분히 평온을 지킬 수 있다고 대답한다. 즉, 스스로 중심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평탄한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배 위에서 사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옹의 관점은 통념에서 벗어난 역설적 발상을 보여 주며, 작가는 주옹의 말을 빌려 언제나 자신의 삶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평정을 잃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곧, 작가는 배를 타고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인생에 비유하여, 배를 탈 때처럼 언제나 조심하고 경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작품 개요 |
-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설(說)
- **성격**: 비유적, 교훈적, 계몽적, 관조적, 우의적
- **제재**: 뱃사람의 삶
- **주제**: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삶의 태도
- **특징**: ① 문답 형식을 통해 주장을 드러냄.
  ② 편한 삶과 욕심을 부리는 삶에 대한 경계를 나타냄.

05

정답 ①

정답 풀이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등과 같은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옹'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④, ⑤ 점층적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한 부분, 반어적 진술, 명령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시각적 심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대상을 예찬하고 있지는 않다.

06

정답 ③

정답 풀이

'주옹'은 풍랑이 거세게 일어도 편안한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위태로움을 느끼게 하는 외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손'은 ㉠이 변화불측하여 ㉠에서 지내는 것을 '험한 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라 하고 있다.
② ㉡은 세상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이지만, '주옹'은 오히려 물보다 더 위험한 공간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④ ㉣은 편안함만을 좇으며 욕심을 부리다가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비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매우 위태로운 곳이지만 주옹은 경계를 한다면 육지보다 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한다.

02 희곡

확인 문제

p.281~285

바로바로 간단 체크 북어 대가리_ 이강백 ❶ 자앙 ❷ 기임 ❸ ○ ❹ X ❺ 편지 ❻ 북어 대가리 불모지_ 차범석 ❶ 최 노인 ❷ ○ ❸ X ❹ 복덕방

01 ② **02** ⑤ **03** ①: [A], ②: [C], ③: [B] **04** ④ **05** ④ **06** ⑤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북어 대가리_ 이강백

희곡의 특징과 등장인물의 심리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글은 '자앙'과 '기임' 두 창고지기를 통해 현대 산업 사회의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삶을 비판하고 있다. 산업 사회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현대인들은 부속품처럼 존재하며, 세상과 자신에 대한 자각 없이 '창고' 같은 공간에서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한다.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 현대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 또한 자앙이 창고 안에서 혼잣말을 되뇌이며 성실하게 일하면서도 불안을 느끼는, 그의 내면의 혼란을 극적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자앙의 모습은 만약 창고 밖의 세상이 부정적이라면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결국 그릇된 세상을 떠받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현실에서 이미 가치를 잃었지만 끝내 버릴 수 없는 신념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며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회의를 느끼는 자앙의 내면을 말라붙은 '북어 대가리'의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핵심 정리

| 작품 개요 |

- **갈래**: 희곡, 현대극, 단막극, 부조리극
- **성격**: 상징적, 비판적, 풍자적
- **배경**: 시간 – 현대, 공간 – 창고
- **제재**: 두 창고지기의 삶
- **주제**: 산업화 사회에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인간 소외
- **특징**: ①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주제를 부각함
  ② 창고, 상자, 북어 대가리 등의 상징적 배경과 소재를 통해 주제를 우의적으로 드러냄.
  ③ 등장인물을 성씨나 직업, 별명 등으로 명명함.

| 구성 |

발단	새벽마다 트럭에 실린 상자를 옮기는 창고지기 자앙은 성실하고 꼼꼼한 사람이다. 그러나 동료 기임은 그런 자앙을 답답해하며 대충 일하고 놀기만을 원한다.
전개	트럭 운전수의 딸인 미스 다링을 만난 기임은 술에 잔뜩 취해 그녀의 부축을 받으며 돌아오고, 다링은 자앙을 유혹하지만 자앙은 그녀를 거부한다. 이후 자앙은 기임에게 잔소리를 퍼부으면서도 북어로 해장국을 끓여 준다.
위기	기임은 트럭 운전수의 딸 다링과 어울리다 상자를 고의로 바꿔 실어 보낸다. 이를 들은 자앙은 불안해 편지를 써 바로잡으려 하지만, 기임은 곧 창고를 떠날 것이라 말한다. 〈수록 부분〉
하강	트럭 운전수는 다링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임과의 결혼을 서두르며 함께 떠날 것을 권한다. 그는 자앙이 쓰던 편지를 찢으며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대단원	기임은 다링, 운전수와 함께 떠나며 자앙에게 북어 대가리 하나를 건넨다. 창고에 홀로 남은 자앙은 그 북어 대가리를 바라보며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이어 가기로 다짐한다. 〈수록 부분〉

01

정답 ②

정답 풀이

서술자가 작품 안이나 밖에서 사건을 전개하고 서술하는 소설과 달리, 희곡은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전개한다.

02

정답 ⑤

정답 풀이

혼자 남겨진 자앙은 잠시 자신의 가치관에 혼란을 느꼈으나 이내 다시 원래의 신념에 따라 상자를 옮기고 쌓는 일을 성실히 하기 시작한다.

오답 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에서 '자앙과 기임'은 '어둡고 좁은 창고 속에서 상자들을 옮기고 쌓는 작업'을 한다고 하였다.

② '기임'은 '고의'로 '창고의 상자 하나를 바꿔 내보'냈는데, '자앙'은 '운전수'에게 '편지'를 주면서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③ '다링'과 '기임'이 '고의'로 '상자 하나를 바꿔 내보'내는 행동을 통해 상자가 잘못 배달되는 사고가 생기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된다는 '자앙'의 말에 '큰 착각'이라고 대답하는 운전수의 모습에서 '자앙'의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03

정답 ①: [A], ②: [C], ③: [B]

정답 풀이

[A]는 '자앙'과 '운전수'가 서로 주고받는 대사이고, [B]는 등장인물들의 환호 소리나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이고, [C]는 등장인물이 혼자 중얼거리는 대사이다.

04~06 개념으로 작품 읽기

불모지_ 차범석

희곡의 특징과 구성 요소, 인물 간의 갈등 전개 양상에 집중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작품은 한 가족의 생활을 통해 1950년대 전후(戰後) 사회의 불안하고 암울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린 희곡이다.

근대화를 상징하는 신식 건물과 전근대적 가치를 상하는 낡은 한옥을 대비시켜, 새 시대를 추구하는 자식들과 옛것을 지키려는 최 노인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구시대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최 노인의 집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가족의 불화는 높이 솟은 현대식 건물의 풍경과 대조를 이루며, 전후 사회의 가치 혼란과 시대적 단절을 상징한다. 즉, 과거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시대는 아직 정립되지 못한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며, 전후 세대의 의식과 시대의 모순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작품은 인물 간의 대화로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여 주고, 과격하고 과장된 행동으로 화초밭을 짓밟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작품 개요 |

- **갈래**: 희곡, 현대극, 장막극, 사실주의극, 비극
- **성격**: 사실적, 비극적, 현실 비판적, 세태 고발적
- **배경**: 시간 – 전쟁 직후(1950년대 후반), 공간 – 서울 종로 한복판
- **제재**: 최 노인 일가의 삶
- **주제**: 전쟁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가족의 해체와 가치관의 변화
- **특징**: ① 평범한 한 가족의 몰락 과정을 통해 당대의 사회상을 집약적으로 나타냄.
  ② 낡은 한옥과 고층 건물의 대비
  ③ 최 노인과 자식들의 대조를 통해 전통과 현대의 충돌을 드러냄.

| 구성 |

발단	신식 결혼이 유행하면서 전통 혼례용 혼구 대여업을 하던 최 노인의 사업이 점점 쇠퇴하자, 가족들은 낡은 한옥을 팔자고 권한다. 하지만 최 노인은 집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전개	실직한 큰아들 경수와 배우를 꿈꾸는 큰딸 경애를 비롯한 가족들은 모두 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집을 팔자며 최 노인을 원망한다.
위기	가족들의 성화와 큰아들의 방황을 보다 못한 최 노인은 결국 마음을 바꾸어 집을 세놓기로 결심한다.
하강	큰아들은 아버지가 집을 판다고 오해하여 이를 막으려 하고, 최 노인은 큰아들이 세를 놓는 것에 반대하는 줄 알고 갈등이 심화된다. 〈수록 부분〉
대단원	결국 모든 불행의 원인이 돈 때문이라 여긴 큰아들은 강도짓을 벌이다 체포되고, 사기를 당한 큰딸은 절망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04

정답 ④

정답 풀이

'종로'라는 실제 지명이 '경수'의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최 노인'이 무엇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고 역정을 내는 극중 상황에 사실감을 더해 주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언어유희를 활용해 인물의 부조리한 면을 부각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② '경재'가 제복을 차려입고 등장하긴 하지만, 그 복장이 인물의 심리를 상징하거나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③ 집을 둘러싼 각 인물 간의 긴장이 장면 전환을 통해 고조되지는 않는다.

⑤ '경재'의 등장, '복덕방'의 퇴장, '최 노인'의 퇴장과 등장 등 무대 지시문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음에 진행될 사건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05

정답 ④

정답 풀이

㉣에서 '어머니'와 '경운'은 '예? 전세라구요?'라고 말하는 '경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수'와 마찬가지로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하는 줄로 알고 있어서 놀라서 서로 쳐다보는 상황이다. 뒤에 나오는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뭣 하시게요?'라는 '어머니'의 대사,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팔으실 줄만 알았어요.'라는 '경운'의 대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최 노인'은 주변에 들어선 높은 건물들로 햇볕이 들지 않아 화초와 고추 모가 자라지 않는 현실을 한탄하며, ㉠과 같이 '말세야, 말세!'라고 세태를 개탄한다.

② '경재'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버지에게 웅변조의 말투로 장난스럽게 훈계하며, 그 과장된 어조로 대화의 중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킨다.

③ '경수'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난 '복덕방'이 거래를 포기하고 나가자, '최 노인'은 그를 붙잡기 위해 '김 첨지'라고 낮춰 부르던 호칭을 '김 선생'으로 바꾸어 부른다.

⑤ '최 노인'이 갑자기 화초밭을 짓밟자, 놀란 '어머니'가 신발도 챙겨 신지 못한 채 뛰어내리는 모습은 다급한 심리를 행동으로 드러낸 장면이다.

06

정답 ⑤

정답 풀이

'최 노인'은 좌우를 가로막은 건물들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는 상황에서도 화초밭을 정성껏 가꾸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화초밭은 '불모지'가 될 지경이었으며 집을 전세로 놓으려던 계획도 무산되었다. 답답함과 분노, 좌절감에 사로잡힌 최 노인이 화초밭을 짓밟는 모습에서 그의 허망함이 드러난다.

오답 풀이

① 경재의 "지금 세상에 남의 집 고추밭을 넘어다보며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라는 말에서 화초밭이 큰 의미를 지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가족이 화초밭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기대했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② 화초밭을 짓밟는 행위는 울분과 절망의 표현이지, 집을 지키기 위한 행동은 아니다.

③ '두 인물의 상반된 행동'은 '최 노인'이 화초밭을 짓밟고 '어머니'가 이를 말리는 장면으로 보면 적절하나, 화초밭을 가꾸는 행동과 짓밟는 행동을 대비로 본다면 이는 한 인물의 상반된 행동이므로 부적절하다. 또한 이 장면에서 인물 간 갈등은 해소되지 않는다.

④ '최 노인'의 행동은 자책이 아니라 분노와 절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03 시나리오

확인 문제

p.288~291

바로바로 간단 체크 〈우리들의 블루스〉 중 15부 – 영옥과 정준 그리고 영희 2_노희경 ❶ 영희 ❷ 영옥 ❸ 정준 ❹ ○ ❺ X ❻ 버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_이문열 원작·박종원 각색 ❶ 김 선생 ❷ 병태 ❸ ○ ❹ X

01 ④ 02 ④ 03 E. 04 ① 05 ④

01~03 개념으로 작품 읽기

〈우리들의 블루스〉 중 15부 – 영옥과 정준 그리고 영희 2 _노희경

시나리오의 특징과 옴니버스식 구성의 특징, 등장인물의 심리에 주목하여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글은 2022년 방영된 제주도 배경의 20부작 드라마 대본으로, 푸릉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관계를 옴니버스 형식으로 그리고 있다.

제시문은 신입 해녀 영옥, 그녀의 쌍둥이 언니 영희, 그리고 젊은 선장 정준의 이야기이다. 영옥은 정준과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다운 증후군이 있는 언니 영희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정준의 청혼을 거절한다. 어느 날 육지의 장애인 시설에서 제주로 오게 된 영희를 본 정준은 처음엔 놀라지만, 곧 자신과의 결혼을 거절한 까닭이 영희 때문임을 알게 되어 영희와 진심으로 가까워지려 노력한다. 정준은 영희가 평소 영옥을 생각하며 그린 그림을 영옥에게 보여 주고, 영옥은 영희의 그림을 통해 언니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정준의 사랑을 받아들인다. 작품은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갈등과 이해, 사랑을 따뜻하게 그리며, 인간관계의 회복과 치유를 보여 준다.

핵심 정리

| 작품 개요 |

- **갈래**: 시나리오(드라마 대본)
- **성격**: 애상적, 사실적, 감성적
- **배경**: 시간 – 현대, 공간 – 제주의 작은 어촌 푸릉마을
- **제재**: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
- **주제**: 가족 간의 갈등과 사랑, 상처와 극복 의지
- **특징**: ① 옴니버스식 구성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그 극복 과정이 나타남.
  ② 인물들이 겪는 상처와 갈등을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에서 서정적으로 녹여 냄.

01

정답 ④

정답 풀이

시간적, 공간적 배경의 제약이 큰 희곡과 달리, 시나리오는 그 제약을 적게 받는 편이다.

오답 풀이

①, ② 희곡과 시나리오 모두 대사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지시문을 통해 인물의 동작을 지시한다.

③ 시나리오는 희곡과 달리 등장인물 수의 제약이 적은 편이다.

⑤ 이 글은 드라마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대본이다.

02

정답 ④

정답 풀이

정준은 영옥의 쌍둥이 언니인 영희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 주고 있다. 이에 친근감을 느낀 영희는 정준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앞부분 줄거리'에서 '영옥은 어릴 때 부모를 잃고 다운 증후군이 있는 쌍둥이 언니인 영희를 돌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영희는 '외로우면', '영옥이 보고 싶을 때마다' 그림을 그렸다고 하였다.

③ 정준은 나중에 영옥에게 그림을 보여 주기 위해 영희의 그림을 버스 안에 붙이고 있다.

⑤ 영옥이 정준의 버스 안에서 그림을 보는 장면에서 '영옥과 정준 사랑을 하다'라는 제목이 쓰여 있는 것으로 보아 영희는 영옥과 정준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03

정답 E.

정답 풀이

음향이나 대사와 같은 효과음을 제시하여 생동감을 부여하는 기법은 E.(effect)이다.

04~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_ 이문열 원작·박종원 각색

시나리오의 특징과 구성 요소, 인물 간의 갈등 전개 양상에 집중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글은 이문열의 동명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1960년대 시골의 한 초등학교를 배경으로, 엄석대라는 절대 권력을 가진 급장과 그 앞에서 굴복하는 나약한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의적인 수법으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의식 구조와 권력의 행태를 풍자한다. 이처럼 작품에 나오는 아이들의 세계는 어른들의 세계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주인공은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부조리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작가는 부정적인 인물이 성공하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당대 사회상을 비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작품 개요 |

- **갈래**: 시나리오
- **성격**: 우의적, 풍자적, 비판적, 사실적
- **배경**: 시간 – 1960년대, 공간 – 시골의 한 초등학교
- **제재**: 권력에 대한 소시민적 태도
- **주제**: 절대 권력의 허구성과 부조리한 현실에 이기적으로 적응하는 소시민적 근성 비판
- **특징**: 우의적인 방법으로 한국 사회의 왜곡된 의식 구조와 권력의 형태를 풍자함.

| 구성 |

발단	한병태는 아버지의 좌천으로 시골 학교로 전학을 가고 절대 권력의 학급 반장 엄석대를 만난다.
전개	한병태는 미묘한 협박과 은밀한 회유로 급우들을 억압하는 엄석대에 저항한다.
위기	저항의 결과로 한병태는 질시와 배척을 받고 소외당하며, 결국 절대 권력의 체제에 더 저항할 의사가 없음을 보이고 순응하며 동조한다.
하강	새로 온 담임인 김 선생에 의해 '엄석대' 체제의 허구성이 드러나며, 반 아이들은 그간 엄석대의 악행을 고발하며 공개적으로 비난한다. 이를 참지 못한 엄석대는 도망쳐 종적을 감추고 반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한다. 〈수록 부분〉
대단원	30년 뒤 장례식에서 한병태는 엄석대를 따르던 동창들과 굽신거리는 김 선생을 보고 허무함을 느낀다. 호화로운 조화 두 대만 확인한 채 엄석대가 어딘가에서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상갓집을 떠난다.

04

정답 ①

정답 풀이

"이렇게 매일 얻어맞고 그게 무서워 결석을 하고", "석대가 그렇게 무서워?"라는 김 선생의 말을 통해 석대가 강력한 힘으로 아이들에게 겁을 주어서 권력을 휘둘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③ 아이들은 석대의 횡포에 겁을 먹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선생은 "절대 피하지 마라.", "돌이라도 들고 싸워라."라며 아이들에게 석대에게 저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④ '제7차 급장 선거라는 글씨'를 통해 석대가 사라지고 나서 한동안 혼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새로운 급장인 '황영수'가 '단상에 오르지 않'고 '여러분에게 봉사하는 급장이 되겠'다고 말하는 모습으로 볼 때 제2의 엄석대가 되었겠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05

정답 ④

정답 풀이

〈보기〉에서 석대가 도망쳐 사라진 사건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아니라 작품 속 서술자인 '나'(병태)가 전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S# 136에서 김 선생이 '다시'를 반복하는 것은 아이들을 고무시켜 석대에게 맞설 용기를 북돋아 주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② S# 136에서 아이들의 힘찬 대답은 석대에게 맞설 용기를 얻었음을 보여 주며, 〈보기〉에서 아이들과 석대의 대결 장면을 대신한다.

③ 석대의 방화 장면은 〈보기〉에는 없지만, 시나리오에서는 그의 보복 심리를 암시하기 위해 추가되었다.

⑤ 〈보기〉에서는 서술자가 '혼란을 대하는 담임선생님의 태도는~'처럼 구체적으로 전달하였지만, 시나리오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04 민속극

확인 문제 p.294~296

바로바로 간단 체크 하회 별신굿 탈놀이_ 작자 미상 ❶ 양반 ❷ 선비 ❸ 비판 ❹ 언어유희 봉산 탈춤_ 작자 미상 ❶ 말뚝이 ❷ 생원/양반 ❸ 조선 후기 ❹ 취발이 ❺ 돈

01 ⑤ **02** ①: 대사와 행동/행동과 대사, ②: 비판 **03** ① **04** ③ **05** ⑤

01~02 개념으로 작품 읽기 하회 별신굿 탈놀이_ 작자 미상

민속극에서 풍자의 대상과 표현 방식을 확인하며 작품을 읽어 보자.

해제 이 글은 경상북도 안동 하회 마을에서 약 500년 전부터 음력 정초마다 마을 사람들의 무병과 안녕을 기원하며 서낭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동제로, 중요 무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다. 농촌형 탈춤의 대표적인 놀이로, 춤사위에 인위적인 동작이 없고 정적인 점, 의상이 화려하지 않은 평상복 차림, 대사가 직설적이고 외설적인 점이 특징이며, 백정 마당이 있고 탈을 태우는 뒤풀이가 없다.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기원하는 별신굿을 할 때 성황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종교적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동시에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지배층에 대한 비판 의식도 담고 있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희화화함으로써 양반 가문의 허구성과 양반과 선비의 무식함을 폭로하고, 그들의 위선과 허위의식을 풍자하고 있다.

핵심 정리

| 작품 개요 |

- **갈래**: 민속극, 가면극(탈춤) 대본
- **성격**: 비판적,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
- **제재**: 서민과 양반의 생활
- **주제**: 지배 계층의 위선과 민중의 비판 정신
- **특징**: ① 인물을 희화화하여 풍자하고 언어유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냄.
  ② 춤이 삽입되어서 놀이와 화합을 나타냄.

| 구성 |

강신(降神)		음력 정월 초이튿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성황당에 올라 성황신이 내린 서낭대를 가지고 마을로 내려온다.
무동 마당		성황신의 대역인 각시광대는 무동을 태우고 구경꾼들 앞을 돌며 풍악을 울려 *걸립을 벌인다. *걸립: 동네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들이 패를 짜서 각처로 다니면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리며 돈이나 곡식을 구하는 일.
제1과장	주지 마당	주지는 벽사 의식을 통해 잡귀와 사악한 기운을 몰아내고 탈판을 깨끗이 정화한다.
제2과장	백정 마당	백정은 춤을 추다가 소를 잡아 우랑을 꺼내 구경꾼들을 놀리며 그것을 판다.
제3과장	할미 마당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 가난하게 살아온 할미는 〈베틀가〉를 부르며 신세를 한탄하고, 쪽박을 들고 걸립을 한다.
제4과장	파계승 마당	부네가 치마를 들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본 중은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부네를 붙잡아 달아난다.
제5과장	양반 선비 마당	양반과 선비는 부네를 차지하려 다투고, 백정이 양기에 좋다는 우랑을 내보이자 서로 사려고 다툰다. 〈수록 부분〉
혼례 마당		성황당에서 내려온 일행은 마을 어귀의 밭에 멍석을 펴고 혼례식을 올린다.
신방 마당		이어 총각과 각시가 초야를 치르는 장면이 이어지며, 신방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삼경(밤 11시~새벽 1시)에 진행한다.

01

정답 ⑤

정답 풀이

이 글은 주요 향유 계층인 평민의 시각에서 파악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02

정답 ①: 대사와 행동/행동과 대사, ②: 비판

정답 풀이

배우들이 주고받는 대사를 통해 내용이 전개되고 있으며, 배우가 탈을 쓰고 공연하면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어 지배층에 대한 비판을 더욱 노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03~05 개념으로 작품 읽기 봉산 탈춤_ 작자 미상

민속극(가면극·탈춤)의 특징을 확인하면서 대표작인 〈봉산 탈춤〉을 읽어 보자.

해제 제시문은 〈봉산 탈춤〉의 제6과장 양반춤 마당이다. 양반을 모시고 다니는 말뚝이는 관객, 악공과 한 패가 되어 양반의 권위를 실추시키거나 무시함으로써 그들을 희롱한다. 때로는 양반들이 수준이 낮은 글을 지어 스스로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말뚝이나 관객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한다. 한편 양

반은 취발이를 잡아들이라 명령하고, 말뚝이는 이에 부패한 양반상이 드러나게끔 유도하여 지배층을 풍자한다.

핵심 정리

| 작품 개요 |

- **갈래**: 민속극, 가면극(탈춤) 대본
- **성격**: 비판적, 풍자적, 해학적, 서민적
- **배경**: 시간–조선 후기(18세기), 공간–황해도 봉산
- **제재**: 양반의 소개와 숙소 정하기
- **주제**: 양반에 대한 풍자와 조롱
- **특징**: ① 각 과장이 독립적임(옴니버스식 구성).
  ② 언어유희, 열거, 대구, 익살, 과장 등을 통해 양반을 풍자하고 비판함.
  ③ 서민 계층의 언어와 양반 계층의 언어가 혼용됨.
  ④ 무대와 객석, 배우와 관객이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음.
  ⑤ 봉건 사회에 대한 강한 비판과 근대 서민 의식이 나타남.

| 구성 |

제1과장	사상좌춤	상좌 넷이 사방신에게 절하며 예를 표하는 의식무를 춘다.
제2과장	팔목중춤	팔목중이 파계하고 법고놀이를 한다.
제3과장	사당춤	사당과 거사들이 흥겹게 논다.
제4과장	노장춤	노장이 유혹에 넘어가 파계했다가 취발이에게 욕을 본다.
제5과장	사자춤	사자가 파계승을 혼내고 화해의 춤을 춘다.
제6과장	양반춤	양반의 하인 말뚝이가 양반을 희롱한다. 〈수록 부분〉
제7과장	미얄춤	영감과 미얄, 첩의 삼각관계가 펼쳐지고 미얄이 죽는다.

03

정답 ①

정답 풀이

취발이는 전령을 보고 순순히 잡혀 옴으로써 양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⑤ 말뚝이가 생원에게 격식 있는 말투를 사용하거나 생원을 잘 모시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생원은 "이놈, 너도 양반을~다니느냐?"와 "나랏돈~잡아들여라." 등에서 양반의 위엄을 내세우지만, 이때 '상통', '모가지'와 같은 비속어를 섞어 쓰기도 한다.

④ "시대가 금전이면 그만인데~돈냥이나 벌어 쓰지 않겠소."라는 말뚝이의 말을 보면, 생원 역시 물욕을 부리는 탐욕스러운 인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정답 ③

정답 풀이

ⓒ는 '취발이'가 힘이 세고 날랜 것을 각각 '무량대각'과 '비호'에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취발이를 익살스럽게 그리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계층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오답 풀이

① '노새 원님'은 '노 생원님'과 발음이 비슷한 언어유희로, 양반 생원을 노새에 빗대어 희화화하고 있다.

②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디다."는 생원을 '샌님'이라 부르며 비하하는 표현이다.

④ 취발이가 양반의 코앞에 엉덩이를 내미는 행동은 양반을 조롱하는 해학적 장면이다.

⑤ 생원의 명으로 나랏돈을 잘라 먹은 취발이를 잡아오지만, 말뚝이는 생원에게 취발이에게 돈을 받고 그를 풀어 준 뒤 그 돈을 나누자고 직접 제안한다. 이는 취발이의 부정한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모습으로, 부정부패를 당연시하던 당시 사회의 모습을 비판한다.

05

정답 ⑤

정답 풀이

'전령'은 양반의 권위를 상징하며 '취발이'를 제압할 수 있는 소재이다.

수능 다가가기

p.298~299

01 ⑤ 02 ④ 03 ① 04 ⑤

01~02 2023학년도 수능 변형

김훈, 〈겸재의 빛〉

주제 겸재의 그림에 나타난 원근과 사실성의 의미

해제 이 글은 조선 시대의 화가 겸재 정선이 그림의 소재로 삼았던 동해안의 승경을 찾아다니며 겸재의 그림에 담긴 의미를 반추하는 내용의 현대 수필이다. 글쓴이는 옛 망양정 터를 찾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풍경과 그림 속의 풍경 간의 괴리를 간파하고, 이는 겸재 그림의 사실성이 물리적 거리감에 근거하는 대신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구성

처음	옛 자취는 사라지고 이제는 흙더미만 남은 망양정 터
중간	옛 망양정이 사라졌지만 허전하지 않은 이유
끝	겸재의 그림에 드러난 사실적 표현

특징

① 겸재의 그림 속 공간에서의 사색을 통해 그림에 담긴 의미를 살펴봄.
② 겸재를 따라 들른 여정을 중심으로 공간의 변화에 따른 생각을 드러냄.
③ 대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고 역설 표현으로 깨달음을 강조함.

01 서술상 특징

정답 ⑤ 정답률 81%

정답 풀이

⑤ 대상에 주목하여 대상과 관련된 가치를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글쓴이는 겸재의 그림에서 원근을 표현한 방식에 주목하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되는 사실성을 추구했던 겸재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계절감을 통해 자연의 변화를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 '초로의 어느 가을날'은 단순한 배경 제시일 뿐, 계절의 변화나 자연의 섬세한 묘사는 핵심이 아니다.

② 과거의 정경을 상상하며 몽환적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실제로 옛 망양정의 변모를 직접 답사하며 서술하고 있어, 몽환적 분위기보다는 현실적 인식이 중심이다.

③ 대상이 지향했던 관용적인 삶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 겸재의 삶이나 태도를 평가하지 않는다. 글의 초점은 대상이 추구한 삶이 아니라, 겸재의 회화적 시선과 미학적 깊이에 있다.
④ 현실을 비관하며 대상이 처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 사라진 정자에 대한 안타까움을 언급하지만, 단순한 비관이 아니라 그 결핍을 통해 예술적 인식의 본질을 성찰한다.

개념의 좌표

• 계절적 배경(→ 202쪽)

02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④ 정답률 89%

보기

겸재는 산을 그리면서도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리를 옮겨가면서까지 자신이 생각하는 구도로 풍경을 재구성하였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모든 대상이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되어 회화의 구도상 의미를 지닌 자리에 놓일 때야말로 진정한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겸재의 그림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정답 풀이

④ '인간과 인간에 직접 관련된 것들'을 '비교적 명료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것은, 대상을 옮겨 그려서라도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이겠군.
➡ 〈보기〉에 따르면 겸재의 그림은 화가의 시선에 의해 모든 대상이 재구성된 것이며, [A]에서 글쓴이는 겸재의 그림에서 사실성은 원근에 의해 정립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실성을 띠도록 그린다는 것은 풍경의 원근감을 보이는 그대로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화가의 시선에 의해 재구성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먼 산을 그릴 때' 그 거리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실물과 똑같이 그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이겠군.
➡ [A]의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말은 겸재가 실물 재현보다 인식의 깊이를 중시했음을 보여 주며, 〈보기〉의 내용과 같다.
② '그 거리를 들여다보는 시선의 깊이를 그린다'는 것은, 화가가 자신의 시선으로 풍경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함을 의미하겠군.
➡ [A]는 겸재가 대상을 자신의 구도로 재구성했다는 〈보기〉의 설명을 반영한다.
③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성을 부여받지 않'는 것은, 대상을 표현할 때 뺄 건 빼고 과장할 것은 과장할 수 있다는 화가의 생각 때문이겠군.
➡ [A]의 '가깝다고 해서 사실성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말은 화가의 시선에 따라 대상이 재구성된다는 〈보기〉의 내용과 일치한다.
⑤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성이 '정립'되는 것은, 화가의 의도에 따라 풍경을 재구성하는 창작 작업을 통해 그림의 요체가 드러나기 때문이겠군.
➡ [A]의 '세계를 관찰하는 인간'은 화가를 뜻하며, 사실성이 시선과 세계의 관계 속에서 정립된다는 점에서 〈보기〉와 같다.

03~04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변형

오영수 원작·신봉승 각색, 〈갯마을〉

주제 갯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

해제 이 글은 소설 원작 〈갯마을〉을 각색한 동명의 시나리오이다. 소설 〈갯마을〉은 갯마을에 대해 애정을 지닌 해순이라는 여인을 통해 갯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다. 해순은 풍랑으로 첫 남편인 성구를 잃고서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 식구들을 부양한다. 이후 두 번째 남편인 상수와 같이 산골로 가게 되는데, 그가 징용으로 끌려간 뒤 다시 바다로 가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느껴 갯마을로 되돌아온다. 이 글에서 바다는 해순과 마을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삶의 근거와 의미를 마련해 주는 순수와 원형의 자연 공간으로서 형상화된다. 이 시나리오는 다양한 기법을 통해 원작이 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과 한국적인 바닷가의 아름다운 풍광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구성

발단	남해안 이천리 갯마을의 해순은 성구에게 시집가 행복하게 살지만, 갯마을의 남자들과 고깃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성구가 풍랑에 휩쓸려 죽는다. 〈수록 부분〉
전개	남편의 죽음 뒤 해순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성칠과 함께 살아간다. 그러던 중 마을 청년 상수와의 사이에 연애 소문이 퍼진다.
위기	소문이 번지자 성칠은 어머니에게 해순을 상수에게 개가시키자고 설득하고, 어머니도 이를 허락한다.
절정	해순은 상수와 함께 마을을 떠나 산골에서 행복하게 살지만, 상수가 발을 헛디뎌 죽음을 맞이한다.
결말	상수를 잃은 해순은 그리워하던 갯마을로 돌아온다.

특징

① 폭풍우 속 여러 공간의 장면을 몽타주 기법으로 교차 제시하여 인간의 무력함과 절박한 생명 의지를 드러냄.
② 행동과 대사를 통해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제시함.

03 인물의 특징

정답 ① 정답률 90%

정답 풀이

① S# 21에서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 준다.
➡ 바다에 나간 고깃배가 풍랑에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간 것이므로,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S# 22에서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을 나타낸다.
➡ S# 22에서 '해순'은 당목 앞에 꿇어앉아 절을 한다. 이로 보아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폭풍우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S# 22에서 '순임'의 등장은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하던 행위를 중단하는 원인이 된다.
➡ S# 22에서 '순임'은 성황당에 올라와 '해순'과 같이 절을 한다. 이로 보아 '순임'의 등장이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S# 25에서 '해순'과 '순임'은 성황당에 모인 다른 아낙들과 갈등 관계를 형성한다.
➡ S# 25에서 '해순'과 '순임'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여 절을 하는데, 이들이 '해순', '순임'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S# 26에서 '순임'은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한다.**

➡ S# 26에서 집을 나가는 '윤 노인'을 말리는 '순임'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이다.

개념의 좌표

-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287쪽)
- 장면 번호(S#)(→287쪽)
- 시나리오 용어(→287쪽)

04 작품 이해

정답 ⑤ 정답률 91%

정답 풀이

⑤ S# 24는 인물들의 행위와 거센 파도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풍랑을 만나 자포자기한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S# 24에서 인물들은 비바람과 맞서 싸우고 있으므로, 자포자기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S# 18은 인물들의 행동을 보여 주는 장면들을 연결하여, 어수선해진 마을의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S# 18은 '문을 열고 하늘을 보'거나 '뛰어나와 바다를 보'는 등 인물들의 분주한 행동을 통해 폭풍우로 어수선해진 마을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

② S# 18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각각 보여 주어, 제시된 사건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S# 18은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장면들을 제시하지만, 이들은 모두 폭풍우가 몰려오는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이다.

③ S# 24는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S# 24는 '흔들리는 뱃사람들', '파도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장면을 반복해 배가 전복되기 직전의 긴박한 상황을 부각한다.

④ S# 24는 인물들의 대사 없이 행동으로만 장면을 제시하여, 인물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S# 24는 비바람에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통해 배가 전복될 위기에 놓인 성구의 절박함을 드러낸다.

개념의 좌표

- 시나리오의 특징(→ 286쪽)
-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287쪽)
- 시나리오의 구성 단위(→ 286쪽)

갈래 복합 문제 실전

p.302~304

01 ④ 02 ⑤ 03 ③ 04 ③ 05 ④

01~05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박목월, 〈경사〉

주제 나이 듦에서 느끼는 가뿐함과 신비로움

해제 이 시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느끼는 긍정적 감정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길'은 인생을 비유한 것으로, 길의 경사는 인생의 황혼기로 접어드는 화자의 처지를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이 늙어 가는 일을 유자나무에 유자가 열리듯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젊은 시절에 신었던 젖은 구두를 벗고 가뿐한 신발을 신고 내리막을 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침내 도달할 잔잔한 바다처럼 인생의 내리막을 다 걷고 나면 평온한 내면의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신비스로운 경사감'을 반복하여 표현하여 자신이 늙어 가는 일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내면을 강조하고 있다.

짜임

1연	자연의 순리 인식
2연	가벼워진 마음으로 느끼는 신비스러운 경사감
3연	수평선에 걸친 심오하고 잔잔한 바다
4연	가벼워진 마음과 바다로 기운 길
5연	황혼 무렵 바다로 기우는 세계에서 느끼는 신비스러운 경사감

특징

① 자연물의 변화와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자연의 섭리와 늙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냄.

② 유사한 문장 구조와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운율을 형성함.

③ 명사형으로 시행을 종결하여 여운을 형성함.

나 이수익, 〈달빛 체질〉

주제 달과 달빛에 대한 태생적이고 절대적인 사랑

해제 이 시는 '달'과 '달빛'에 대한 화자의 사랑이 태생적인 것이며, 그 사랑이 절대적인 것임을 노래하는 작품이다. 화자는 자신의 '조상'이 태양이 아닌 달을 숭상했으며, 달빛과 더불어 사는 삶에 행복을 느꼈고, 자신의 '피'에 그러한 '조상의 달빛 체질'이 녹아 있다고 밝힌다. 그리고 달에 대한 태생적 사랑이 삶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것임을 나타낸다. '달의 자장 속에 / 갇히기를 원했던' 조상들처럼 지금의 자신도 달의 '인력'에 끌리고 있다는 것은 자신에게 미치는 달의 무한한 영향력을 강조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짜임

1연	조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
2연	달빛과 어울려 살던 조상의 삶
3연	낮을 힘겨워하며 달이 뜨길 기다리는 화자의 모습
4연	조상에게서 이어진 달빛에 대한 지향
5연	밤길을 걷고 싶어 하는 화자의 모습
6연	달빛에 이끌림을 느낌.

특징

① 시어의 반복과 대조, 영탄법, 직유법 등을 통해 '달'과 '달빛'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냄.

②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다 채제공, 〈용연사기〉

주제 대상을 보는 바람직한 태도와 마음가짐의 중요성

해제 이 글은 '용연사'라는 집과 관련된 일화를 통해 마음먹기에 따라 대상의 가치가 달라지므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는 고전 수필이다. 글쓴이는 '용연사'에 사는 사앙에게 한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고 있다. 자신의 집이 작다고 여기는 사앙에게 글쓴이는 마음의 실제 크기는 작지만 마음을 제대로 기르면 천지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크다고 강조하며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있다.

구성

처음	사물의 크고 작음은 상대적이며 마음에 따라 달라짐.
중간	사앙이 기거하는 집 '용연사'의 뜻
끝	마음가짐의 중요성과 진정한 '큼'의 의미

특징
① 경전의 내용과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글쓴이의 생각을 제시함.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냄.
③ 설의적 표현, 명령적 어조, 사례 제시, 연쇄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드러냄.

01 종합적 감상

정답 ④ 정답률 82%

정답 풀이

④ (가)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는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가)는 '~에 ~가 열리고 ~에는 ~이 열리는 이 ~한 길은 ~로 기울~'의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나이 듦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임을, (나)는 '달'과 '달빛'의 시어를 반복하여 '달'과 '달빛'에 대한 화자의 절대적 사랑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여, 바라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가)는 일부 시행을 명사로 종결하고 있지만, 이는 화자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②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활용하여, 대상이 가지는 의미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나)는 '달'을 '더불어 집으로 돌아'오거나 '나를 끌고 있'는 존재로 표현하였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달을 애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③ (다)는 서로 다른 관점을 대비하여, 글쓴이가 주목한 세태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다)의 글쓴이는 사앙과 달리 집의 규모는 마음가짐에 달렸음을 말하며,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통해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 (나), (다)는 모두 감탄사를 활용하여, 대상에서 촉발된 정서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가)와 (나)에서 감탄사를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서 촉발된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 (다)는 감탄사를 활용하지 않았다.

개념의 좌표

- 의인법(→ 47쪽)
- 냉소(→ 26쪽)
- 통사 구조의 반복(→ 34쪽)
- 영탄법(→ 50쪽)

02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⑤ 정답률 65%

보기

시는 보조 관념을 통해 원관념을 드러내는데, 이때 추상적인 개념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될 수 있다. 시에서 형상화는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러한 유사성은 밝은 속성을 가진 대상은 긍정적으로, 어두운 속성을 가진 대상은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편적 인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개념과 이미지 간의 유사성이 화자 개인의 경험이나 인식에 기반해 개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정답 풀이

⑤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을 '빛나는' 것으로, (나)에서 '달빛'을 '밝은' 것으로 표현한 것은, 각각 눈이 부신 속성을 가졌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희망을 추구하는 화자의 내적 지향을 드러낸 것이겠군.

➡ (가)에서 '길'에 놓인 '자갈'이 빛난다는 말은 내리막길을 걸어가는 화자의 긍정적 심리를 밝음의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한 것이다. (나)에서 '달빛'이 밝다고 한 것은 달에 대한 긍정적 심리를 '달빛'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는 '젊음'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젖은 구두'를, 무거움이라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과거를 힘겨웠다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가)의 화자가 황혼기의 자신이 '무거운 젊음의 젖은 구두'를 벗고 가뿐한 신발을 신었다고 한 것은 자신의 '젊음'이 무거운 '젖은 구두'를 신은 것처럼 힘겨웠음을 나타낸 것이다.

② (가)에서는 '시야가 열리는' '바다'에 대한 인식과 '잔잔한' 모습을,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유사성을 바탕으로 연관 지어, 화자의 평온한 내면 상태를 드러내고 있군.

➡ (가)의 화자가 경사길을 걸어 '바다'를 만나고, 그 바다를 '잔잔한' 세계라고 한 것은 그가 늙어감에 따라 이르게 된 평온한 내면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③ (나)에서 '태양 체질'을 '뜨겁'다는 것과, '달빛 체질'을 '뒤안'처럼 '아늑하'고 '조용한' 것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추상적 개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것이겠군.

➡ (나)는 '태양 체질'과 '달빛 체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촉각과 시각, 청각 등의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가)에서 '해가 저물' 때의 심리를 '설레는 구름'과, (나)에서 밤에 느끼는 심리를 '크나큰 기쁨과 만나는' 상황과 연관 지어 표현한 것은, 모두 화자의 개성적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 (가)에서 '해가 저물' 때에 '설레'고, (나)에서 '낮'보다 어두운 밤에 '크나큰 기쁨'을 만난다고 한 것은 어두운 속성을 부정적으로 보는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난 표현으로 화자의 개성적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개념의 좌표

- 비유(→ 46쪽)
- 원관념과 보조 관념(→ 46쪽)
- 이미지(심상)(→ 40쪽)
- 형상화(→ 40쪽)
- 감각적 이미지(→ 40쪽)

03 시어와 시구의 의미와 기능

정답 ③ 정답률 82%

정답 풀이

③ 6연을 통해, '그것'이 '멀리' 있음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이 '모체의 태반'을 떠올리는 행위로 해소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6연은 화자에게 미치는 달의 영향력이 매우 큼을 보여 주고 있을 뿐, '그것'이 멀리 있어 아쉬움을 느끼는 화자의 심리나 '모체의 태반'을 통해 아쉬움을 해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2연과 4연을 통해, 1연에서 화자가 자신의 조상을 '달의 숭배자'라고 생각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군.

➡ 2연과 4연은 1연에서 언급한 '달의 숭배자'로서의 '조상'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② 4연을 통해, 화자의 '몸 안'에 '돌고 있'는 '피'의 속성은 '일생' 동안 '내 조상'이 '원했던' 것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내 몸 안에 피가 되어 돌고 있'는 것은 '일생' 동안 '달의 자장 속에 갇'혀 살기를 '원했던' '내 조상'처럼 자신도 '달빛 체질'임을 나타낸 것이다.

④ 2연과 3연을 통해 알 수 있는, 함께하는 대상에 대한 '그'의 정서를 바탕으로, 6연에서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것'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짐작할 수 있군.

➡ 화자가 가진 '나를 끌고 있다'고 생각되는 '달'에 대한 인식은 '조상'의 인식과 같다고 볼 수 있다.

⑤ 6연의 '바닷물'과 관련된 자연 현상을 통해, 4연의 '달의 자장'과 화자가 맺고 있는 관계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4연에서 화자는 조상처럼 '달'에 끌리어 '달의 자장'에 속하려는 '달빛 체질'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6연에서는 이런 관계가 '바닷물'을 끄는 '인력'처럼 매우 강력함을 나타내고 있다.

04 구절의 의미

정답 ③ 정답률 82%

정답 풀이

③ ㉢: 경험을 상기하는 표현을 통해, 자기 집의 크기에 대한 '사앙'의 인식이 변화하였음을 보여 주는 진술이다.

➡ ㉢은 글쓴이에게 자기 집이 작다고 말한 '사앙'과의 경험을 떠올린 것이다. 이는 자기 집이 제비 둥지를 겨우 수용할 정도로 작다는 뜻의 '용연사'로 명명한 이후에도 집의 크기에 대한 '사앙'이 인식이 변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진술이다.

오답 풀이

①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드러내는 진술이다.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외적 형태, 곧 크고 작음은 처음 생겨날 때 결정된 것이므로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나'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② ㉡: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관점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마음먹기에 따라 사물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나'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 명령하는 표현을 통해, '나'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사앙'에게 권유하는 진술이다.

➡ "~해 보게."라는 표현을 통해 사물의 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탕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권유하려 하고 있다.

⑤ ㉤: 연쇄적 표현을 바탕으로, '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를 '사앙'에게 적용하여 설명하는 진술이다.

➡ '집과 몸', '몸과 마음', '마음과 천지'의 관계를 연쇄적으로 표현하여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개념의 좌표

- 설의법(→ 54쪽)
- 연쇄법(→ 50쪽)
- 인용법(→ 55쪽)

05 외적 준거 활용

정답 ④ 정답률 76%

선생님: 문학 작품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 대한 화자나 글쓴이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에서는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화자의 인식이, (다)에서는 사물의 형태와 주관적 판단의 관련성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나타나 있지요.

정답 풀이

④ (가)에서 화자는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을 통해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다)에서 글쓴이는 '큼과 작음'을 통해 대상의 가치는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가)에서 '저녁 햇살'이 비추는 대상은 '바다로 기울'고 있는 '길'로, '저녁 햇살 속에 자갈이 빛'난다고 묘사하여 황혼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글쓴이는 사물의 '큼과 작음이 일찍이 없었던 것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대처'함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며, 대상의 가치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가)에서 화자는 '유자낢에 유자가 열리'는 자연의 섭리에 주목해 나이 듦이 당연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 (다)에서 '사양하지 않고 다 수용'한다고 한 것은 사앙의 집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마음먹기에 따라 집이 작지 않다는 것을 강조한 것일 뿐이다.

② (가)에서 화자는 '신비스러운 경사감'에 주목해 황혼기에 대한 기대감을, (다)에서 글쓴이는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에 주목해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군.

➡ (다)에서 '향기와 빛깔이 한데 모이'는 '뜰'은 '용연사'의 뜰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집이 작다고 여기는 사앙의 생각을 지적하려 했을 뿐이다.

③ (가)에서 화자는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을 통해, (다)에서 글쓴이는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가)에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대상은 '바다'를 이르는 것으로, 화자가 내리막길의 끝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고 여기는 평온한 세계를 의미한다. (다)에서 '푸르른 산 빛을 보내오'는 것은 '사앙'이 집에서 볼 수 있는 자연으로, '사앙'의 집이 자연을 담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와 (다)에서 자연으로부터 위로받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 화자는 '기우는 세계'에 주목해 황혼기의 불완전함을, (다)에서 글쓴이는 '편히 여기며, 자고 거처하는 집'에 주목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군.

➡ (가)의 화자는 인생의 황혼기를 '기우는 세계'에 비유하여 불완전한 것이 아닌 신비로운 것으로 인식한다. (다)에서 '편히 여기고 거처하는 집'은 작지만 자기 집에 만족하는 '사앙'의 태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다.

memo





